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박사 학위논문

# 한국어 성조 연구에 관한 역사적 연구



2020년 8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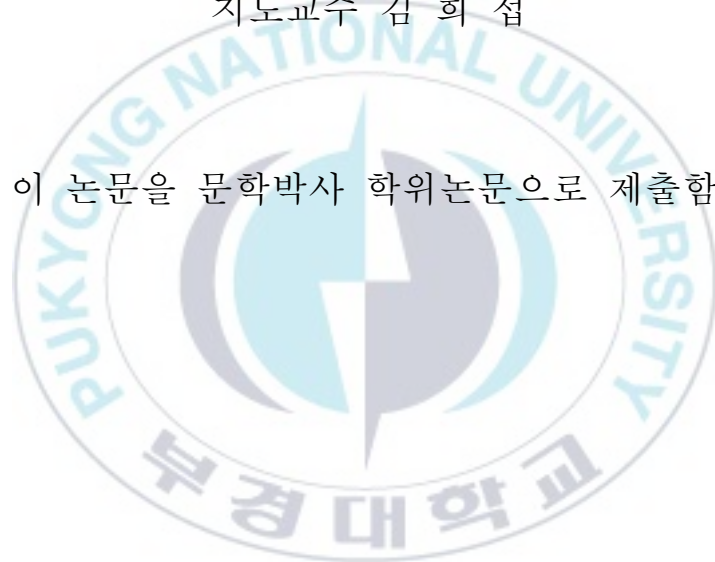
왕 영 준

문학박사 학위논문

# 한국어 성조 연구에 관한 역사적 연구

지도교수 김 희 섭

이 논문을 문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8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왕 영 준

왕영준의 문학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0년 8월 28일

위 원 장 문 학 박 사 김 영 선 (인)

위 원 문 학 박 사 김 무 식 (인)

위 원 문 학 박 사 채 영 희 (인)

위 원 문 학 박 사 권 성 미 (인)

위 원 언 어 학 박 사 김 희 섭 (인)

# 목 차

* 표 목차 .....	iii
* Abstract .....	iv
I.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 내용 .....	5
3. 연구 방법 .....	5
II. 선행연구 검토 .....	7
1. 성조의 유래 .....	7
2. 성조의 변천 .....	11
3. 방점의 본질 .....	18
III. 중세 한국어의 성조 .....	27
1. 방점과 성조표기 .....	27
2. 성조의 체계 .....	36
3. 15세기 이전 성조의 체계 .....	48
4. 15세기 성조의 변천 및 소멸 .....	52
IV. 현대 한국어의 성조와 음조 .....	78
1. 함경방언의 성조와 음조 .....	78
2. 경북방언의 성조와 음조 .....	94

3. 경남방언의 성조와 음조 .....	105
<b>V. 결론</b> .....	<b>116</b>
* 참고문헌 .....	119
* 국문초록 .....	130



## <표 목차>

<표 1> 선행연구 정리 .....	17
<표 2> 성조 비음운화 단계 .....	47
<표 3> 경남방언의 성조형과 그 실현 .....	114



# A Historical Study on the Study of the Korean Tone

Wang, Yongzhu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ain and discuss the variation of the Korean vocal system in detail through various prior studies.

In order to study the changes of the Korean tone, the research on the Korean tone and regional dialects was collected firstly among the master's and doctorate degree papers and academic journals found in the academic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provided by the National Assembly Electronic Library and the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s. The collected research was reviewed several times based on the existing research related to the tones of Korean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hange process in the Korean tone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medieval language was an tonal language with discriminative height, and the creator of "Hunminjeongeum", who found out the fact, tried to express the tone of the time on every syllable in everyday writing. The discussion of tones can be divided into two directions. The first is the taste and interpretation of the character described in "Hunminjeongeum", and the another is the exploring the tonology as a phonological phenomenon in medieval Korean language.

While the creator of "Hunminjeongeum" devised a very unique and creative way of writing the tones, Bangjeom, he did not explain the creating principle anywhere else. Modern researchers recently have discussed the principles and origins of the creation of "Hunminjeongeum" consonants and vowels so far, but have not paid much attention to the origins of Pyeongsung does not dot, Geosung makes a dot on the left side of the letter and Sangseong makes two dots on the left side of the letter. This is a task that needs to be addressed



with interest.

The language of this morpheme changed from the 15th century to the 16th century. The 15th century topological system, which had its own tones in each morpheme, eventually changed only the location of the first Geosung in each verse in the 16th century into a meaningful phonetic accent language.

From this point of view, most of the examples, which were exceptions to the 15th century dance rules, were believed to have had pause in front of the morpheme in the previous period, so it is assumed that the intonation of the grammatical morphemes was not important at some point before the 15th century.

The view that the change tone in the end of a word could be assumed between 1103 when "Gyerim yusa" was written and 1408 in "Joseon Gwan yeokeuh" supports that the tone information of the ending or grammatical formations was not important. Eventually, before the development of the morpheme system seen in the 15th century, only the tone of the lexicon was an important phonetic accent system. And as entering the 16th century, full-scale pitch accents proceed.

Discussions on language in the past period should start with acknowledging the uncertainty of the limits of research on literature materials. Such a view does not imply the extinction of the tone in the literature language between less than 70 years, either based on the tone changes in the Chinese, Japanese and Southeast Asian languages, or the fact that the tone in the Kyungheung dialects have remained unchanged for more than a thousand yea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ind the cause of the changes in the marking of the tones during the period elsewhere.

As we have seen so far, the study of intonation has been approached in various aspects, including the nature of the focal point, the medieval Korean language, the association with Chinese characters, and dialects. In this book, we focused on the changes in the tone. On this point, I believe that failure to express a clear view is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When it comes to the study of the Stars and Stripes, there are still many tasks to be addressed, such as the origin of the emphasis and the recognition of the founder of "Hunminjeongeum." We would like to turn these issues into future tasks and make a main focus.

# I. 서 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어는 15세기 중엽에 『훈민정음(訓民正音)』이 창제되면서 독자적 문자가 되었다. 이에 따라 성조(聲調)<sup>1)</sup>에 관한 연구가 15세기부터 시작된 것이다. 여러 학자들은 15세기 한국어가 성조언어였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서 『훈민정음(訓民正音)』 창제자들이 사성체계를 만든 이유나 성조를 표시하는 방점(傍點)<sup>2)</sup>까지 창안해서 한국어의 운율소에 관한 심도 깊은 연구를 해 왔다. 한국어의 성조에 대한 연구는 『훈민정음 해례본(訓民正音 解例本)』이 1940년에 발견된 이후부터 사성체계와 방점에 관하여 활발하게 이어져 왔다(김성규, 2009a).

이처럼 많은 한국어 학자가 한국어의 사성체계와 방점에 관한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훈민정음 해례본(訓民正音 解例本)』에서는 사성체계를 간략히 설명하고 이를 구분해서 표기하기 위해 각 음절마다 방점을 표기했다는

- 
- 1) 성조는 언어의 운율적(韻律的, prosodic) 요소 중에서 음고(音高 또는 음조, 音調, pitch)를 바탕으로 하여 조직되는 음운론적인 단위이다. 단어를 변별시키는 기능을 한다. 음고(音高, pitch)는 주로 청자의 인식적·심리적 측면에서 음의 높낮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화자의 발성적인 측면에서 파악하는 음향음성학적인 기본 주파수(基本周波數, fundamental frequency)에 대응하는 것이다(Laver, 1994).
  - 2) 한국어의 성조(聲調)를 표시하기 위하여 『훈민정음(訓民正音)』에 마련된 표기법이다. 『훈민정음(訓民正音)』에 사용된 방점(傍點)은 한국어의 성조체계를 중국의 운학(韻學) 체계에 의존하여 설정한 것이다. 15세기에는 성조를 가려서 발음하였고, 『훈민정음(訓民正音)』에서는 방점으로 표하고 평성·거성·상성으로 부르다가 17세기에 이르러 소멸되었다.

사실이고, 둘째는 『훈민정음(訓民正音)』 창제와 더불어 만들어진 방점이 한국의 문헌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이며, 셋째는 일부 방언(예: 중부방언)에서는 성조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지만<sup>3)</sup> 경상도와 함경도 지역 방언에서는 일부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김차균, 2004).

15세기와 16세기의 문헌에 표기된 방점은 한국어 학자들에게 주요 연구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어 성조에 관한 연구에서도 논쟁의 여지가 있었다(김차균, 2010). 중세 한국어는 ‘단어 음고 체계’<sup>4)</sup>에 가깝고(정연찬, 1975), 15세기 한국어에서는 각각의 문법형태소들도 독자적인 성조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김성규, 2009a).

이러한 한국어의 성조 흔적에 관한 연구는 여러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구현옥(2003)은 성조란 말하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주관적인 지각에 기초한 음고로서 그 뜻을 변별하기 위한 중세 사람들의 노력이라고 했다. 그러나 『훈민정음(訓民正音)』에서의 방점(傍點)을 통해 중세 한국어의 성조를 연구할 수 있고 한국어의 음운사도 기술할 수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15세기 한국어 성조에 대한 비교 및 대조 연구가 있다. 권재선(1974)은 『계림유사(鷄林類事)』<sup>5)</sup>를 대상으로 고려 성조를 고찰, 김병욱(1989)은 중세 한국어의 중모음을 대상으로 성조를 조사, 김성규(2011)는

3) 중부방언에서는 때로 성조가 음장(音長)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4) 정연찬(1969)은 중세국어와 현대 경상방언의 성조는 Pike(1948)의 네 가지 ‘기본 특성’ 중 ‘음절 음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유의미성’이 단어의 의미부, 그 중에서도 특히 어두 음절에 집중되는 점으로 보아 ‘어휘적으로 유의미한 음고’라는 속성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국어 성조를 개개 음절의 성조보다는 ‘어사(語詞)’의 성조형이 더 중요한, ‘단어 음고 체계(word-pitch system)’로 볼 것을 주장하였다. 즉, 국어 성조는 매 음절의 음고가 변별력을 가지지 못하고 단어 차원의 음고 혹은 성조형이 그런 구실을 한다는 점을 중시한 것이다(김성규, 2009a).

5) 중국 북송(北宋)시대 봉사고려국신서장관(奉使高麗國信書狀官)이던 손목(孫穆)이 편찬한 건문록이자 어휘집이다.

중세 한국어의 성조 변화와 성조형을 분석하였다. 특히, 김영국(1995, 1996)은 『훈민정음(訓民正音)』 창제 전후의 성조재구설에 대해 비판적 관점을 제시하였으며, 문효근(1974)은 15세기 성조와 방언 성조를 비교함으로써 한국어 성조를 분석하였다.

김한별(2013)은 중세 한국어에서 고정적 상성 어간의 성조 변화를 조사하였으며, 박병채(1990)는 SK와 SV<sup>6)</sup>를 대상으로 중세 한국어의 성조언어를 비교하였다. 특히, 손주일(1983)은 한국어 성조 연구의 현황을 통해 앞으로의 과제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15세기 음운연구의 현황을 분석한 서재극(1970)의 연구에서도 제시되었다.

다른 학자들은 한국어 방점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시도하였다. 안영희(1984)는 중국어 성조현상과 관련지어 한국어의 방점의 특징을 조사하였으며, 오종갑(1974)은 16세기 성조언어의 특징을 조사하였으며, 이문규(2006)는 한국어 성조체계의 성조형 대응양상을 비교하였다. 이문규(2013)는 또 한국어 성조론에서 성조형의 개념과 그 위상을 살펴보고, 이진호(2015)는 중세 한국어에서 성조언어의 축약양상과 제약을 고찰한 바 있다. 최근에 강원 지역 방언을 끊임없이 조사해온 최영미(2017b)는 한국어에서 동사 ‘가·다’를 대상으로 성조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조사하였으며, 황보영식(2005)은 지역 방언 간 성조 변화과정과 방언 내 성조 변화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다.

한편 최근까지 한국어 성조의 변화과정은 중세 한국어와 현재 각 지역 방언들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다. 예를 들면, 중세 한국어 성조는 경상도방언(강기향, 1985; 강홍구, 2003a, 2003b; 김고은, 2018; 김무식, 1999, 2005; 김성환, 1988; 김세진, 2006a, 2006b, 2011; 김세환, 2006,

---

6) SK는 한국어 한자음(Sino-Korean)의 약칭이고 SV는 월남한자음(Sino-Vietnamite)의 약칭이다.

2013, 2018; 김주원, 2000; 김차균, 2002a, 2002b, 2010, 2018; 박숙희, 2011), 제주도방언(강석한, 2011), 함경도방언(김봉국, 2004). 강원도방언(김봉국, 2018a) 등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는 지역 방언에서 나타나는 성조와 중세 한국어의 성조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김영만(1976)은 지역 방언 중에서 서울, 전라도 그리고 제주도방언에서 중세 한국어의 성조형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다른 한국어 학자들은 경북방언을 대상으로 복합명사 형성에 나타나는 성조 변화를 연구하였는데(정원수, 1993), 정경원(2018)은 경남 산청 지역의 방언을 대상으로 성조체계를 조사한 바 있다.

이상으로 기존의 한국어 성조에 관한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한국어는 성조언어였음이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국어에서 성조변화의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성조가 고대 한국어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였는지, 성조가 주던 변별력이 어떤 원인에 의해 상실되어 성조의 소멸에 이르렀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어 성조체계의 변화과정을 그동안의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논의하는 데 주요 목적을 두었다.

이에 따른 세부적 연구 목적을 정리하여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조에 대한 선행 연구사를 검토하고, 한국어가 성조언어라는 것을 확실히 파악된다.

둘째, 중세 한국어의 성조체계와 경상방언, 함경방언의 성조를 비교·검토한다.

셋째, 중세 한국어 성조체계의 붕괴 방향과 방언 성조의 변형에서 나타나는 혼란상의 비교를 통하여 한국어의 보편적 음운 변화상이 성조의 혼적을 제시한다.



## 2.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성조 변화과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존 연구물의 주요 결과들을 중심으로 다음의 내용을 조사한다.

첫째, 한국어 성조 변화과정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조언어가 갖고 있는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방점의 실현 양상과 그 본질을 분석한다.

둘째, 한국어 성조의 변화와 지역 방언의 성조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한국어 방언 성조의 기본적인 특성을 분석한다.

셋째, 한국어 성조는 15세기 전후로 성조언어였다는 가설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15세기 중세 한국어를 중심으로 한국어 성조체계의 변화과정을 분석한다.

넷째, 한국어가 성조언어였다는 사실을 재조명하고 앞으로의 연구방향과 그 과제를 제시한다.

##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성조의 변화과정을 연구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성조의 변화과정을 연구하기 위해 국회전자도서관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에서 검색된 석·박사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중에서 한국어 성조 및 각 지역별 방언에 관한 연구물을 1차로 수집하였다. 또한 성조에 대한 각종 간행물과 중세 한국어 문헌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우선 수집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성조의 유래와 방점의 본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현재까지도 성조의 흔적을 보이는 지역 방언의 운소체계를 조사하고 한국어 성조의 변화과정을 추적한 다음, 중세 한국어의 성조와 어떠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훈민정음(訓民正音)』에서 나타난 방점이 어떤 변화과정을 거쳐 소멸되었는지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 II. 선행연구 검토

### 1. 성조의 유래

성조는 뜻의 변별을 높이기 위해 구별하고자했던 중세 언중의 노력으로, 객관적인 높이<sup>7)</sup>가 아니라 토박이 화자가 받아들이는 주관적인 인식에 근거한 음운학적인 높이이다(구현옥, 2003a). 이러한 사실은 『훈민정음 언해본(訓民正音諺解本)』의 사성을 설명하는 부분에 잘 나타나 있다. 김차균(1998)에 의하면, 방점이 없는 성조에 대해서 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표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고, 점 하나 있는 것을 거성이라 하고, 두 개인 것을 상성이라 함은 유표적인 것으로 보고자 하는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성조에 대한 한국어 학자들의 관심은 주로 15세기에서 출발한다. 한국어가 알타이어족에 속한다는 가설을 따르면 성조는 후대에 발달했을 것이므로 그 기원을 규명하는 일은 더욱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sup>8)</sup>. 중요한 사실은 한국의 전통적인 한자음인 동음(東音)이 성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김성규, 1988). 이기문(1977)이 지적한 것처럼 그것들이 받아들여진 고대 한국어의 시기에는 성조가 있었음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특히, 중세 한국어의 문헌들을 통해 확인되는 형태소들은 성조의 실현양상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기저의 성조를 고정적인 평성이

7) 음향물리학적 높이라고도 할 수 있다.

8) 한국어의 계통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었고, 알타이어족에 속한다는 가설이 19세기 무렵에는 설득력을 얻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로 이들 언어들이 어족을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마련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한국어는 흔히 하나의 언어로만 이루어진 한국어족에 속한 고립어라고 분류된다.



나 거성 또는 상성으로 설정할 수 있는 형태소들이 속한 부류이고, 또 하나는 표면에서 실현되는 성조의 가변성을 기저형 설정에 반영하는 형태소들이 속한 부류이다(김성규, 2011). 실제 성조의 실현은 어휘의 형태소와 관련된 음운조건 또는 형태론적인 조건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한국어 성조의 변화 연구는 주로 중세 한국어와 현재 경상 및 함경방언과의 관계를 중점으로 이루어져왔다(김차균, 1993). 성조를 연구하는 한국어 학자들은 중세 한국어의 성조가 지역 방언에서 나타난 성조 간에 관련성이 있다고 한다. 중세 한국어에서 저성조의 경우에는 경북 지역의 방언에서는 고성조로 바뀌고, 고성조의 경우는 저성조로 변화가 되며 상승조의 경우에는 저성조로 바뀐다(조성문, 2007). 그러나 함경도 지역의 방언의 경우에는 저성조가 그대로 저성조를 유지하며 고성조 또는 상승조의 경우에도 고성조를 그대로 유지한다. 반면 서울, 전라, 제주 방언에서는 중세 한국어의 성조형이 모두 유실되었다는 것이 정설이다(김영만, 1974). 그러나 제주방언이 차지하는 특유의 한국어 음운 변천사적 위치를 고려해 본다면, 비록 음운론적 의미에서 변별적 대조를 가져오는 성조가 사라졌다 하더라도, 음성학적인 의미에서의 악센트 유형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는 관점이 제기되고 있다(강석한, 2011).

성조표기는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표기법이 알파벳 첫 문자(L:저조, H:고조, M:중조, R:승조)로 통일되어 가는 추세이다.<sup>9)</sup> 중세 한국어 성조는 3개 즉, 거성과 상성 그리고 평성으로 인정되지만, 연구자마다 나름의 기준을 설정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설정이 아쉬운 점도 있다(강홍구, 2003a).

한국어의 성조방언에서 성조 변화 현상을 가져오게 하는 중요한 음운변화 현상으로는 중화(中和)가 있다. 한국어에서는 하나의 음운론적인 낱말

---

9) 따라서 본고에서도 이 표기를 따르고자 한다.

내에서 성조연결의 제약이 매우 강렬하고 엄격하여 그 유형이 지극히 제한적이다. 이러한 제한은 음운론적 중화에 기인한 것으로서 현대 한국어의 모든 성조방언에 공통된 현상으로 간주되고 있다(김차균, 1999).

한국어 성조에서 방점표기는 임진왜란(壬辰倭亂) 이후 한국어의 표기가 간소화됨에 따라 소멸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세기이전까지 한국어 운소에 대한 표기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운소 자체에 대한 관심도 없어졌다.

중세 문헌의 방점표기가 높낮이를 표기했음을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한 최초의 학자는 고노 로구로(河野六郎)(1945)이고, 중세 한국어의 방점과 현대의 방언 성조의 대응 관계를 밝혀서 성조의 통시적인 연구를 가능하게 한 것은 허웅(1955)이다. 이들 두 사람의 4성조에 대한 현대 말 옮김은 겉으로 보기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들은 한국어의 성조를 2단2성조체계로 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3성조체계로 구분하거나의 갈림길이 되며, 이는 2세대 및 3세대 학자들에까지도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김세진, 2006).

고노 로구로(河野六郎)(1945)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15세기의 『훈민정음(訓民正音)』, 『훈민정음 언해본(訓民正音諺解本)』, 『동국정운 서(東國正韻序)』, 16세기 최세진(1527)의 『훈몽자회(訓蒙字會)』 등의 문헌에 적힌 4성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조선어는 성조언어였고, 그 체계는 기본적으로 평성(저조, 무점)과 거성(고조, 1점)의 2성조체계였으며, 상성(2점)은 낮게 시작해서 높게 끝나는 저고의 복합성조로 보았다(김세진, 2006).

고노 로구로(河野六郎)(1945)는 상성이 복합성조라는 증거로서 ‘너+·이→:네, 부터+·이→부:테’와 같은 15세기 자료가 보여 주는 공시적인 증거 외에도 『훈민정음(訓民正音)』이 반포되기 이전의 자료에서 □·□ 상태의 두 음절의 연결에서 두 모음 사이에 개재하였던 자음의 약화 소멸로 인하여 두 모음이 축약되면서 15세기 문헌에 :□(상성)으로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가·히>:개, 누·리>:늪, 나·리>:내, 고·니>:괴, 거·니>:계’와 같은 자료들을 제시했다(김세진, 2006).

고노 로구로(河野六郎)(1945)의 2성조관은 한국 제2세대 성조 학자들(대체로 1960년 이후의 성조 연구자들)인 김완진(1977), 정연찬(1976) 등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연구는 모든 상성을 저고의 병치로 볼뿐만 아니라, 특히 김완진(1977)에서는 생성음운론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사용해서, 그 추상적인 기저형을 설정하여 표면형을 도출해 내는 데에 긍정적인 성과를 도출하였다(김세진, 2006).

이상으로 한국어 성조의 유래에 관한 여러 학설을 살펴보았다. 우선 당대의 자료로써 『훈민정음 언해본(訓民正音諺解本)』과 『훈몽자회(訓蒙字會)』 등에서 성조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성조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후 임진왜란(壬辰倭亂) 등을 거치면서 표기의 간소화에 따라 방점 등이 소멸되면서 운소에 대한 인식 자체가 희석되었다. 그리고 한국어에 대한 자각과 연구가 본격화된 초창기의 주시경과 최현배 등도 방점에 대한 분석은 미비하였다. 이후 허웅(1955) 등이 중세 한국어의 방점을 현대 한국어 방언의 성조와 비교 연구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선구적인 연구에 뒤이어 성조의 실체, 즉 평성, 거성, 상성의 음상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성과가 있었다. 이들은 각각 저성과 고성, 그리고 저고 복합성조로 구체화되어 학계의 정설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성조의 구체적인 양상은 파악하였으나, 소멸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할 한계점이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15세기 당시에는 성조가 현실음에 대한 이상적(理想的) 표기로서 엄연히 존재하였다고 보고, 그것이 16세기의 혼란상을 거치면서 소멸하여 가는 과정을 추적하여 보고자 한다.

## 2. 성조의 변천

한국어 성조에 관한 연구는 크게 중세 한국어 성조에 대한 연구, 한국어 방언 성조 현상에 관한 연구, 외국어 성조와 한국어 한자어 장단음의 관련성 연구, 고대 한국어 성조 비교연구로 나눌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훈민정음(訓民正音)』이 창제된 직후 방점의 존재로 인한 중세 한국어 성조 여부에 관한 논의 및 그 특성에 대한 연구이다.

둘째, 한국어 방언 성조 현상에 관한 연구는 특정 방언의 성조소<sup>10)</sup> 목록을 확정하고 체언과 용언 어간의 기저 성조 및 조사와 어미의 기저 성조를 설정하여 어간의 곡용과 활용 및 복합어의 형성 등에서 나타나는 성조 변동 현상, 기저 성조의 배열 및 표면 성조의 실현에 관여하는 제약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각 지역 방언에서 일어난 성조 변화의 기제를 음성학적, 음운론적, 형태론적, 통사·의미론적 측면에서 분석한 것이다. 그리고 방언의 성조체계와 그 현상을 기술하고 그 역사적 변화를 설명하였다. 이들 연구에서 제기된 쟁점 사안을 크게 성조방언권 문제, 성조소 문제, 성조형<sup>11)</sup> 문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 밖에도 각 지역 방언 성조체계를 비교하고 있다.

셋째, 외국어 성조와 한국어 한자어 장단음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이다. 이 연구들은 중국어의 음운적 특징인 네 가지 성조가 한국어 한자어의 발음에 미치는 영향을 학문적으로 확인하고 그 영향을 체계적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한국어와 중국어 파찰음의 조음위치를 음향·음성학적 실험을 통

10) 이문규(2006)에 따르면, 성조소는 각 음절에 실린 높낮이 자질로서 성조론의 최소 단위이다.

11) 이문규(2006)에 따르면, 성조형은 형태소 이상의 단위에 얹히는 높낮이 가락을 의미한다.

하여 파악하였다. 그리고 중국어 성조에 따라 한국어의 평음, 경음, 격음이 어떻게 대응되는지 발화 실험과 청취 실험을 통해 두 언어의 과찰음에 관한 변화음을 대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고대 한국어 성조 비교 연구에서는 15세기 전후 중세 한국어 고정적 상성 어간에 관한 성조 변화과정, 성조의 운율·음운론적 분석 그리고 15세기 성조와 방언 성조와의 비교를 통하여 한국어 성조를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 중에서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중세 한국어의 성조 존재 여부와 그 특성에 관한 연구이다. 진소정(1993)의 중세 한국어의 성조를 포괄적으로 분석하였다. 김영국(1994)은 한국어의 사성체계와 방점(傍點)을 통하여 15세기의 한국어가 성조언어였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훈민정음(訓民正音)』 창제와 함께 만들어진 사성체계는 칠음(七音)<sup>12)</sup>과 사성(四聲)<sup>13)</sup>이 횡(橫)과 종(縱)으로 이루어진다는 음운관(音韻觀)에 깊은 영향을 받아 왔던 『훈민정음(訓民正音)』 창제자들이 한국어의 운률소(장단)와 중국어의 운률소(장단과 고저)를 동일하게 인식하여 방점은 이와 같은 사성을 구별하기 위해 만든 인위적 표기 형태라고 했다. 최영미(2009)는 15-16세기에 방점이 표기된 문헌들을 이용하였는데, 주요 문헌으로는 1449년에 간행된 『석보상절(釋譜詳節)』과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을 비롯하여 1510년에 간행된 『번역박통사(翻譯朴通事)』와 『번역노걸대(翻譯老乞大)』 등이었다. 중세 한국어를 중심으로 성조에 의한 어미를 분류한 김성규(2011)는 단음절 모음 어간의 경우에는 약한 어미의 앞에서 평성으로 실현되지만, 강한 어미의 앞에서는 거성

12) 음운학(音韻學)에서 본 일곱 가지 소리. 곧 어금닛소리[牙音]•혓소리[舌音]•입술소리[唇音]•잇소리[齒音]•목구멍소리[喉音]•반혓소리[半舌音]•반잇소리[半齒音].

13) 사성(四聲)은 중고한어에 존재하던 성조(음질의 고저변화)를 분류한 것이다. 즉, 평성, 상성, 거성, 입성의 네 가지를 말한다.



으로 실현된다고 하였다. 비록 어미들 대부분은 고정적 거성을 가지고 있지만 일부 어미들은 앞에서 실현되는 성조에 따라서 상성이나 평성이나 또는 거성으로 실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김성규, 2011).

김세진(2012)은 『소학언해(小學諺解)』 해석에 근거하여 한자어의 방점 표상을 복수로 나타나는 경우와 단수로 나타나는 경우로 구분하여 창원 지역에 나타나는 방언의 방점 표상과를 비교하였다. 이후 김세진(2015)에서는 『번역소학(翻譯小學)』과 『소학언해(小學諺解)』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자어를 대상으로 한자 형태소 자료들의 방점 표상을 대조한 결과, 이들 두 문헌이 발간된 70년 동안에는 성조체계가 안정기에 있었음을 제시하였다. 15세기 중세 한국어의 고정적 상성 어간을 대상으로 성조를 연구한 김한별(2013)은 상성으로 실현되는 ‘l’(y) 말음 1음절 용언 어간 가운데 파생된 어간은 고정적 상성(R) 어간에 대응하는 반면, 단일 어간은 상평 교체(R/L) 어간에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남기탁(2013)은 중세 한국어가 성조언어라는 성조기원론의 관점에서 중세 한국어에 나타난 방점이 당시의 성조표기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성조가 발생된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즉 방점표기가 없어진 것을 성조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성조와 방점을 하나로 간주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준환(2019)은 『훈몽자회(訓蒙字會)』의 한자어에 반영된 한자음 성조가 실현된 양상을 살펴본 결과, 복수 성조를 가진 것들 중에서는 복수 성조 중 하나를 반영한 것도 많지만 한국어 어휘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나 성조 율동규칙과 관련된 것도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진호(2015)는 중세 한국어의 성조 축약 양상과 제약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모음 탈락이나 반모음화와 같은 비음절화로 인해 평성과 거성 음절이 하나의 음절로 축소될 때 그 성조가 상성으로 실현되는 축약 현상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방언 연구와 관련하여 백금란(2019)은 함경남도 신흥방언의 성조 변동 현상을 분석하였다. 정경원(2018)은 경남 산청 지역 방언의 성조 체계에 대하여 용언 굴절형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문효근(1974)은 15세기 성조와 방언 성조와의 대조를 통해 한국어 성조를 분석하였다.

동남방언에서 지역적 분화를 가져온 성조의 변화를 분석했던 伊藤貴祥(이토 다카요시)(2015)는 안동 지역을 근거로 한 경북 지역의 북부방언이 성조 변화에 가장 강한 영향력을 미친 진원지라는 사실을 밝혔다. 최영미(2009)는 성조 연구방법론(김차균, 1993)을 이용하여 정선방언을 대상으로 그 성조체계와 주된 현상들을 설명하는 가운데 역사적 관점에서 그 변화 과정을 설명하였다.

최영미(2009)는 중세 한국어에서부터 지역 방언 즉, 창원방언, 삼척방언, 정선방언의 방점형, 성조형, 음조형의 실현을 비교함으로써 정선방언의 성조 체계에 대한 변화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최영미(2009)는 중세 한국어와 정선방언과의 대응관계를 기술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중세 한국어의 성조를 통해 정선방언에 대한 성조체계의 역사적 변화를 설명했다.

김고은(2018)은 경남방언의 성조가 저조(L)와 고조(H)를 갖는 체계이며, 각 성조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김봉국(2018)은 강원 지역 방언의 성조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대상으로 강원방언의 성조가 갖는 특징을 살펴보았다. 기존의 연구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성조방언권, 성조소, 성조형 등으로 구분하면서 강릉과 삼척 그리고 영월 지역의 방언을 성조 방언으로 분류했지만, 평창과 정선 지역의 방언에 대해서는 성조방언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김세환(2018)은 경북방언이 성조언어에 속한다고 보고 성조 가운데 말(斗)류에 속한 성조는 고조이며, 상승조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하강조

도 성조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경북방언에서 성조 변화는 상승조가 사라지고 고조가 L1HL로 바뀌는 변화와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김차균(2018)은 고성방언과 창원방언의 풀이씨 굴곡형들의 성조형을 비교했다. 1음절 풀이씨는 어간 기저 성조와 굴곡형에서 성조 변화여부에 따라 6 가지의 어간(고정 평성, 변동 평성, 고정 거성, 변동 거성, 고정 상성, 변동 상성)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양 방언의 대응관계를 대조했다. 2음절 어간 풀이씨의 대다수는 어간의 성조 변동이 없으므로, 오직 어간 성조의 변동이 있는 2음절 변동 평성형 어간만 대상으로 하였다.

최영미(2013)는 중세 한국어에서 성조가 재배열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상성형으로 실현된 것은 탈락으로 인해 성조의 보상이 발생하지만, 정선방언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혁(2018)은 함경방언의 음고가 진정한 의미에서 성조라는 사실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음고가 악센트가 아니라 성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유필재(2011)는 '거, 아/어'계 어미에는 어간의 타동사성에 의해서 교체가 일어나는 것과 교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지만, 성조가 교체되는 양상은 모두 똑같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이근열(2008)은 부산방언 성조 변화를 연구하고 경상방언의 성조 변화가 모음의 음운체계와 관계가 있으며, 이문규(2019)는 경상방언의 성조형 분석과 관련하여 학자들 사이에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몇 가지의 문제점에 대하여 성조형 중심의 음운 과정론이라는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임석규(2014)는 성조 현상을 방언구획 논의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경상방언에서 실현된 성조 현상을 9개 권역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임석



규(2019)는 성조방언을 대상으로 비어두 장음을 연구하고 또한 함경도, 강원도 그리고 경상도 지역의 말에서는 성조가 매우 의미 있는 기능을 가진다고 하였다.

최명옥(2019)은 중세 이전의 한국어 성조체계에 대해서 연구하고 한국어의 성조가 16세기 중기에 들어서면서 점차 소멸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한국어의 성조언어가 음장언어로 바뀌기 시작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중세 시대에 사용되던 중부지역의 방언은 오늘날의 중부지역의 방언과 똑같이 음장방언이라고 하였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문헌상에서 성조에 대한 표기가 혼란스럽고 표기가 되지 않은 것은 어떤 변화에 의해서 성조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문헌에 표기된 성조와 실제 지역에서 사용되는 방언들의 성조가 일치하지 않은 데에서 일어난 지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성조표기를 폐지한 데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였다.

세 번째로, 외국어의 성조와 한국어 장단음을 비교한 연구를 살펴보면, 고설정(2014)이 대표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한자어의 장단음으로 동시에 쓰이는 양용 한자음을 살펴보았다. 김태경(2008)에서는 상용한자에 나타난 중국어 성조를 비교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고대 한국어 성조 비교연구를 살펴보면, 권재선(1974)은 신라어의 성조를 재구하였다. 즉 현재 경상도 방언 구획으로 인정되는 신라의 향찰 표기 등을 중심으로 성조를 분석한 것이다. 이는 고대 신라어의 성조를 분석한 연구로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향가 등의 자료는 그 양이 적기 때문에, 연구의 한계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권인한(2016)에서는 고대 한국어의 성조체계를 밝히고 있다.

이상으로 선행 연구를 검토한 결과, 그 본격적인 연구 대상이 되는 것은 중세 한국어 『훈민정음(訓民正音)』 창제 이후의 자료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고대 한국어 자료는 자료의 부족함, 표기 체계의 미비함 등을

이유로 대개 성조체계를 불완전하게나마 재구성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뿐이었다. 『훈민정음(訓民正音)』 창제 직후에는 성조 표기에 대한 의지의 증거로 방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중세 한국어의 성조 연구는 매우 광범위하면서도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한국어의 방언 중에서도 함경도방언, 경상도방언은 성조를 지니고 있는 독특한 것으로, 주된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훈민정음(訓民正音)』 창제에 깊이 관여한 세종의 가내(家內) 언어가 함경도방언이었을 가능성이 있어, 이 방언의 연구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하,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선행연구 정리

	유형별	연구 목록
1	중세 한국어 성조 연구	진소정(1993), 김영국(1994), 최영미(2009), 김성규(2011), 김세진(2012, 2015), 김한별(2013), 남기탁(2013), 이진호(2015), 이준환(2019)
2	한국어 방언의 성조 연구	문효근(1974), 이근열(2008), 최영미(2009, 2013), 유필재(2011), 임석규(2014, 2019) 이토 다카요시(2015), 김고은(2018), 김봉국(2018), 김세환(2018), 김차균(2018), 박진혁(2018), 정경원(2018), 백금란(2019), 이문규(2019), 최명옥(2019)
3	한자어 장단음과의 비교 연구	김태경(2008), 고설정(2014)
4	고대 한국어 성조 연구	권재선(1974), 권인환(2016)

### 3. 방점의 본질

#### 가. 성조설(聲調說)

『훈민정음(訓民正音)』의 표기체계는 한국어의 음운사를 연구하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한다. 방점이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중세 한국어의 성조를 연구할 수 있고 한국어의 음운사도 기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계림유사(鷄林類事)』와 15세기 한국어의 성조를 비교한 김성규(2004)의 연구는 한국어 성조 변화에 관한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계림유사(鷄林類事)』를 이용한 한국어 성조 연구는 많은 편이 아니지만(권인한, 1991; 권재선, 1974), 이들의 연구는 『훈민정음(訓民正音)』 이전 자료를 이용한 성조 연구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권재선(1974)은 고려시대의 어미가 평성이라는 일정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권인한(1991)은 항목 선별의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특히, 김성규(1991)는 후기 중세 한국어의 성조는 각 음절의 높낮이가 중요하지만 그 가치는 이웃하는 음절의 높낮이와의 비교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2음절어를 자료로 성조에 대해서 논의할 때 이웃하는 음절 사이의 상대적 높낮이를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성규(2009a)는 15세기와 16세기의 문헌에 표기된 방점이 관심사가 된 이후 100여 년간 성조에 대한 연구에서도 다양한 논란이 있어 왔다고 하였다. 방점의 정체에 대한 논의를 필두로 하여, 중세 한국어의 성조소 개수를 설정하는 문제, 그리고 개별 형태소들의 성조 유형과 율동규칙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논의 중에서 중요한 것은 당시의 성조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다. 중세 한국어가 ‘진정한 성조(true tone) 언어’와 ‘음고 악센트(pitch-accent) 언어’ 가운데 어느 쪽에 해당하

는지에 대한 논의는 Pike(1948)의 이론에 기대어 출발하였다.

정연찬(1969, 1975)은 중세 한국어가 ‘단어 음고 체계(word pitch system)’에 가깝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기문(1977)은 당시의 언어가 성조언어였다는 견해가 제시된 반면, 김완진(1999)은 성조언어에서 악센트어적인 방향으로 발달하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완전한 전환을 보이지 않은 언어의 가능성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후의 많은 연구에서는 중세 한국어의 성조를 음고 악센트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뚜렷이 보인다(김성규, 2009b).

김성규(2009b)는 음고 악센트론에 따라, 하나의 어절 내에서는 첫 거성의 위치가 결정되면 해당 어절의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의 악센트는 ‘거성불연삼(去聲不連三)’ 등의 율동규칙에 의해 자동적으로 결정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음고 악센트론의 논의에서 간과한 점이 있다. 첫째, 음고 악센트론의 관점으로 설명하기 힘든 많은 문법형태소들이 15세기에 존재한다는 것이고, 둘째, 15세기와 16세기의 성조 실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16세기의 성조는 분명히 음고 악센트론으로 기술하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15세기의 경우는 그러한 틀을 적용하는 데 무리가 따른다. 음고 악센트론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어절에서 첫 번째 거성의 위치만 알면 다른 형태소들의 성조 정보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김성규(2009a)가 지적한 바와 같이, 15세기에는 이러한 형태소들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단순한 예외로 치부될 수준을 넘어선다. 15세기의 한국어는 각각의 문법형태소들도 독자적인 성조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단계라고 규정되어야 한다. 한편 16세기에 들어서면 이처럼 자신의 성조 정보를 유지하던 형태소들이 자신의 특수성을 잃어버린다. 음고 악센트 체계의 전형적인 현태가 된다. 그러나 문법형태소들이 독자적인 성조 정보를 갖고 있는 15세기의 한국어 성조의 유형과 중국어로 대표되는 음절 성조

체계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유형론적인 차이에서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한국어는 둘 이상의 음절도 하나의 형태소를 이룰 수 있지만 중국어의 경우는 대개 하나의 음절로 하나의 형태소가 구성되므로 중국어 역시 형태소 단위에 성조가 부여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김성규, 2009b). 성조 또는 악센트 연구의 초기에는 비교 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동일한 고립어들을 대상으로 성조언어와 악센트언어를 찾아서 비교하거나 동일한 교착어들을 대상으로 성조언어와 악센트언어를 찾아서 비교했어야 정당한 비교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의 방점 연구는, 대부분 방점을 한국어의 성조를 표기하기 위한 것이거나 한자음의 성조를 표기하기 위한 것인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는 두 가지가 있다.

흔히 중세 한국어는 성조언어라고 보는 성조설이 허웅(1955), 이기문(1977), 이상억(2000) 등을 비롯하여 여러 연구에서도 제시되었다. 예를 들면, 河野六郎(고노 로구로)(1945)은 성조에서 가장 낮은 소리는 평성이고, 가장 높은 소리는 거성이고, 처음은 낮지만 나중에는 높은 소리가 상성이며, 그리고 빠르게 끝나는 소리가 입성이라고 하였다. 허웅(1955)은 성조의 평성은 낮은 가락을 평성으로, 거성은 높은 가락을 거성으로 그리고 낮다가 높아가는 가락을 상성이라고 하였다.<sup>14)</sup>

이상억(2000)은 중세 한국어가 성조를 음소로 가진 언어로서 음고에 따라 말의 뜻이 분화되는 언어라고 하였다. 하지만 표준 한국어에서는 음고의 기능이 소멸하는 대신에 음장이 운소기능을 하고 있다.

---

14) 이기문(1977)은 『훈민정음언해본(訓民正音諺解本)』의 주(注)에서 높은 소리는 거성, 낮은 소리를 평성이라 하고 처음이 낮고 나중이 높은 것을 상성이라고 한 것을 통해 15세기 학자들이 한국어의 성조체계를 평성과 거성이라는 2성조소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이상으로 기존의 학자들의 관점을 종합하면, 낮은 소리는 평성이고, 높은 소리는 거성이며,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변화하는 소리는 곧 상성이다.

#### 나. 장단설(長短說)

방점을 성조로 보지 않고 중국어에서는 사성체계를 적용하려는 의도였으나 고유어에서는 방점이 음장 또는 장단을 나타내었다는 주장에는 주시경(1908), 최현배(1937, 1945), 이희승(1955) 등이 있다. 주시경(1908)은 가장 긴 최장자(最長者)는 상성이요, 점점 길어지는 초장자(稍長者)를 거성, 보통의 평상자(平常者)를 평성, 모음의 장단을 입성으로 분류하였다.

최현배(1937, 1945)는 점이 없는 평성을 짧은 소리로, 점이 두 개인 상성에 대해서는 처음은 짧은 소리이나 나중에는 긴 소리, 점이 하나인 거성을 약간 긴소리로, 점이 하나인 입성을 약간 긴소리라고 하였다. 이희승(1955)은 점이 없는 평성을 짧은 소리, 점이 두 개인 상성을 긴 소리, 점이 하나인 거성을 약간 긴 소리로 정의하였다.

이상의 분석에서 한국어 방점의 정체에 대한 논의는 크게 성조설과 장단설로 나누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방점을 장단설로 볼 경우, 현재 방언에 존재하는 높낮이 성조를 설명할 수 없다. 그리고 한자음 동음(東音)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훈민정음 언해본(訓民正音諺解本)』과 『훈몽자회(訓蒙字會)』 등에 나타난 방점과 성조에 관한 설명이 구명되지 못하는 난점이 따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방점이 곧 성조임을 밝히고자 한다.

중세 한국어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방점으로 표기된 성조이다. 그러나 방점표기가 16세기를 거치면서 문헌상 소멸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중부방언에서도 뚜렷한 성조는 존재하지 않은 채 장단에 의한 소수의

최소대립쌍(minimal pair) 들이 남아 있을 뿐이다. 그래서 중세 한국어의 성조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문헌자료에 의한 연구와 현존언어로서 그 성조기능이 분명한 방언 자료가 주요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중세 한국어의 성조 설명과 현재의 경상방언의 자료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반면, 함경방언의 자료와는 상당부분 일치한다. 또한 경상방언이라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방언의 성조 차이가 커서 연구자에 따라 관점이 매우 다르다(강기향, 1985).

강기향(1985)은 15세기의 중부방언에는 고저의 성조뿐 아니라 장단까지도 존재했으며, 중세의 중부방언과 경상방언은 서로 다른 성조를 가지고 있다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한국어는 본격적인 성조언어라고 할 수는 없지만, 15세기 이전부터 고저, 장단 등 초분절소를 가졌고 현재 일부 지역의 방언에도 그 흔적들이 남아 있다. 15-16세기 문헌에서는 3가지 초분절소를 구분하는 기호인 방점이 찍혀 있었다(고설정, 2014). 『훈민정음(訓民正音)』에서 성조를 위하여 각별한 배려를 하여 가점(加點)<sup>15)</sup>으로서 표기하는 것도 널리 알려져 있다. 『훈민정음(訓民正音)』이 제정된 후 15세기 초에 간행된 자료들 중에서 『훈민정음(訓民正音)』, 『훈민정음 해례본(訓民正音解例本)』, 그리고 『훈민정음 언해본(訓民正音諺解本)』에도 방점이 규칙적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 후에 15세기 말부터 한국어의 한문 문장에서 입성 방점의 소멸을 시작으로 16세기를 거치는 동안 방점이 많이 소멸되었다. 16세기 방점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 문헌으로는 『훈몽자회(訓蒙字會)』와 『소학언해 범례(小學諺解凡例)』 등이 있지만, 17세기에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난

---

15) 가점(방점 찍기)은 성조이다. 즉 소리의 고저(높낮이)를 나타내는 평성, 상성, 거성, 입성을 표시한 것이다.

후부터는 방점이 한국어에서 소멸되었다.

성조는 모든 형태소가 가지는 고유 성조인 기저 성조형, 형태소 결합을 거치면서 변화된 최종 성조형, 각 방언의 음성형으로 표시되는 표면 음조형으로 구분된다(김차균, 1980). 기저 성조형에서 최종 성조형이 도출될 때 적용되는 성조 규칙은 한국어 성조언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지만 최종 성조형에서 표면 음조형 단계에 적용되는 음조 규칙은 방언마다 다를 수 있다(구현옥, 2004b).

언어적 체계측면에서 성조가 아주 중요한 경상도 지역의 방언 연구에서도 성조에 대한 탐색은 가끔 간과된다.<sup>16)</sup> 경상방언의 성조에 관한 연구에서는 고조와 저조를 성조소로 간주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말(語), 사람’ 등의 첫 음절에 나타나면서, 경북의 상승조에 대응하는 성조소의 설정이다(김고은, 2018). 허웅(1954)의 김해 지역 방언 연구에서는 방언의 음절 음조에 대하여 세 가지의 가락(낮은 가락, 가운데 가락, 높은 가락)으로 구분하였다.

경남 지역의 방언을 3개의 성조소로 파악하고자 하는 흐름은 여러 연구들에서도 제시되었다(김차균, 1980; 문효근, 1974). 경남방언을 저·중·고의 3-성조소 체계로 설정할 경우, 이 방언을 다른 방언과 비교하거나 대응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따른다(이문규, 2001). 경북방언이나 강원 영동방언의 저조는 음성적으로나 음운론적으로 경남방언의 중조에 대응한다. 이에 따라 김차균, 김세진 등의 3-성조소 체계에서는 방언 간의 통합적 기술을 위해 이들 방언의 성조를 중조와 고조만으로 표기한다. 그러나 이문규(2001)와 같이 이 방언의 화자들이 모든 소리를 높은 소리/낮은 소리/긴 소리로 인식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중조와 고조의 2단 체

16) 대개 방언 연구의 특성상, 연구자가 그 지역 출신이 아니면 언어에 대한 직관 역시 부족하기 마련이다. 중부방언 사용자들은 말에 성조가 없으므로, 대개 경상방언의 성조를 잘 감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계는 방언 화자의 직관에 부합하지 않는다. 저조가 없이 중조와 고조를 둔다는 것은 체계적으로도 어색하다고 할 수가 있다(김고은, 2018).

성조의 대립여부와 성조소의 특성을 확인하는 작업은 성조를 연구하는데 성조 연구의 기초이다. 이를 기초로 하여 성조형의 기본적인 특성에서부터 시작하여 실험음성적학인 관점에서 성조의 특성,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 실현되는 성조형이나 음조형의 특징을 살피는 것으로서 그 접근이 점점 확장되었다. 강원방언의 성조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은 문효근(1973, 1974)이라 할 수 있다. 이 논의에서는 강릉, 삼척방언을 대상으로 하여 성조의 대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혔고, 평판조로 구성된 저조(L), 중조(M), 고조(H)의 세 성조소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어 이익섭(1972)에서는 강릉, 삼척방언에 대하여 중조(M)의 설정을 비판하면서 저조(L)와 고조(H)가 서로 대립한다고 하였다.

현대 한국어의 운소 분포를 제시한 이기문 외(1991)는 운소를 논의하는 가운데 강릉과 삼척 그리고 영월을 강원방언의 성조 지역으로 포함시켰으며, 평판조인 저조(L), 고조(H) 그리고 상승조(R)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음절수에 근거하여 강원 지역의 방언에서 나타나는 성조형을 제시하였다.

최명옥(1998)은 한국어의 성조소가 지닌 특성을 제시하는 가운데 강원 지역 방언에서는 성조가 상호 대립하는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중조(M)의 설정은 인정하지 않았다. 삼척방언을 연구한 김봉국(1998)은 세 개의 성조소(L, H, R)를 인정하면서 각 음절별로 성조형을 고찰하였는데 특히, 네 개의 성조형(LL형, LH형, H형, R형)을 제시하였다.

김차균(1999)와 강홍구(2003a)은 강릉과 삼척을 대상으로 하여 성조소를 논의하면서 두 방언 모두 평판조인 L, H는 인정한 반면 중세 한국어의 상성에 대응하는 자료에 대해서 강릉은 상승조인 R로, 삼척은 고장조인  $\ddot{H}$ 로

처리하였다. 강원도 지역의 성조방언권을 조사한 김주원(2003)은 세 개의 지역(강릉, 동해, 삼척)을 성조방언권으로 분류하고, 다른 동해안 지역들(고성, 속초, 양양)을 비성조방언권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성조형과 관련해서는 중세 한국어 거성형의 반사형이 LHL형으로 나타나지만 경상방언과 마찬가지로 HHL형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삼척과 동해 지역의 방언에서는 첫 번째 음절이 R로 실현되지만 제2 음절부터는 RLL로 실현된다고 하였다. 강릉 지역 방언의 경우는 제1 음절의 실현이 앞의 지역들과 거의 동일하지만 제2 음절이 더 높게 실현되는(RHL) 특징이 있다.

최영미(2017a)는 기존의 논의에서 성조 지역으로 분류된 삼척 지역의 방언 이외에 성조와 음장이 혼합된 정선과 평창방언을 대상으로 성조소와 성조형에 대한 논의를 집중하면서 평창과 정선 지역을 성조방언권으로 구분하였다. 박숙희(2012)는 강원도의 세 지역(강릉, 삼척, 정선)을 성조방언권으로 구분하면서 중세 한국어 상성에 대응하는 음조와 연계되어 강릉은 R, 삼척은  $\ddot{H}$ , 그리고 정선은 L의 음성적인 특성이 있다고 보았다.

중세 한국어에서 성조는 음절 또는 모음에 고저의 표기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 대신에 방점을 표기하여 해석하였다. 최초로 방점을 표기하고 이를 해석하는 것은 『세종 어제 훈민정음(世宗御製訓民正音)』과 『훈민정음 해례본(訓民正音解例本)』에 나타나지만, 음성학과 음운학 연구자들이 처음으로 쉽게 해석한 것은 『훈민정음 언해본(訓民正音諺解本)』에 수록된 사성주(四聲註)이다. 이것은 『소학언해 범례(小學諺解凡例)』에서도 방점의 표시법과 그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현대 음운론에서 방점법을 계승한 것은 평성을  $\Theta$ , 거성을 I, 상성을 II, 평성 대응 성조를 O, 거성 대응 성조를 U, 상성 대응 성조를 W라고 표기한 김영만(1976)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경상방언의 성조를 나타내기 위한 김주원(1991)의 연구에서도 이어진다. 김주원(1991)은 평성 대응 성조를 O, 거성 대응 성조를 I, 상성 대응 성조를 II로 표시하였다. 경상방언에서 방점법을 재현하고 이를 재차 체계화하고 완성한 한국어 학자는 김차균(1990, 1991, 1993; 1998)이다. 이 후에도 김차균(2002a, 2002b)은 지속적으로 음상성과 음거성 등과 관련하여 그의 성조 연구를 보완하고 있다.

이 같은 방점법은 결과적으로 한국어 성조방언들에 대하여 성조 표기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데에 크게 공헌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조방언에서 비성조방언으로의 한국어 운소체계의 변화과정을 기술하는 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결론적으로, 방점을 곧 성조로 동일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방점법으로 인하여 중세 한국어 성조의 존재 여부, 나아가 그 성조의 변화과정을 추적할 있다. 따라서 방점 연구는 지속되어야 하고 그 가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는 현대 한국어 방언의 연구에서도 그 성조를 고조(H), 저조(L), 상승조(R)로 설정하는 데서 증명할 수 있다. 현대 한국어의 음운 연구에서도 본질적으로는 중세 한국어의 방점법과 동일한 표기가 계승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한국어<sup>17)</sup>는 성조방언에서 비성조방언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따라서 기본 성조형의 수가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경남의 서남부 방언인 진주방언과 고성방언에는 순행평성동화(順行平聲同化)(김차균, 2003)의 영향으로 평측형의 종류가 둘 정도로 줄고 있으며, 사천방언에서는 진주방언보다 순행평성동화가 더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남해방언에서는 성조형의 실현인 변화 음조형은 진주, 사천방언과 두드러진 차이가 있지만 역시 순행평성동화(順行平聲同化)는 다소 발견된다.

---

17) 여기에서는 중부방언(서울방언)을 일컫는다.

### III. 중세 한국어의 성조

#### 1. 방법과 성조표기

중세 한국어 성조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세 한국어가 ‘진정한 성조언어’와 ‘음고 악센트언어’<sup>18)</sup> 가운데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정연찬(1969, 1975)에서는 중세 한국어가 ‘단어 음고 체계(word pitch system)’에 가깝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기문(1977)에서는 당시의 언어가 성조언어였다는 견해가 제시된 반면, 김완진(1999)에서는 성조언어에서 악센트어적인 방향으로 발달하고 있으면서도 변화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후, 趙義成(2002), 福井玲(2003) 등 많은 연구에서는 중세 한국어의 성조가 음고 악센트의 관점에서 연구되었다.

음고 악센트론에 의하면 하나의 어절에서 첫 거성의 위치가 정해지면 그 어절의 나머지 부분의 악센트는 율동규칙에 의해 저절로 형성된다. 그런데 이러한 음고 악센트론에서 간과한 사실이 있다. 첫 번째는 음고 악센트론의 관점으로 설명하기 힘든 많은 문법형태소들이 15세기에 존재한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15세기와 16세기의 성조 실현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15세기의 경우는 그러한 틀을 적용하는 데 무리가 따른다. 음고 악센트론의 관점을 따르면, 하나의 어절에서 첫 번째 거성의 위치만 알면

---

18) 여기서는 pitch의 번역어로 이상억(1990)의 견해를 따라 ‘음고’를 사용하였다. 음성학적인 관점에서 tone을 음조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 음고는 음장과도 병립되기 때문에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김성규, 2009. 재인용.)

다른 형태소들의 성조 정보는 필요하지 않다. 예를 들어 ‘쭈르시니(HHLH:용가82), 세히러시니(RLHLH:석보6.11)’의 경우 ‘쭈-’이 거성이며 ‘쟁’가 상성이라는 정보와 해당 어절이 몇 음절이라는 정보만으로 나머지 성조는 저절로 형성된다. 즉 ‘쭈-, 쟁’의 성조 정보 이외의 다른 정보는 성조 실현에 비관여적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들의 경우는 어절의 첫 번째 거성의 위치 정보만으로 해당 어절의 성조를 알 수 없다.

- (1) 가지마다(HLRH:석보6.30), 뵈스불니(RLHH:용가7)  
 누리시니라(LHLHH:석보23.26), 어마님(HLR:월곡12)  
 나라돌해(LHHH:석보19.85), 뉘웃븐(RLL:석보6.8)

한 어절의 첫 번째 거성 이후의 성조가 자동적으로 결정된다면 (1)의 예들은 ‘HHLH, RHLH, LHLH, HLH, LHLH, RLH’로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르다. (1)의 예들에서는 ‘마다, 슬, 시니, 님, 뵈, 브’와 같은 형태소가 그 어절에 들어 있는 성조 정보에 대한 참조가 필요하다. 이러한 예외적인 형태소들이 적다면 15세기의 운소에 대해 음고 악센트론을 적용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김성규(2009a)에서 지적되었듯이, 15세기에는 이러한 형태소들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단순한 예외로 치부될 수준을 넘어선다. 그렇다면 15세기의 한국어는 각각의 문법형태소들도 독자적인 성조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단계라고 규정되어야 한다.

15세기와 16세기의 문헌에 표기된 방점(傍點)이 관심사로 떠오른 이후 100여 년간 성조에 대한 연구에서도 다양한 논란이 있었다. 방점의 정체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중세 한국어의 성조소를 몇 개로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개별 형태소들의 성조 유형과 율동규칙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여러 가지 논제 중 빼 놓을 수 없는 것,



어떻게 보면 중세 한국어 성조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당시 성조의 정체이다.

한편 16세기에 들어서면 자신의 성조 정보를 유지하던 형태소들이 특수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 문제는 문법형태소들이 독자적인 성조 정보를 갖고 있는 15세기의 한국어 성조의 유형과 중국어로 대표되는 ‘음절 성조 체계’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있다. 이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김성규(2009b)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바로 한국어와 중국어의 유형론적인 차이에서 찾아낼 수 있다고 하였다.

① 한국어는 둘 이상의 음절도 하나의 형태소를 이룰 수 있지만 중국어의 경우는 대개 하나의 음절로 하나의 형태소가 구성되므로 중국어 역시 형태소 단위에 성조가 부여된다.

② 한 걸음 더 나아가간다면 진정한 성조언어와 단어 음고 언어를 나눈 이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성조 또는 악센트 연구의 초기에 고립어와 교착어라는 유형론적 차이를 무시한 채, 성조 또는 악센트 체계를 비교했던 작업은 비교 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다. 동일한 고립어들을 대상으로 성조언어와 악센트언어를 찾아서 비교하거나 동일한 교착어들을 대상으로 성조언어와 악센트언어를 찾아서 비교해야 한다.

이상을 살펴본다면, 기존 성조론의 핵심 논점은 중세 한국어가 진정한 성조언어인지 아니면 음고 악센트언어인지 여부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적 논의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성조언어가 음고 악센트언어로 변해가는 중간 단계가 존재할 수도 있다. 이 논의에서도 중세 한국어가 성조언어에서 음고 악센트언어로 이행하는 중간 단계로 판단된다.

## 가. 『훈민정음(訓民正音)』의 방점에 대한 음운론적 해석

『훈민정음(訓民正音)』 창제 당시에는 한자음과 고유어의 음의 높낮이를 표기하기 위하여 평성에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고 거성에는 왼쪽에 점 하나를, 상성에는 왼쪽에 점 두 개를 찍는 방안을 고안하였다. 당시의 한국어에서 말의 높낮이가 변별적인 기능을 하였고, 한국어 한자음의 모태가 되는 한음 자체에 성조가 있었으며, 그러한 성조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성조까지 기록할 수 있는 문자 표기 수단을 마련한 것이다.

그런데 17세기를 거치면서 한국 중앙어에서는 높낮이가 변별적인 기능을 잃었고, 원래는 높낮이에 잉여적으로 부가되어 있던 음장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높낮이의 변별력이 상실된 시대에는 15세기의 평성과 상성 그리고 거성이 높낮이를 표기하는 기호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기문(2006)은 변별적인 기능을 하지 않는 중부 출신의 학자들로서는 15세기의 서울말에서 높낮이가 변별적인 기능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했다. 최현배(1937, 1945)에서는 거성, 상성, 평성을 ‘가장 높고 짧은 소리, 높이나 길이가 중간인 소리, 가장 낮고 긴 소리’로 보면서 고저와 장단을 결부시켰다.

15세기 문헌의 방점이 고저를 나타낸 것으로 본 최초의 학자는 고노 로구로(河野六郎)(1945, 1951/1979)였다. 고노 로구로(河野六郎)(1945)는 당시의 성조는 기본적으로 고저 2종이 있었는데, 평성은 저조이고 거성은 고조이며 상성은 고저의 복합성조라고 보았다. 또한 고노 로구로(河野六郎)(1951/1979)는 현재 서울방언에 성조가 없지만 당시에는 명백하게 평성, 상성, 거성이라는 세 개의 성조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상성에 대해서만 “저조와 고조 두 단계에 모두 걸치는 상승조”로 표현을 바꾸었을 뿐 기본

적으로 고노 로구로(河野六郎)(1945)와 차이가 없다. 허웅(1955)에서는 중세 한국어를 성조언어였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평성은 저조이고 거성은 고조이며 상성은 상승조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중세 한국어의 성조가 음의 높낮이를 나타낸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도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당시의 한국어의 운소체계를 어떤 유형으로 해석할지에 대한 문제이다. 『훈민정음(訓民正音)』 자체에는 중국어의 성조를 기술하는 방법이 그대로 제시되어 있는데, 한국어의 운소체계 유형이 중국어의 성조체계와 달랐어도 『훈민정음(訓民正音)』 창제자는 중국어를 설명하는 사성체계에 기대어 한국어의 운소를 설명하고 기술할 수밖에 없었다.

또는 성조소의 문제로서 『훈민정음(訓民正音)』에서 평성, 거성과 별도의 단위로 제시되어 있는 상성을 하나의 단위로 볼 것인가 아니면 평성과 거성의 결합인 두 개의 단위로 나누어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예의(例義)의 기술을 통해 평성은 낮은 소리이지만 거성은 높은 소리(고조)이며 상성은 처음은 낮고 나중은 높은 소리임을 알 수가 있다. 『훈민정음(訓民正音)』에 제시되어 있는 단위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허웅(1955), 김차균(1985)처럼 중세 한국어의 높낮이 요소는 평성, 상성, 거성의 세 단위가 있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고노 로구로(河野六郎)(1945, 1951/1979), 이기문(1960), 정연찬(1960) 등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음절이 축약되면서 평성과 거성이 합쳐질 때 상성으로 실현되는 예를 보면 상성은 음운론적으로 저조와 고조의 두 성조가 대립하는 평판조(平板調)의 운소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김완진(1977)에서는 이러한 견해를 적극 받아들여서 표면의 ‘평성, 거성, 상성’은 각각 ‘L, H, R’로 표기하였지만, 기저의 성조에서는 ‘R’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상성을 ‘LH(평성과 거성의 결합)’로 처리하였다. 한편 김주원



(1995)에서는 중세 한국어에서 음운론적으로 두 단계의 높이가 인지되었다는 점은 받아들여지, 일반적으로 ‘가장’으로 번역되는 ‘못노퐁, 못놋가쁜’의 ‘못’을 ‘바로’로 해석하여 당시에 ‘바로 높은 소리(거성), ‘바로 낮은 소리(평성), 앞 낮고 뒤 높은 소리(상성)’로 파악하였다.

『훈민정음(訓民正音)』에 제시되어 있고 중세 한국어 문헌의 표기에 적극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방점이 높낮이를 표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당시에는 중세 한국어와 중국어의 성조체계가 각각 어떤 유형인지에 대한 논의는 제기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중세 한국어 성조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당시의 운소를 악센트의 관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견해가 현재도 우세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세 한국어가 중국어와 같은 성조언어가 아니라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세운 논의로는 정연찬(1969)을 들 수 있다. 정연찬(1969, 1975)은 Pike(1948)의 운소분류법에 토대를 두고 있는데, 대부분의 문법형태소가 거성으로 끝난다는 사실은 중세 한국어를 ‘단어 음고 체계’로 보게 하는 것이다.

강신항(2006)에서는 성조언어의 대표격에 해당하는 중국어는 단음절 언어로 성조에 의한 대립쌍이 존재하지만 15세기 중세 한국어의 문헌 자료에서는 ‘평·상·거’의 짝을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세 한국어가 순수한 성조언어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

15세기의 경우 하나의 어절 안에서 첫 번째 거성의 위치가 정해져 있으면 그 어절의 나머지 부분의 성조는 율동규칙을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율동규칙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

- (2) 去○→去去 去○○→去平去 去○○○→去去平去 去○○○○→去平去  
平去平去○→平去去 平去○○→平去平去 平去○○○→平去去平去平

平去○→平平去去 平平去○○→平平去平去

(3) 꿀(去)+으시니→꾸르시니(去○○○)→꾸르시니(去去平去:용가81)

구름(去○)+이라→구루미라(去○○○)→구루미라(去去平去:월석18)없  
(上)+거나→엮거나(上○○)→엮거나(上平去:석보9.36)

(2)의 ‘꿀-’과 ‘구름’은 거성으로 시작하고 ‘꾸르시니, 구루미라’는 모두 4음절어이므로 ‘去○○○→去去平去’의 틀을 따라 악센트가 실현되었다. 그리고 ‘없-, 쉼’은 상성이고, 상성은 평성과 거성의 결합이므로 상성의 뒷부분에 거성이 들어 있어서, ‘엮거나’와 ‘세히러시니’는 각각 거성으로 시작하는 3음절어와 5음절어의 율동규칙(去○○→去平去, 去○○○○→去平去平去)이 적용되어 해당 어절의 악센트가 上平去, 上平去平去로 실현되었다. 이처럼 한 개의 어절에서 첫 거성의 위치가 정해지면 나머지 음절의 성조가 형성되는 율동규칙의 존재로 15세기의 한국어를 ‘음고 악센트 체계’로 해석할 수 있다.

중세 한국어 운소를 성조로 해석하는 경우에도 대개는 중국어의 성조와는 차이가 있다. 이기문(1977)에서는 ‘손(客:平)’과 ‘손(手:去)’, ‘서리(霜:平去)’와 ‘서리(間:去平)’, ‘가지(枝:去平)’와 ‘가지(種:平去)’ 및 ‘가지(轎:去去)’, 그리고 ‘브리-(割:去平)’와 ‘브리-(棄:平去)’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음조만으로 의미가 구별되는 단어들이 존재하므로 중세 한국어의 운소는 성조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억(1990)은 중세 한국어는 도출 과정의 어느 지점까지는 음고 악센트 체계와 같은 면이 보이지만 그 지점 이후에는 성조언어처럼 행동한다고 제시했다. 이러한 견해는 언어를 성조언어와 음고 악센트언어로 나눌 수 없고 규칙 배열에서 어떤 단계에 성조 규칙이 실현되는가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 맥콜리(McCawley)(1978)의 관점을 기반으로 것이다.

김완진(1999)은 중세 한국어가 악센트 체계의 언어라는 주장이 중세 한국어의 성조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근거를 제시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합성어 ‘아바님’, ‘어마님’과 같은 예에 보이는 ‘평거상, 거평상’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진다면 중세 한국어를 음고 악센트언어라고 정의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악센트어적인 방향으로 발달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완전한 전환을 보이지 않은 언어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A 아니면 B라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의 위험성을 경계하면서, 중간적인 제3의 유형을 배제할 수 없음을 뜻한다(김완진, 1977).

중세 한국어의 자료를 살펴보면 음고 악센트 체계론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율동규칙에 의해 예측하기 힘든 문법형태소가 다소 발견된다. 김성규(2009a)에는 이처럼 율동규칙을 따르지 않는 문법형태소들이 전반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김성규(2011)에서는 해당 문법형태소 가운데 어미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형태소들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단순한 예외로 치부될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김성규, 2009a).

이러한 관찰을 통해 김성규(2009b)에서는 15세기의 언어는 ‘형태소 성조언어’였으며 16세기에 들어서면 이러한 특수성이 소멸하여 음고 악센트언어로 바뀐다고 보았다. 이처럼 15세기와 16세기의 운소 체계 유형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15세기에는 독자적인 성조를 가지고 있던 문법형태소들이 16세기에 들어서면 일반적인 문법형태소들과 동일하게 거성으로 통일된다. 또한 김성규(2009a, b)에서는 중세 한국어 운소 연구의 초기에 고립어와 교착어라는 유형론적 차이를 무시한 채, 성조체계나 악센트 체계를 비교했던 Pike(1948)에서는 비교 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동일한 고립어를 대상으로 운소체계의 비교가 이루어지거나 동일한 교착어를 대상으로 운소체계의 비교가 이루어져야 한다.

김성규(2009a)에서는 이러한 견해와 함께 한국어는 다음절이 하나의 형

태소를 이룰 수 있고, 중국어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음절이 형태소를 이룰 수 있는데, 음절수의 차이는 있지만 둘 다 형태소를 단위로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중세 한국어는 단어의 높낮이가 변별력을 가지고 있던 성조언어였다.<sup>19)</sup> 그러한 사실을 파악한 『훈민정음(訓民正音)』 창제자는 당시의 성조를 일상 문자 생활에서 음절마다 표현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성조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다. 『훈민정음(訓民正音)』에서 설명하는 사성체계에 대한 음미와 해석과 중세 한국어의 음운현상으로서의 성조론이다.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는 새로운 문자를 창제하면서 음절을 초성, 중성, 종성으로 3가지로 분류하고 초성과 중성이 동일한 자음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것은 당시 한국 음운학의 큰 성과였다. 앞으로는 성조를 관찰하여 그것을 음절 단위로 표기하였다는 사실도 언어학적인 면에서 매우 뜻깊은 성과라는 점도 부각되어야 한다.

『훈민정음(訓民正音)』의 창제자는 방점이라는 매우 독특하고 창의적인 성조 표기 방식을 만들었지만, 그러한 표기 방식의 원리를 설명하지 않은 것이 아쉽다. 현대 연구자들도 지금까지 『훈민정음(訓民正音)』의 자음자와 모음자의 창제 원리나 기원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를 해왔지만, “평성은 점을 찍지 않고, 거성은 ‘글자(字)’의 왼쪽에 점을 하나 찍으며, 상성은 ‘글자(字)’ 왼쪽에 점 두 개를 찍는 방식”의 기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

19) 그러나 김성규(2009a)에서도 같은 교착어인 일본어와의 비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본어는 음절에 고저 악센트가 붙는, 전형적인 음고 악센트언어이다.

## 2. 성조의 체계

16세기 중세 한국어 성조의 변화는 어말(語末)에서부터 고조의 저조화 경향이 확대되면서 율동규칙이 혼란해지고 고저 대립이 생기면서 기존의 성조체계가 음장체계로 바뀌게 되었다. 물론 그 시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이 있고, 방점표기의 변화에 대한 분석도 불분명한 점도 존재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성조의 비음운화 시점에 대하여 16세기까지 성조의 비음운화가 완료되었다고 보는 관점과 16세기말에 이루어졌다고 보는 관점으로 나뉜다. 허웅(1955)은 방점의 폐기가 성조 소멸의 직접적인 계기이거나 16세기 중엽에 이미 성조가 소멸된 것으로 본 관점은 대표적인 보기이다. 그리고 ‘율동규칙의 무력화’에 의한 ‘어미부 성조의 가치 실추 및 기능 마비’, ‘상성의 변질’, ‘어간부 고저의 혼란’ 등의 진행으로 16세기의 전반에 성조체계 붕괴가 되고 그러한 양상이 지속된 16세기의 후반에는 성조가 소멸되었다.

정연찬(1974), 김성규(1994), 김차균(2010) 등은 전자의 연구인 16세기 말엽 문헌들이 ‘어간부 성조’ 혹은 ‘기저 성조’를 15세기 중엽의 그것처럼 유지함을 근거로 삼았고, 후자에서는 『소학언해(小學諺解)』-창원방언의 성조 대응 관계가 『훈민정음(訓民正音)』-창원방언의 그것과 같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이러한 관점은 상호 대립된다. 성조 비음운화의 시점에 대한 관점의 차이는 16세기 문헌에 나타나는 ‘어미부 성조의 혼란’과 일부 어간 성조의 고저대립이 약화되는 현상에 대해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고 기술하느냐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16세기 말엽까지도 어간부 성조 혹은 기저 성조의 체계는 15세기 중엽의 상태가 유지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있다.

으로 갖는다. 각 성조형을 가진 형태 부류 중 익숙한 (斗)/말(語)’을 활용하여 ‘말(馬)’-형, ‘말(斗)’-형, ‘말(語)’-형이 있다.

가. 말(馬)-형(저조형)

- i. 말(馬)0-형: {Ln}(저조로만 이루어진 성조형)
- ii. 말(馬)n-형: {LnHX0}(n개의 저조에 1개의 고조와 정되지 않은 0개 이상의 음절이 붙어 이루어진 성조형)

나. 말(斗)-형(고조형): {HX0}(고조로 시작하는 성조형)

다. 말(語)-형(상승조형): {RX0}(상승조로 시작하는 성조형)

으로 갖는다. 각 성조형을 가진 형태 부류 중 익숙한 (斗)/말(語)’을 활용하여 ‘말(馬)’-형, ‘말(斗)’-형, ‘말(語)’-형이 있다.

가. 말(馬)-형(저조형)

- i. 말(馬)0-형: {Ln}(저조로만 이루어진 성조형)
- ii. 말(馬)n-형: {LnHX0}(n개의 저조에 1개의 고조와 정되지 않은 0개 이상의 음절이 붙어 이루어진 성조형)

나. 말(斗)-형(고조형): {HX0}(고조로 시작하는 성조형)

다. 말(語)-형(상승조형): {RX0}(상승조로 시작하는 성조형)

으로 갖는다. 각 성조형을 가진 형태 부류 중 익숙한 (斗)/말(語)’을 활용하여 ‘말(馬)’-형, ‘말(斗)’-형, ‘말(語)’-형이 있다.

가. 말(馬)-형(저조형)

- i. 말(馬)0-형: {Ln}(저조로만 이루어진 성조형)
- ii. 말(馬)n-형: {LnHX0}(n개의 저조에 1개의 고조와 정되지 않은 0개 이상의 음절이 붙어 이루어진 성조형)

나. 말(斗)-형(고조형): {HX0}(고조로 시작하는 성조형)

다. 말(語)-형(상승조형): {RX0}(상승조로 시작하는 성조형)

- 으로 갖는다. 각 성조형을 가진 형태 부류 중 익숙한 (斗)/말(語)’을 활용하여 ‘말(馬)’-형, ‘말(斗)’-형, ‘말(語)’-형이 있다.
- 가. 말(馬)-형(저조형)
- i. 말(馬)0-형: {Ln}(저조로만 이루어진 성조형)
  - ii. 말(馬)n-형: {LnHX0}(n개의 저조에 1개의 고조와 정되지 않은 0개 이상의 음절이 붙어 이루어진 성조형)
- 나. 말(斗)-형(고조형): {HX0}(고조로 시작하는 성조형)
- 다. 말(語)-형(상승조형): {RX0}(상승조로 시작하는 성조형)

으로 갖는다. 각 성조형을 가진 형태 부류 중 익숙한 (斗)/말(語)’을 활용하여 ‘말(馬)’-형, ‘말(斗)’-형, ‘말(語)’-형이 있다.

가. 말(馬)-형(저조형)

- i. 말(馬)0-형: {Ln}(저조로만 이루어진 성조형)
- ii. 말(馬)n-형: {LnHX0}(n개의 저조에 1개의 고조와 정되지 않은 0개 이상의 음절이 붙어 이루어진 성조형)

나. 말(斗)-형(고조형): {HX0}(고조로 시작하는 성조형)

다. 말(語)-형(상승조형): {RX0}(상승조로 시작하는 성조형)

으로 갖는다. 각 성조형을 가진 형태 부류 중 익숙한 (斗)/말(語)’을 활용하여 ‘말(馬)’-형, ‘말(斗)’-형, ‘말(語)’-형이 있다.

가. 말(馬)-형(저조형)

- i. 말(馬)0-형: {Ln}(저조로만 이루어진 성조형)
- ii. 말(馬)n-형: {LnHX0}(n개의 저조에 1개의 고조와 정되지 않은 0개 이상의 음절이 붙어 이루어진 성조형)

나. 말(斗)-형(고조형): {HX0}(고조로 시작하는 성조형)

다. 말(語)-형(상승조형): {RX0}(상승조로 시작하는 성조형)



성조형 결합 단계에서는 성조형 차원의 변동과 모음 탈락이나 반모음화에 수반하는 음고의 탈락 및 축약 현상이 일어난다. 이문규(2017)의 4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중세 한국어의 성조형 변동 규칙을 제시하였다.

(6) 가. 임의의 성조형은 한 성조 어절 내의 {LnHX0}-형이나 {HX0}-형, {RX0}-형 뒤에서 /X1/으로 바뀐다.

나. 합성명사의 첫 성분인 {H}-형 1음절 명사의 일부는 {Ln}-형과 {LnHX0}-형 앞에서 /L/-형으로 바뀐다.

다. 1음절 명사의 {H}는 ‘예/의’ 앞에서 /L/로 바뀐다.

라. 단음절 어간의 성조형은 사·피동접사 앞에서 /L/로 바뀐다.

(6)의 가는 성조형 중화 규칙, 나는 합성명사 첫 성분의 /L/-형되기 규칙, 다는 처소의 부사격 조사 앞 ‘{H}→/L/’ 규칙, (6)의 라는 사·피동접사 앞 /L/-형 되기 규칙이다. 이 규칙들은 모든 범방언적인 것이어서 현대의 성조방언에도 대응하는 현상이 존재한다. 성조형 실현 단계에서는 어절 성조형을 구성하는 소리의 높이를 조정하거나 음고가 결정되지 않은 음절에 대해서 음고를 배정할 때 발생한다. 성조형 변동 규칙들과는 달리 성조형 실현을 담당하는 규칙들은 개별 체계에 따라 다르다. 이문규(2017)에서는 김완진(1977), 김성규(1994) 등에서 밝힌 중세 한국어의 ‘거성불연삼(去聲不連三)’을 다음과 같은 성조형 실현 규칙으로 바꾸어 제시하였다.

(7) 가. 저조형(/LnHX0/)

/LnH/→[LnH], /LnHX/→[LnHH], /LnHX2/→[LnHLH], /LnHX3/→[LnHHLH], /LnHX4/→[LnHLHLH] …

나. 고조형

## 다. 상승조형

다음은 형태소 성조형을 단위로 하는 두 단계 성조론적 과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성조형 중화 음고 배정

이문규(2017)는 ‘첫구늑니[LHLH]’는 어간 ‘첫구- [LH]’에 결합한 ‘-늑- [L]’와 ‘-니[H]’의 성조형이 ‘X2’으로 중화되어 어절 성조형 ‘첫구늑니 /LHX2/’를 형성하는 단계와 이 성조형의 ‘X’에 음고를 배정하는 성조형 실현 규칙이 적용되는 단계를 제시하였다. 형태소 성조형을 성조의 기본 단위로 볼 때, 성조가 비음운화된다는 것은 성조형에 대한 정보가 형태소의 필수 구성 요소에서 제외되는 상태로 바뀔을 의미한다. 형태소의 구성 요소로 성조가 참여하고 성조에 의해 형태소 부류가 결정되는 언어 체계에서 형태소가 성조와는 무관한 언어 체계로의 변화 과정에는 복수의 중간 단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중세 한국어나 현대 성조방언과 같이 두 단계 음운 과정을 가진 성조언어의 경우 성조 비음운화는 이론적으로 성조형 실현 단계의 변화, 성조형 결합 단계의 변화, 형태소 성조형 체계의 변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먼저, 성조형 실현 단계의

변화는 표면 성조형을 관장하는 성조형 실현 규칙 차원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새로운 성조형 실현 규칙이 등장하여 이전의 것을 대체하거나 기존 성조형 실현 규칙이 임의화됨으로써, 이전과 다른 표면 성조형이 나타나거나 하나의 어절이 임의적으로 둘 이상의 표면 성조형으로 실현되는 상황이 된다.

예를 들면, (8)의 ‘갯구느니’의 셋째 이하 음절의 고저가 자유롭게 실현되어 이 어절의 표면 성조형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성조론적 과정의 첫 단계에서 결정된 앞 두 음절의 음고는 흔들림이 없다. 다음으로, 성조형 결합 단계의 변화는 성조론적 과정의 제1 단계에 적용되는 성조 규칙들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성조 규칙 적용의 환경 조건이나 대상이 달라진다거나 기존 성조 규칙이 소멸하고 새로운 규칙이 생기는 것 등이 여기에 속한다. 또, 형태소 성조형 체계의 변화는 기존 형태소 성조형의 분화나 통합, 새로운 성조형의 출현 등으로 인해 성조형 부류 체계가 달라지거나 성조형에 의한 변별력이 소멸되어 성조형이 더 이상 운소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개별 형태나 단어가 그 언어에 존재하는 성조형 중 하나로 임의적으로 실현된다거나 성조형이라고 하는 음고 연결 패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고 나아가 성조의 바탕 자질이었던 음고의 대립성이 소멸한 상태가 이에 해당한다.

형태소 성조형 체계는 운율 체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성조형 차원의 형태 부류, 즉 어휘부의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여 그 변화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이에 비해, 성조형 결합 단계의 변화는 형태와 형태의 결합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반 음운 변동 규칙의 변화 정도의 발생 가능성을 가진다. 이 단계의 변화는 한 음운 변동 현상의 성격이 바뀌거나, 새로운 음운 규칙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음운 규칙이 소멸하는 것과 같은 차원의 것

이다. 성조형 실현 규칙의 변화는 화자가 직접 인식하고 비교할 수 있는 표면 성조형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변화에 가장 민감하며, 따라서 화자의 발음 습관이나 방언 접촉 등의 요인에 의해 일어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세 단계 변화의 발생 빈도나 순서는 다른 변수가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9) 성조형 실현 단계의 변화 > 성조형 결합 단계의 변화  
> 형태소 성조형 체계의 변화

위 세 단계의 변화를 거친 언어, 즉 성조론적 과정의 두 단계 및 형태소 성조형 체계가 붕괴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성조형이 운소의 자격을 잃고 비음운화되었음을 의미한다. 현대의 중부방언이 중세 한국어의 후대형이라면, 이 방언은 위의 세 변화를 모두 거친 언어에 해당한다. 그러나 방점표기의 변화과정에 이 세 단계가 모두 반영되어 있지는 않다. 이 세 단계 변화가 완료되기 전에 방점표기가 폐기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음운화의 단계는 아래 4장의 성조를 지닌 방언의 변화과정과 같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경남방언의 청년층에서 보이는 변화, 성조형이 단순한 쪽으로 합류하는 경향과 일치하였다. 이는 중세 한국어, 특히 『훈민정음(訓民正音)』의 방점표기가 그 창제자들이 당대의 현실음을 아주 이상적으로 표기하고자 하는 시도였음을 알 수 있다. 즉 당대의 언중, 특히 중부방언을 쓰는 언중은 이미 성조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져 가고, 창제자들은 오히려 잔존한 성조를 더욱 정밀하게 기록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던 것이다.

## 나. 성조 비음운화의 진행 단계

방점표기 기간을 통해 뚜렷하게 확인되는 성조 비음운화의 양상은 성조형 실현 단계에서 일어난 변화다. 이문규(2017)는 앞선 연구들이 이 변화를 ‘어말 평성화’의 확대로 초래된 기존 율동규칙의 ‘혼란’ 혹은 ‘다양화’ 등으로 설명하였다. 즉, 15세기 중엽의 문헌에서 주로 관형사형 어미를 중심으로 나타났던 어말 평성화가 『두시언해(杜詩諺解)』 등에서부터 그 영역이 넓어지고 빈도가 높아지면서 기존의 율동규칙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고, 16세기 초엽 문헌에 오면 이미 ‘거성불연삼(去聲不連三)’이나 ‘어말평성화(語末平聲化)’ 어느 쪽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이 심해져서, 더 이상 규칙에 의해 표면 성조형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율동규칙의 혼란 양상 및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앞선 연구들에 의해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여기서는 16세기 초엽 문헌에 나타난 몇 개의 보기만을 간략하게 살펴본다(이문규, 2017).

- (10) 가. 말소미어시뇨[RHHLLH](변박 상:38), 기들우거든[LHLLH](여씨22),  
겨시거늘[RLLH](변소9:41), 마르쇼서[RLLH](변노 상:31), 흐느니란  
[HLLH](변노 하:19), 브라느니[HHLL](변소 8:2), 업스니[RLL](여씨  
5), 즐기거든[HHLL](변노 하:22), (漢語)아노라[HHH](변노상:2), 오  
노라[HHH](변노 상:1), 흐느노[HHH](변노 상:2)

- 나. 사롭의[RHH](여씨19ㄴ) ~사롭의[RHL](여씨4ㄱ) ~사롭의[RLH](여  
씨2ㄱ) ~사롭의[RLL](여씨37), 아래다가[LHHH] ~아래다가  
[LHLH](여씨38)

(10)의 가는 앞선 연구에서 ‘거성불연삼의 확장형’(김완진, 1977) 혹은

‘평성의 확산형’(김성규, 1994)으로 제시된 자료들과 거성이 셋 이상 연속한 표면 성조형으로 제시된 예이다. 그리고 (10)의 나는 하나의 어절이 같은 문헌 안에서 둘 이상의 표면 성조형으로 실현된 보기이다. 예를 들어, ‘사름의’는 첫 음절 상승조를 제외한 둘째, 셋째 음절의 음고는 저조와 고조로 자유로이 실현되는 상태가 된 것이다. 이러한 16세기 초엽 문헌의 성조형 혼란의 전반적인 모습은 김성규(199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문규(2017)는 현대 성조방언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러한 양상은 성조형 실현 규칙이 임의화된 데 기인하는 성조형의 혼란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후술하겠지만, 현대 성조방언에서는 하나의 어절은 하나의 성조형으로만 실현되는 것이 원칙이며 따라서 하나의 성조 어절이 어떠한 표면 성조형으로 실현될 것인가 하는 것은 규칙에 의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의 성조 어절이 둘 이상의 성조형으로 실현되는 상황은 성조형 실현 규칙이 힘을 잃은 상태의 혼란으로서, 율동규칙의 ‘다양성’과 같은 개념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16세기 초엽 문헌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성조형 실현 규칙의 혼란상이 이 시기에 (7)와 같은 성조형 실현 규칙이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양상은 이후의 방점표기 기간 내에서는 더 이상 심화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심한 상태로 16세기 말엽까지 지속된다. 요컨대, 16세기 방점표기 기간 내에 확인되는 성조 변화의 양상 중에서 율동규칙의 혼란, 다양화 등으로 주목되어 온 현상은 성조론적 과정의 제2 단계가 무너진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성조형 결합 단계의 변화를 보면, 방점표기 기간 내의 성조 변화 양상에서 성조형 결합 단계의 체계적인 변화로 볼 만한 현상은 거의 없다. 16세기 말엽 문헌까지도 (6)의 성조형 변동 규칙들과 음고 축약 등 성조형 결합 단계의 현상들이 거의 그대로 나타난다.



- (11) 가. 남으니를[LHLH](餘, 논어1:15), 흐논이논[HHLH](소학4:33), 사롭의  
 게[RHHH](소학1:2), 얼운의게[RLHH](長, 소학 題辭:1), 칙이라  
 [HLH](冊, 소학1:2), □ 인느니라[LLHH](有, 대학18), 되느니라  
 [LLHH](爲, 대학21), 몬느니라[LLHH](聚, 대학22), 삼느니라  
 [RHLL](대학3), 나느니라[HHLH](出, 대학23), 흐느니라[HHLH](논어  
 1:4, 1:28)
- 나. 귀예[LH](耳, 소학1:2), 나래[LH](日, 대학4), 누네[LH](目, 소학1:2),  
 몸애[LH](身, 대학17), 칙예[LH](冊, 소학범례3)□숨기리오[LHLH](廈,  
 논어1:13), 두건 쓰이느니라[LHLHH](소학6:116), 움겨[LH](遷, 소학  
 2:60)
- 다. 사롭의 己ㅣ 보미[RH](視, 대학12), 입으로 브터 남[R](出, 대학24),  
 지조 둠을[RH](有, 대학24), 셔매[RH](立) 혼 발 칙드터디(소학1:2),  
 □ 해[R] 드리(多聞, 논어1:15), 뵈디[RH](見, 소학2:7), 뵈으음을  
 [RHLH] 請하야(請見, 논어1:29) 풍뤼며[LLH](聲, 소학6:121), 밑누의  
 며[LLLH](姉, 소학6:96)

(11)은 16세기 말엽 한국어의 성조형 결합 단계 역시 이전 시기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들이다. (11)의 가의 ‘이{H}’(남으니를, 흐논이논), ‘게{L}’(사롭의게, 얼운의게), ‘이-H’(칙이라) 등이 앞 성분과 하나의 성조 어절을 형성하면서 위 (6)의 가의 성조형 중화 규칙의 적용을 받아, 각각 ‘남으니를/LHX2/’, ‘흐논이논/HX3/’, ‘사롭의게/RX3/’, ‘얼운의게/RX3/’, ‘칙이라/HX2/’의 어절 성조형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11)의 가는 ‘-느-{L}’가 저조형 어간 뒤에는 그대로 결합하는 반면, 상승조형과 고조형 어간 뒤에서는 (6)의 가의 성조형 중화 규칙의 적용을 받아 각각 ‘삼느니라/RX3/’, ‘나느니라/HX3/’, ‘흐느니라/HX3/’를 형성했다가 임의

화된 성조형 실현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다. (11)의 나는 ‘귀, 날, 눈, 몸, 칩’의 성조형 {H}가 처소의 부사격 조사 앞에서 위 (6)의 다의 적용을 받아 /L/로 바뀌었는데, 이 역시 15세기 중엽과 같은 양상이다.

(11)의 나의 고조형({H}) 어간인 ‘숨-(廈)’과 ‘쓰-(冠)’, 복수 성조형 어간인 ‘옮-(遷)’이 사동접사 앞에서 저조형(/L/)으로 변동하였는데 이것도 앞 시기와 같은 양상이다. (11)의 다는 ‘보-{L}+ -음{H}→뵤/R/’류와 ‘하-{L}+ -이{H}→해/R/’류의 음고 축약 현상을 보여주는데 이들도 15세기 중엽의 성조체계에서 성조형 결합 단계에 적용되었던 음고 축약 규칙이 여전히 살아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김차균(1989)에서 지적했듯이, ‘부터{LL}+이{H}→부테/LR/’ 상승조 축약은 잘 나타나지 않는데, (11)의 다의 비교가 이런 상황이다.

(11)의 자료들을 통해, 16세기 말엽의 성조체계가 15세기 중반의 그것이 가졌던 성조형 결합 단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12)와 같은 자료는 성조형 중화 규칙의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 (12) 남은것슬[LHHH](소학2:40), 손의게[LHH](소학2:68), 원넉호로[RHHL]  
(소학2:68), 戰國적[H] 사름이라[RHLH](소학2:44), 언비[RH] 곧하야(소학3:20)

(12)는 정연찬(1974)에서 『소학언해(小學諺解)』에서 이전 시기와 어간의 성조가 달라진 것으로 뽑은 것들이다. 예를 들어, ‘넉{L}’은 ‘원[R] 녀권[LH] 덩고[RH] 올흔[HL] 녀권[LH] 츠더라[HLH](월석2:39)’에서 보듯이 항상 저조(L)로 표기되었던 형태인데, ‘원넉호로[RHHL]’에서는 고조(H)로 표기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는 음운 단위, 즉, 성조 어절 형성의 범위에 대한 의식이 변화한 사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이전

시기에는 ‘것’, ‘게’, ‘녁’, ‘적’, ‘비(梨)’를 모두 앞 성분과는 별개의 발화 단위로 인식하여 각각의 형태소 성조형을 밝혀 표기하였으나 16세기 문헌에 서는 이들이 앞 성분에 결합하여 하나의 운율 단위 구성을 표기한 것으로 본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는 ‘관형어+의존명사’나 복합어의 운율론적 지위 변화, 실질 형태소의 문법화 등 여러 요인이 관여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완진(1977)에서 ‘부모를’(변박 상:50)의 ‘모[H]’와 ‘누의님하[LHHH]’의 ‘님[H]’을 ‘복합 등의 과정에 의하여 단어의 제2 음절 이하에 놓이게 된 경우’로 해석한 것이나, 김성규(1994)에서 ‘블러오라[LHHH]’(변박 상5 등)의 ‘오-[H]’, ‘몬 흐면[RHH]’(변노 하14)의 ‘흐-[H]’ 등을 ‘기식군의 확장’으로, ‘마다’, ‘브터’, ‘흠’ 등의 방점표기 변화를 문법화에 의한 것으로 설명한 것과 같은 차원의 설명이 가능하다. 이들은, 운율 단위 혹은 발화 단위의 형성 범위가 달라진 것이므로 넓은 의미에서 성조상의 변화로 볼 수도 있다.

김완진(1977)은 16세기 전반 문헌의 상승조 관련 표기 변화의 사례로 제시한 자료 중 일부는 성조형 결합 단계에 작용하는 상승조 축약 규칙의 변화에 의한 것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13) 호미오[RLH](여씨:7, 여씨:9), 호디[RL](변박 상:22), 호려[RH](변박 상:31), 호리라[RLH](변박 상:31)

(13)은 ‘흐-{L}+—오-{H}’에서 {L}을 가진 ‘흐-’의 모음이 탈락함에도 상승조 축약이 일어난 것으로 이전 시기와는 다른 모습이다. 이전 시기에는 ‘L+H’에서 ‘L’을 가진 음절의 모음이 탈락하면 ‘L+H→R’의 축약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강력한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상은 16세기 말엽의 『사서언해(四書諺解)』와 『소학언해(小學諺解)』 등에서도 그대

로 나타난다.

- (14) 止흙애[RH](대학4), 몬[R] 흙을[RH](대학7), 愛호디[RH](논어1:3), 홀띠  
니[RHH](논어1:3), 아니 호라[RH](논어1:10), 具호디[RH](맹자3:19),  
忌憚흙이[RH](중용3), 디답[RH] 흙[R](소학書題:1), 삼가 홀디니라  
[RHLH](소학2:11)

‘ㅎ-+-오-’를 대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변화 양상은 이전 시기에 존재하던 상승조 축약 규칙 ‘L+H→R’의 적용 조건이 달라진 결과로 볼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이 상승조를 ‘ㅎ(평)+오(거)→호(평)+오(거)→호(상)’으로 설명하는 방법도 있다. 김차균(1989)은 (14)은 성조형 변동 규칙의 변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이 문제는 ‘L+H’ 연쇄에서 ‘L’을 가진 음절의 모음이 탈락하는 다른 경우를 대상으로 한, 더 깊은 검토를 통해 규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이 상승조와 관련된 성조형 결합 단계의 작용이 성조의 비음운화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16세기 말엽까지 성조형 결합 단계 차원의 큰 변화, 성조 비음운화의 영향은 없었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이하<표 2>와 같다.

<표 2> 성조 비음운화 단계

단계	시기	특징	예
1	16세기 초엽	1) 어말 평성화의 확대 2) 울동규칙의 혼란상 심화	말소미어시뇨 [RHLLH](변박상:38), 사롭의[RHH](여씨)
2	16세기 말엽	성조형 중화 규칙의 적용 범위 확대	남은것슬[LHHH](소학2:40), 손의게[LHH](소학2:68)

### 3. 15세기 이전 성조의 체계

15세기에 『훈민정음(訓民正音)』이 창제되면서 한국어는 고유 문자를 사용하여 표기하는 시대로 돌입하였다. 민족주의사상의 영향으로 한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으로써 한국어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일례로 1933년에 ‘한글맞춤법통일안(1933)’이라는 한국어의 통일된 표기체계를 갖추게 된 것도 모두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어 학자들이 노력한 결과물이다.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정서법은 『훈민정음(訓民正音)』의 창제 이론과 부합되지 않는 표기법이 있다. 그 이유는 한글에 대한 통시적인 연구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은 채 한글맞춤법통일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1988년에 개정한 한글맞춤법도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과 ‘한글 맞춤법 통일안(1949)’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점이 있다(김영국, 1994).

#### 가. 고대 한국어의 성조 재구설

고대 한국어의 성조에 관한 대표적 연구는 이기문(1977)으로서 고대 한국어에 성조가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오늘날 동남방언에 성조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고대 신라어가 성조언어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면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15-16세기 문헌에 나타난 허사들은 거의 대부분이 거성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향찰에서 사용된 허사들의 성조가 상성이었다면 서로 대응되지 않는다. 향가에서 접미사로 사용된 한자는 주로 평성자 등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15-16세기 문헌에서 이들 접미사는 모두 거성으로 나타

나고 있다(김영국, 1995).

이 문제에 대하여 김영만(1986)에서는 향가의 표기인 향찰은 분절음소의 표기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초분절음소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즉, 향찰이 성조까지를 반영한 표기였다면 같은 음을 나타내는 데도 운율에 따라 다른 글자를 쓴 사례가 어느 정도 규칙적인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예는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향가의 표기를 통해 고대 한국어의 성조체계를 밝히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또한 향가의 표기 이외에도 『삼국사기(三國史記)』와 『삼국유사(三國遺事)』에 나타난 지명, 인명 등의 표기가 있지만, 이러한 자료들에서 고대 한국어의 초분절음소에 관한 것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분절음소조차 매우 불규칙하게 표기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한국인 선조들은 한국어를 한자로 표기할 때 성조와는 상관없이 한국어와 음이나 뜻이 유사한 한자를 자의적으로 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나. 고대 한국어의 성조 재구설에 대한 비판

한국어가 성조언어라고 주장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훈민정음(訓民正音)』이 창제되기 전 어느 시기에도 성조체계를 살펴볼 수가 없다는 점이다. 『훈민정음(訓民正音)』 창제 이전의 어떤 문헌을 살펴보더라도 성조체계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의 언어사실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그 당시의 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공백은 역사와 비교언어학적인 연구방법에 의해 추론 가능성이 있다.

고대 한국어의 사성 체계를 재구하고자 하는 학자들은 사소한 자료라 할지라도 고대언어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그것을 찾아 연구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비록 중국인에 의해 중국어로 쓰인 것이기 하지만 고려시대



한국어의 모습을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는 독특한 『계림유사(鷄林類事)』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계림유사(鷄林類事)』를 텍스트로 삼아 전기 중세 한국어의 성조체계를 밝히려는 논의는 이기문(1977)에서 시작되었다.

『계림유사(鷄林類事)』를 텍스트로 삼아 전기 중세 한국어의 성조체계를 재구하려고 하는 시도는 자료의 선택이 문제가 된다. 권재선(1974)은 운서를 참조하여 송대(宋代)의 중국어 성조를 재구한 후 이에 근거하여 고려 방언의 성조와 15세기 한국어의 성조를 비교하여 고려시대의 성조체계를 재구하였다.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관점이 제시되었지만, 15세기 한국어의 성조소를 보는 견해는 일치한다. 즉, 상성은 저조와 고저가 병치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단위 성조소로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15세기 한국어의 성조설은 상성을 하나의 단위 성조소로 보느냐 아니면 저조와 고조의 병치로 보느냐에 따라서 두 성조설이나 세 성조설로 나뉜다. 또한 상성의 음가를 평판조로 보느냐 굴곡조로 보느냐, 그리고 고저의 차이를 두 단계(저, 고), 세 단계(저, 중, 고), 네 단계(최저, 저, 고, 최고)로 보느냐에 따라 나뉘고 있다.

『훈민정음(訓民正音)』 창제자의 노력으로 인해, 방점이 표기되어 있는 15세기와 16세기는 한국어의 역사상 어느 시기보다도 운율적인 요소를 확인하기가 쉬운 상태가 되었다. 현대 한국어의 경우 음성언어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을 통해 운소를 확인할 수 있지만, 특정 표기를 통해 운소를 전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기는 15세기와 16세기에 한정되는 것이다. 15세기와 16세기의 문헌에 보이는 방점은 말의 높낮이를 표기하기 위한 장치였다.

현대 한국어의 중앙어에서는 말의 높낮이가 변별적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초기의 논의에서는 방점이 말의 길이를 표기한 것이라는 인식이 나타났다. 방점이 말의 높낮이를 표기하려는 수단이라는 사실이 인식된 것은 고노 로구로(河野六郎)(1945, 1951/1979)에서 볼 수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訓民正音解例本)』의 대표적인 영인본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1946년에 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에서 영인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1957년에 통문관(通文館)에서 영인한 것이다. 두 영인본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데, 조선어학회본에서는 내용을 잘 볼 수 있도록 수정을 가하였지만, 통문관본에서는 원본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조선어학회본의 경우는 안병희 외(1997)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권성과 구두점 및 방점(傍點)이 삭제”되거나, “지배의 목서와 파손된 부분이 영인과정의 손질로 방점(傍點)과 권성(圈聲)으로 된 일” 등이 나타난다.

고대 한국어의 성조체계를 재구하려는 노력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 번째 측면은 자료의 한계이다. 『계림유사(鷄林類事)』 등은 모두 중국 문헌으로써, 중국인의 입장에서 한국어를 관찰한 자료이다. 중국인의 언어 직관이 한국어의 성조를 포착할 정도로 깊이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두 번째 측면은 고유 문자 체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한계이다. 『훈민정음(訓民正音)』은 한국어를 참으로 적절하게 표기할 수 있는 음소문자였다. 따라서 초성 중성 종성의 합음을 통하여 구성되는 음절에 방점을 찍어 성조를 적절히 표현할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그러나 『훈민정음(訓民正音)』 창제 이전의 고대 한국어에서는 한국어의 성조 표기의 방법이 요원하였다.

#### 4. 15세기 성조의 변천 및 소멸

##### 가. 형태소 성조형 체계의 변화

이문규(2017)에 의하면, 방점표기 기간 내에 형태소 성조형 체계 역시 큰 변화이 없었던 것이다. 앞선 연구들이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개별 형태의 성조형 부류가 달라진 것으로 해석할 만한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대부분 고립적인 예이거나 개별 문헌의 특징적인 현상이어서 지속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거나 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개별 형태의 문제여서 형태소 성조형 전반의 변화로 볼만한 자료는 없었다.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다음 (12)는 상승조형과 관련된 변화로 제시된 자료이다.

(15) 가. 네[H] 나를(번박 상:48ㄴ), 쇠 사르매(鐵人)[HLH](번박 상:40), 깃븐 이리(事)[HH] 잇거든(번박 상:25ㄴ), 어더[LL] 가져[LH] 오라 [LH](3ㄱ), 췌드로물 어더[HH](번박 상:74), 엇더호노[LHLH](번박 상:2ㄴ), 엇디[HH](번박 상:66),

나. 톱예[HR](번박 상:71ㄱ), 빠디여[HHR](번박 상:40), 아기 나히던 [LHR](번박 상:57), 아니[LR] 호미오(여씨:9), ㄱ론[LR](여씨:18), 물러 가대[HR](여씨:21), 호여곰[LRH](논어 1:32), 되엇더니 [LRLH](논어 2:7), 니르고[LLR](논어 2:11), 니르리잇가[LLRLH](논어 3:11), 무더[LR](논어 3:56)

(15)의 가는 어휘형태소의 어두 음절 상승조 자리에 고조나 저조가 나타나는 예이고, (15)의 나 는 ‘어미부’, 즉 문법형태소의 고조가 상승조로 표기

된 예이다. 이들의 대부분이 없어지면서 음의 장단이 변별적 자질을 가지는 쪽으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해석이 제시되었다(김완진, 1977). 이 견해는 성조체계가 음장 체계로 변해가는 과정과 관련하여 더 깊은 논의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지만, 적어도 16세기 말엽까지는 이러한 양상이 주된 흐름을 이룬 단계까지 나아가지는 못한 것이다. 이 형태들은 원래의 성조형으로 표기된 예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을 상승조가 장음으로 변해가는 과정에 나타난 현상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시기에 상승조를 어두에 가진 성조형, 즉 ‘말(語)－형’과 나머지 두 성조형의 대립이 무력화된 것으로 볼 만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12)와 같은 상승조 관련 표기 변화가 형태소 성조형 체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은 저조형(말(馬)－형)과 고조형(말(斗)－형)이 서로 바뀐 것이다.

- (16) 가. 내[L] 씨 너 주마(변박 상:60), 막숨 아란디(知)[HHH](변박 상:71),  
 낙믹(他人)[HH](변박 상:7), 더귀[LH](변박 상:9, 상:62)
- 나. 잇느니라[LHHH](변박 상:55), 다 잇느니[LHH](변노 상:65), 잇거늘  
 (LHH)(속삼 열:8), 죽거늘[LHH](속삼 충:1, 효:10), 자브샤[LHH]  
 (중용:4), 머그라[LLH](변노 상:68), 무드니라[LLLH](속삼 효:15),  
 부모를 나토와[LLH](변박 상:50), 남던[LL] 러시의 [RHH] 게셔  
 [LL](여씨(화)37), 몰트이라[LLH](여씨(화)22) 비교) 먹느뇨[LLH]  
 (변박 상:55), 달고지에 엇느니라[LLHH](변박 상:56), 니르는다  
 [LLLH](변노 상:66), 잇느[LH] 거슬(변소 8:21)
- 다. 아니 흐느닝이다[HLLHL](논어 1:16), 엇디 흐리잇고[LHHL](논어  
 1:16), 널올이닝잇고[LHHLHL]((논어 1:21)~니르십이닝잇고  
 [LLHLHLH](논어 1:36)
- 라. 글쓰기[LHL](소학 1:4), 둡이[HH](소학 4:11), 삼(麻)[L](소학 4:44),

(靴)[L](소학 3:22), 이[L] 우흔[LH](소학 4:40)

(16)의 가는 김완진(1977)에서 제시한 자료로, 일부 어휘 형태의 성조형이 ‘고조형>저조형’, ‘저조형>고조형’의 변화 과정을 가진 예들이다. (16)의 나는 ‘전의적 성조’였던 ‘-ㄴ-’, ‘-으시-’의 ‘으’, ‘후의성을 가진 전의적 성조’를 가졌던 ‘-거-’ 등이 저조 뒤에서 고조로 표기된 예와 기저 고조형이었던 매개모음 ‘-으-’가 저조형으로 바뀐 예로서, 김성규(1994)의 자료에 일부 자료를 추가한 것이다. (16)의 다는 15세기에는 저조로만 표기되던 ‘-이-’가 고조로 표기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는 예로 김완진(1977)에서 든 예이고, (16)의 라는 『소학언해(小學諺解)』에서 어휘형태소의 성조가 변한 것으로 정연찬(1974)에서 제시한 예이다.

(16)의 가는 김완진(1977)이 고조와 저조의 혼동 결과로 해석하고 이러한 현상이 성조체계가 지속될 여력을 없애는 쪽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했다. 빈도가 낮지만, 이전 시기에 명확하게 구별 표기되었던 어휘형태소의 성조형이 이런 혼란을 보인 것을 율동규칙의 혼란으로 초래된 고저 대립의 약화 결과로 본 것이다. 이문규(2017)는 (16)의 가는 성조형 실현 규칙 임의화의 영향으로 고저 음고의 대립이 약화되면서 형태소 성조형이 혼란된 초기의 예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고조형과 저조형이 혼란된 상태로 표기된 예는 그 빈도가 낮고 고립적으로 나타나는 정도라는 점에서 이들을 형태소 성조형이 바뀐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16)의 나는 김완진(1977)이 (16)의 가와 함께 고조와 저조의 혼동 결과로 해석하였고, 김성규(1994)가 문법형태소의 기저 성조가 변화한 것으로 해석했다. 위 (16)의 나에서 보듯이, 같은 문헌 및 16세기 말엽 문헌까지도 ‘-ㄴ-’은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예들만 가지고 이 시기 이들 문법형태소의 성조형이 바뀐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김성규(1994)에서 ‘부분적인 변화’, ‘변화의 맹아’ 정도로 해석한 것도 이런 사정을 고려한 결과이다. 그러나 (16)의 가류와 마찬가지로, 이들도 어절 성조형 차원에서 보면 성조형 실현 규칙의 임의화를 넘어서 현상으로, 일부 문법형태소의 성조형이 혼란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들은 성조형 실현 규칙의 혼란 및 무력화가 ‘첫 거성 위치’까지 영향을 미침으로써 개별 형태소의 성조형이 혼란된 사례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16)의 가와 나 는 성조형 실현 규칙의 무력화가 고저 대립의 소멸, 나아가 형태소 성조형 체계의 붕괴의 한 원인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근거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이들은 방점 폐기 이후 성조체계 비음운화 과정에서 일어날 변화의 초기적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조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김완진(1977)에서 든 ‘人의게[HH]’나 이문규(2017)에서 든 ‘계셔[LL](여씨(화)37)’나 ‘물퉁이라[LLH](여씨(화)22)(←퉁이라/LHX/←퉁{H}+이{H}+라{H})’도 같은 부류에 포함시킬 수 있다.

(16)의 다 는 김완진(1977)이 ‘어간 제1 음절을 제외한 모든 음절의 성조가 혼란을 겪고 있는 예’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 15세기 중반에는 존대의 접미사 ‘-이-’를 어간과 다른 성조 어절을 보임을 표기했지만 16세기에는 어간과 하나의 어절을 구성한 다음 성조형의 실현 규칙이 혼란을 보이는 상태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위의 (15)과 같은 것이다.

(16)의 라 는 정연찬(1974)이 ‘어말 평성화’의 영향으로 어말로부터 어간 방향으로 ‘고>저’, ‘저>고’ 식의 연속적인 ‘시-쇼’ 운동 및 ‘평성의 확산’이 일어난 결과로 해석하였다. 우선, 이들도 같은 문헌의 다른 곳에서는 대부분 원래의 성조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태소 성조형이 바뀌었음을



보이는 자료로 취급하기는 어렵다. 또한, 정연찬(1971, 1974)의 ‘시-쇼’ 운동이나 ‘평성의 확산’ 기제에 대한 설명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도 (17)의 가, 나와 같이 성조형 실현 규칙의 임의화에 따른 고저 대립의 약화로 일부 형태의 성조형에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볼 때, (16)의 자료는 형태소 성조가 변화하는 징후를 보이는 것 정도로 간주할 수 있다. 15세기 중엽은 성조의 표기에 적극적이고 엄격하였는데, 이러한 16세기의 변화는 그것과 비교할 때 일부 성조형에 혼란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비중으로 보면 형태소 성조형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단계는 아니다.

한편, 최영미(2012)는 16세기 초엽 자료인 『여씨향약언해(呂氏鄉約諺解)』에서는 앞 시기에 존재했던 ‘평상형’이 크게 위축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저조형 체언에 ‘마다{RX}’나 ‘손디{RX}’가 결합한 형이 많이 발견되지 않고, ‘부터[LL]+이[H]→부테[LR]’류 음고 축약의 예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 용언에서는 ‘받줍-[LR]’이나 ‘갓잡-[LR]’과 같은 부류가 많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삼고 있다. 이들 중에서 ‘마다’나 ‘-줍-’류에 대해서는 문법화의 진행 정도로 인한 성조 어절 구성 범위의 확대나 표기 의식의 변화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부테’류 축약 결과인 ‘평상형’, 즉 ‘저승조형/LnRX0/’이다. 그런데 이 성조형은 15세기 중엽에도 형태소 성조형 차원에서는 없었고 어절 성조형 차원에서만 인정된 것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16세기 초엽의 『여씨향약언해(呂氏鄉約諺解)』와 말엽의 『소학언해(小學諺解)』에서 ‘부테’류 축약에 의한 ‘저승조형/LnRX0/’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형태소 성조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성조형 결합 단계의 문제이다. 이상의 예들을 제외하면, 16세기 말엽 문헌까지도 (4)의 형태소 성조형 체계는 대체로 유지된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문규(2017)에서 제시한 『대학언해(大學諺解)』의 복수 성조형 어간 자료도 이 시기의 성조체계가 15세기 중반의 형태소 성조형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이는 증거의 일부가 될 수 있다.

- (17) 가. 몬 흐리로다[LHLH] 흐니[LH](8), 다 흐디[LH] 몬 흙은(9), ㄴ티흐  
며[LH](11), 保흙 ㄴ티 흐라[LH] 흐니[LH](16), 몬게 흐면  
[LH](25), 업게 흐논[HHH](10), 樂게 흐샤믈[HLH](8), 얼운으로  
흐옴애[HLH](19)  
나. 肝을 보드시[LHH](視) 흐니(12), 보아도[LLH] 보디[LH] 몬 흐며(13),  
十目的 보논[HL] 배며(12), 너를 본다[HH] 흐니(瞻, 21)  
다. 本을 삼느니라[RHLL](爲, 3), 삼느다[RLH](23)//寶삼옴[LH] 거시  
(23), 삼으라[LHH](23~24), 利를 삼오미니라[LHHLH](28)  
라. 아논[RH] 理를(10), 그 사오나옴을 알며[RH](14). 아디[RL] 몬흐며  
(15)//本을 아롬이니라[LHHLH](知, 8)  
마. 브리디 말며[RH](毋, 20)//소기디 마로미니[LHHH](11)

(17)는 ‘흐-’, ‘보-’, ‘삼-’, ‘알-’, ‘말-’ 등의 복수 성조형 어간들이 15세기 중엽과 같은 성조론적 활용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선 연구들에서 『소학언해(小學諺解)』를 비롯한 16세기 말엽의 문헌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내린, ‘어간부 성조’(정연찬, 1974 등)나 ‘기저 성조’(김성규 1994)의 변화가 없었다는 결론도 이 시기의 형태소 성조형 체계가 기본적으로 15세기 중엽의 그것과 같다는 주장은 이문규(2016)와 맥을 같이 한다. 특히, 김차균(2010)의 ‘운율적 낱말의 첫 음절 방점의 양방향 단일성 조건’을 근거로 한 『소학언해(小學諺解)』와 현대 창원방언 간 방점형 대응 관계 조사 결과는 16세기 말엽의 한국어의 형태소 성조형 체계가 15세

기 중엽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결국 형태소 성조형의 대응 관계 부합률과 같다. 예를 들어, ‘사기나라[LHLH](소학)’와 ‘새기나라[HLLL]’의 어절 성조형은 각각 /LHX2/와 /HLX2/인데 ‘X’를 제외한 부분의 대응 관계는 {LH}:{HL}로서 대응 관계에 부합한다. 그리고 ‘사름이[RHL]’(소학)와 ‘사람이[ΓHH]’(창원)는 『소학언해(小學諺解)』가 중세 한국어의 일반적인 성조형 실현 규칙을 어긴 표면 성조형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사름’의 형태소 성조형, 특히 첫 음절 음고는 ‘R(상승조): Γ(최저조)’로 대응 관계에 부합한다.

성조 어절의 첫 음절 음고 사이의 대응 관계 부합률이 『훈민정음(訓民正音)』과 창원방언 사이는 89.5%이고 『소학언해(小學諺解)』와 창원방언은 86.2%라는 것은 형태소 성조형 체계 관점에서 볼 때, 『소학언해(小學諺解)』와 창원방언의 대응 관계가 『훈민정음(訓民正音)』과 창원방언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곧 『소학언해(小學諺解)』 시기의 한국어가 15세기 중엽 한국어의 형태소 성조형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 나. 16세기 말엽 한국어의 성조사적 위상

지금까지의 논의를 보면, 16세기 말엽 성조체계는 15세기 중엽의 형태소 체계와 그 결합 단계는 유지되었지만 성조형 실현 단계는 그렇지 못하였다.

16세기 말엽 한국어의 성조체계는 15세기 중엽의 그것에서 형태소 성조형 체계와 성조형 결합 단계는 유지된 반면, 성조형 실현 단계는 붕괴된 상태인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석보상절(釋譜詳節)』과 『소학언해(小學諺解)』의 ‘사름+이’의 표면 성조형을 실현양상을 바탕으로 두 시기의

차이를 비교해 보자.

『석보상절(釋譜詳節)』의 성조체계에는 ‘/RX2/→[RLH]’라는 성조형 실현 규칙이 있어서 ‘사람이’는 항상 [RLH]로만 실현되지만, 『소학언해(小學諺解)』에서 ‘사람이/RX2/’는 ‘[RLH], [RHL], [RHH], [RLL]’ 중 하나로 실현된다. 형태소 성조형 단계에서 명세되지 않은 ‘X’ 부분이 저조나 고조 중 하나로 임의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이것은 표면 성조형이 규칙에 의해 도출되지 않는 체계, 즉, 규칙에 의해 예측할 수 없는 상태이다.

앞선 연구들에서는 중세 한국어 성조론에서 성조형의 변별력이 주로 어두 음절, ‘말(馬)n’형( {LnHX0})의 경우 첫 고조(H)까지의 음절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성조형 실현 규칙의 임의화의 비중이나 성조사적 의미를 중시하지 않은 면이 있다. 그러나 한국어 성조론에서 표면 성조형의 각 음절은 변별력의 유무와는 별개로 규칙에 따라 실현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것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이전과는 상당히 다른 성조체계로 변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조형 실현 규칙의 임의화가 어느 정도의 변화인지는 현대 성조방언의 경우를 대비해 보면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든 경북방언에서 ‘말(語)’-류 3음절어인 ‘사람이’의 어절 성조형은 /RX2/로 같지만, 그 표면 성조형은 하위 방언에 따라 달라서, 대구방언에서는 [RHL]로만, 울진방언에서는 [RLL]로만 실현된다. 만약 대구방언에서 이 어절이 [RLL]로 실현되거나 울진방언에서 [RHL]로 실현되면 그 방언 화자는 각각 다른 방언을 들었을 것이다. ‘사람이’는 [RHL]로 실현될 때만 대구방언으로, [RLL]로 실현될 때만 울진방언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볼 때, ‘사람이’가 ‘[RHL], [RHH], [RLH], [RLL]’ 중 하나로 자유롭게 실현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은 첫 음절 ‘R’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RHL]’로만 실현되던 시기의 체계가 붕괴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성조형 실현 규칙이 임의화되었다는 말은 15세기 중엽의 성조체

계와는 다른 새로운 성조체계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현대 성조방언 중에는 강릉방언이 성조형 실현 규칙이 임의화된 상태에 가까이 접근한 것이다.

- (18) 가. 다리미질[LHLL]~[LHHL]~[LHHH],  
           미꼬라지(鰻)[LHHL]~[LHHH]~[LHLL]  
           나무다리[LHHH]~[LHHL]~[LHLL]  
   나. 물고기[LHL]~[LHH], 물매치로[LHLL]~[LHHL]~[LHHH],  
           무지개처럼[LHLLL]~[LHHLL]~[LHHHL]~[LHHHH]  
   다. 사마구[RHL]~[RLL], 뽕어서[RHL]~[RLL],  
           대추나무[RHLL]~[RLLL]

(18)의 가는 ‘/H2Ln/’-형의 셋째 이하 두 음절의 음고가 임의로 실현됨을 보여주고, (18)의 나는 상승조형(말(語)-형)이 두 개의 표면 성조형으로 임의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박숙희(2014) 등의 보고를 참고할 때, 하위 성조형, 특히 상승조형은 더욱 불규칙적으로 변한 상황으로 보이며, 이 방언의 성조형 실현규칙이 거의 임의화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성조 비음운화에 있어서 성조형 실현 규칙이 붕괴되어 가는 상황은, 성조의 변별적 위상이 사라져 가는 방향과 일치한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사름이’에서 보면, 성조형 실현 규칙의 임의화는 ‘[RLH]’로 변별력을 발휘하던 상태에서 ‘[RX2]’로 변별력을 가지는 상태가 된 것, 즉 이 어절을 ‘[RLH]’로만 발음하는 상태에서 첫 음절을 상승조로 발음하기만 하면 되는 상태가 된 셈이다. 이것은 이 어절 성조형의 음운론적 정보가 ‘상승조로 시작하는 3음절 어절’로 이전 체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한 성조 어절을 구성하는 모든 음절의 음고가 규칙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던 체계에서 특정 음절의 음고만 제한되는 체계로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결



국 성조 실현 단위로서의 성조형의 지위가 약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성조형 실현 규칙의 임의화가 성조 비음운화에 미친 또 다른 측면에서의 영향은 이것이 성조의 바탕 음성 자질인 음고(pitch)의 대립성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조형 실현 규칙의 임의화는 어절 성조형의 중화된 부분, 즉 'X'로 표기된 부분의 음고가 규칙에 의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실현되는 상태로 바뀐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모든 음절에서 성립되었던 고조와 저조의 대립은 어두 음절 등 일부 위치에서만 유지되는 상태로 바뀌었다. '사람이'의 경우, 이전 체계에서는 [RLH]라는 표면 성조형으로 다른 성조형과 대립하던 것이 첫 음절 상승조만이 이 성조형의 실질적인 변별 지표로 남게 된 것이다.

이처럼, 음고의 대립이 일부 음절에서만 유효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음고의 대립성이 약화되었음을 의미하고 이는 음고를 바탕으로 하는 운소인 성조의 운율적 지위를 약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앞선 연구들에서 제시한 (17)와 같은 성조형 혼란 자료는 이와 같이 음고 자질의 대립이 약화된 상태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체계는 성조론적 과정의 제2 단계가 붕괴되었다는 점에서, 15세기 중엽의 성조체계와는 다른 체계이다. 또한, 이 체계를 초래한 성조형 실현 규칙의 임의화는 운율 단위인 성조형과 바탕 음성 자질인 음고의 대립성을 심각하게 약화시켰을 것이다. 따라서 이 체계는 15세기 중엽의 체계에서 성조의 비음운화로 한 단계 나아간 상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형태소 성조형 체계 및 성조형 결합의 과정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15세기 중엽의 성조는 여전히 운소의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별 형태들의 성조형 부류가 앞 시기의 상태를 유지했고, 중화나



대치 등 성조형 변동 규칙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즉, 어절 성조형 체계도 앞 시기와 같은 모습으로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16세기 말엽의 한국어는 모든 형태와 어절들이 형태소 성조형 및 어절 성조형의 차원에서 (4)과 같은 세 부류로 나뉘었고, 성조형이 운소의 지위를 가진 언어였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조형 실현 규칙 임의화가 성조 비음운화를 이끌게 된 것은 이 현상이 성조형과 음고의 운율적 지위를 약화시키는 데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성조형 실현규칙의 임의화로 초래된 음고 대립의 약화는 그 영역을 넓히고 정도를 키우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성조형에 의한 형태 부류의 구별을 불가능하게 하고, 결국 형태소 성조형 체계 자체를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방점표기 자료로는 확인할 수 없는 음고 대립의 전면적 약화와 형태소 성조형 체계의 붕괴로 음고 자질의 변별력은 완전히 소멸하게 되었다. 그래서 성조의 소멸 혹은 비음운화 판정은 이 단계에서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5세기 중엽 성조형 실현 규칙의 임의화가 완료된 상태인 16세기 말엽에는 모든 차원의 성조형의 변별력과 음고 대립이 무너지면서 어두 음장 유무에 따른 운율형이 대립하는 체계로 재편된 상태가 형태소 성조형과 음고의 대립이 없어진 이 상태에 이르면 성조의 운소로서의 기능은 완전히 소멸한 것이다. 형태소 성조형을 단위로 하는 성조 기술론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어 성조사에서 방점표기 기간 중에 일어난 가장 현저한 변화는 성조형 실현 규칙의 임의화에 따른 성조형 실현 단계의 붕괴이다. 16세기 문헌에서 형태소 성조형 및 음고 체계의 혼란을 반영한 자료가 등장했지만 체계적인 변화로 볼 필요는 없다. 성조형 실현 규칙의 임의화란 15세기 중엽 성조체계에 존재했던 표면 성조형 실현 규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된 상황을 의미한다. 앞선 연구들에서 ‘율동규칙의 혼란’ 혹은 ‘다양화’

로 불린 현상에 해당한다. 그런데 성조형 실현 규칙 임의화가 어말 평성화에서 시작되었다는 점, 어말 평성화가 15세기 중엽의 문헌에서 이미 등장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조 비음운화는 15세기 중반에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성조형 실현 규칙의 임의화는 단순히 표면 성조형의 수만 늘린 것이 아니라, 성조형 결합 단계를 거쳐 형성된 어절 성조형이 규칙에 의해 일정한 표면 성조형으로만 실현되던 상태에서 그렇지 않은 상태로 변화되었다. 성조론적 과정의 제2 단계가 없어지게 한 것이다. 따라서 16세기 한국어의 성조체계는 15세기 중엽의 그것과는 다른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성조형 및 음고 자질의 운율적 위상을 심각하게 약화시켰다는 점에서, 이 성조형 실현 규칙의 임의화는 중세 한국어 성조가 비음운화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러나 방점표기가 이루어진 16세기 말엽까지 성조의 비음운화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형태소 성조형 체계와 성조론적 과정의 제1 단계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15-16세기의 문헌에 존재하는 방점이 말의 고저를 나타낸다는 것은 이미 한국어학계의 정설로 인정되었다.

이상으로 한국어의 성조는 『훈민정음(訓民正音)』 창제 당시부터 이미 줄기차게 비음운화의 길을 걸어왔고, 16세기 말엽에 이르러서는 거의 소멸 지경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비단 과거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추후 살펴보겠지만, 성조를 지닌 경남 지역 방언의 경우 청년층에서 이미 그것의 약화, 혹은 임의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결국 인접 지역 방언과의 통합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 다. 성조체계 쇠퇴

이진호(2015)는 분절음 층위의 비음절화 유형에 따라 중세 한국어의 성조 축약 양상을 미시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형태소와 형태소의 결합 과정에서 일어나는 공시적 성조 변동에 초점을 두었다. 이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은 중세 한국어의 비음절화 유형을 반모음화, 모음탈락, 형태 축소라는 세 가지 부류로 나눈 것에 있다. 그 후 각 경우에 상성화가 일어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피고, 이를 통해 상성화를 가로막는 제약과 함께 기존 논의에서 간과했던 부분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다.

### 1). 반모음화와 성조 축약

중세 한국어에서 반모음화는 인접한 두 단모음 중에서 선행하는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거나 후행하는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기도 한다. 선행하는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는 것은 상향적 반모음화이며, 후행하는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는 것은 하향적 반모음화라고 한다. 상향적 반모음화가 일어날 때 상성으로의 축약이 일어나지 않는 예외도 존재한다. 이런 예외들은 개별 어휘적 특성에 의한 것과 일정한 제약에 의한 것 나눌 수 있다. 개별 어휘에 따른 예외는 소위 존재사로 불리는 ‘시-, 이시-’에서 나타난다.

(19) 가. 시니[LH](두해8:51), 시리오[LHL](두해11:37), 시며[LH](능엄10:14),  
쇼니[HH](두해3:44), 쇼더[HH](능엄1:34), 쇼미니[HLH] (원각 상  
1-1:52), 숨[H](능엄2:87)

나. 이시나[LLH](월석25:112), 이시니[LLH](법화4:109), 이시리니[LLHH]  
(석보9:19), 이셔[LH](월석 서:1), 이셔도[LHH](석보 서:3), 이쇼니라

[LHLH](능엄7:23), 이슈려[LHH](능엄10:61), 이슈를[LHH](월석20:8)

(19)의 가에서 보듯 ‘시-’는 자음(또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어간이 평성으로 실현된다. (19)의 나와 같이 ‘오/우’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여 반모음화가 일어나면 어간의 평성과 어미의 거성이 축약되어 상성이 나타나야 한다.<sup>20)</sup> 그러나 실제로는 항상 거성으로만 실현된다. (19)의 나의 ‘이시-’ 역시 자음이나 매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LL’의 성조를 보인다. 따라서 그 뒤에 거성인 ‘아/어’나 ‘오/우’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여 반모음화가 일어나면 평성과 거성이 축약되어 상성이 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19)의 가의 ‘시-’는 (19)의 나 ‘이시-’의 ‘시’와 성조 실현 양상이 동일하다. 이러한 예외는 이 어휘들에서만 보이는 특수한 것이다. 상향적 반모음화가 적용될 때 성조 축약이 일어나지 않는 데에 일정한 제약이 부여된다.

(20) 그려[HH](석보 서:5), 그륄[HH](석보13:53) [이상 ‘그리-(H○, 畫)’, 더러여[RLH](법화4:18), 더러온[RLH](능엄1:37) [이상 ‘더러이-(R○○, 染)’, 머물워[LHH](금삼4:9), 머물웁[LHL](두해18:6) [이상 ‘머물우-(LH○, 留)’, 듯와[RH](법화3:138, ‘듯오-[R○, 愛)’]

(20)는 비음절화에 의해 하나로 합쳐지는 음절들 앞에 거성이나 상성이 놓이는 경우이다. 비음절화가 일어나기 전의 성조를 고려하면 상성으로의 축약이 일어나야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그려, 그륄’은 각각 ‘그리어, 그리운’에 반모음화가 적용되었으며 첫 음절의 거성에 의해 율동규칙의 적용되면 ‘그리어, 그리운’은 모두 ‘HLH’의 성조를 가진다. 이때 둘째

20) 이진호(2015)에서는 ‘쥬메[RH](두해 7:6), 쥬믄[RH](능엄 8:8)’ 등의 예가 제시되어 있다.

음절과 셋째 음절이 한 음절로 줄어들면 ‘LH’가 합쳐지므로 성조 축약이 예상되지만 상성으로의 축약은 일어나지 않는다. 오로지 선행하는 거성(또는 상성)에 의해 율동규칙의 적용을 받을 뿐 상성이 나오는 경우는 없다.

(20)와 달리 거성이나 상성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성조 축약 현상이 나타나는 것같이 보이는 것은 합성어에서만 발견된다.

(21) 그우러듀몬[LLHRL](금삼3:41), 물어듀미[LHRH](월석2:74),  
넘뿌미[RRH](능엄8:101)

(21)에서 보듯이 한 음절로 줄어드는 음절 앞에 거성이나 상성이 이미 있으면 성조 축약은 일어나지 않는다. 다만 선행하는 거성이나 상성에 의해 율동규칙만 적용될 뿐이다. 유필재(2014)는 체언에서 일어나는 하향적 반모음화에 의한 성조 축약을 다루면서 이러한 제약의 존재를 지적하였다. 그런데 이 제약은 하향적 반모음화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종류의 비음절화와 관련된다. 즉 비음절화를 통해 합쳐지는 음절들에 선행하는 거성(또는 상성)은 성조 축약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기능을 한다.

다시 말하자면 율동 제약은 성조 축약을 막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필재(2014)는 이 제약의 존재가 그다지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이것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세 한국어의 경우 율동규칙이 작용하는 한 첫 거성이나 상성이 있으면 그 이하의 성조는 첫 거성이나 상성에 의해 자동적으로 결정된다. ‘율동 제약’의 존재도 바로 이러한 규칙에 따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율동 제약’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제약이라고 할 수 있다.

하향적 반모음화는 체언에 주격 조사나 서술격 조사가 결합할 때 일어난다. 평성음절과 거성 음절이 결합될 때 거성 음절의 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면 상성으로의 음절 축약이 일어난다.

- (22) 가. 채로다[RLH](남명 상:59, 차[L, 茶]) 곡되[LR](금삼5:36), 곡되라  
[LRH](능엄2:7), 곡되오[LRH](법화 서:21) [이상‘곡도(LL, 幻)’]  
나. 풍류[LR](월석2:75), 풍류니[LRH](석보13:9), 풍류라[LRH](월석2:17)  
[이상 ‘풍류(LL)’], 풋데[HR](두해3:42ㄱ, 풋더[HL, 笛]), 당시오  
[HRH](월석13:8ㄱ, 당스[HL, 商業]), 복되니[HRH](월석11: 53, 복포  
[HL, 瀑布])

(22)의 가는 단일어, (22)의 나는 합성어의 예이다. 합성어의 경우 선행 요소의 성조는 후행 요소에서 일어나는 성조 축약과 관련이 없다. 단일어든 또는 합성어의 후행 요소든 모두 평성으로 이루어졌으면 하향적 반모음화가 일어날 때 성조 축약이 일어난다. 유필재(2014)에서도 지적했듯이 음절수나 어휘 부류 등은 하향적 반모음화에 의한 성조 축약과 관련성이 없다. 하향적 반모음화에서도 성조 축약이 예상되지만 실제로는 예외가 존재한다.

- (23) 아뢰[RL](두해8:32), 아뢰어나[RHLH](월석7:76) [이상 ‘아모(RO, 某)’, 기르매[LHL](두해22:7, 기르마[LHO, 鞍]), 언매잇고[RHLH](법화4:167, ‘언마[RO, 何]’)

(23)는 율동 제약과 관련된 예외들이다. 율동 제약에 따르면 거성이나 상성이 선행할 경우 그 뒤에서는 성조 축약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뢰, 아뢰어나, 기르매, 언매잇고’는 반모음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각각 ‘아모이[RLH], 아모이어나[RLHLH], 기르마이[LHLH], 언마이잇고[RLHLH]’와 같은 형태가 예상된다. 여기에 하향적 반모음화가 적용되면 성조 차원에서는



평성과 거성이 하나로 합쳐지지만 그 앞에 거성(또는 상성)이 이미 있기 때문에 상성으로 축약되지 않는다. 이것은 맨 앞에 오는 거성이나 상성에 의해 율동규칙이 적용되어 그 뒤에 오는 음절의 성조가 자동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 2). 모음의 탈락 현상과 성조의 축약 현상

음절 경계를 사이에 두고 두 개의 모음이 나란히 놓일 때 모음 충돌을 막기 위해 단모음이 탈락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앞 음절이 평성이고 뒤 음절이 거성이면 성조의 축약이 동반되기도 한다. 모음 탈락에 동반되는 성조 축약은 체언의 경우와 용언의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체언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 (24) 가. ㄷ리[LR](금삼5:7), ㄷ리라[LRH](월석25:14) [이상 ‘ㄷ리(LL, 橋)’] 바리[LR](월석4:51), 바리라[LRH](월석23:95)[이상 ‘바리(LL, 鉢)’], 그디[LR](월석1:7, 그디[LL, 汝]), 다리오[LRH](삼강 충:17, 다리[LL, 脚])  
나. 빅[R](두해20:9, 빅[L, 船]), 누의[LR](두해11:2), 누의라[LRH](월석 21:95) [이상 ‘누의(LL, 妹)’], 두드레라[LLRH](능엄7:57), 두드레오[LLRH](법화7:56) [이상 ‘두드레(LL, 柎)’]

(24)의 가는 단모음 ‘ㅣ’로 끝나며 성조가 ‘L’로 이루어진 체언에 주격 조사나 서술격 조사가 결합할 때 상성으로의 성조 축약이 일어난 경우이다. 체언의 끝 모음과 조사의 첫 모음이 모두 ‘ㅣ’로 동일한데 표기상으로는 ‘ㅣ’가 하나만 나타난다. 김완진(1977) 이후, (24)의 가와 같은 예는 단순한 모음 탈락이라기보다는 후행 모음 ‘ㅣ’가 반모음 ‘y’로 바뀌어 실제로는 ‘iy’와 같은 이중 모음이 실현되었다고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해석은 두 가지 근거에 기반하고 있다. 하나는 앞서 제시한 (19)

의 제약과 관련된다. (24)의 가에서 두 모음 중 하나가 탈락한다면 (19)에 위배되기 때문에 성조 축약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를 해결하려면 평성 음절의 모음은 그대로 유지되고 거성 음절의 모음은 반모음 ‘y’로 바뀌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른 하나는 ㄱ-탈락과 관련된다. ‘다리오’ 등에서 보듯 (24)의 가의 체언 뒤에 서술격 조사가 결합하면 그 뒤에서 ㄱ-탈락이 일어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ㅣ’를 ‘iy’로 해석할 때 더 적합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24)의 가를 동일 모음 ‘ㅣ’가 연속되면서 둘 중 하나가 탈락한 것으로 본다. 그 근거는 세 가지이다.

첫째, 상성으로의 축약에 있어 (19)에 제시된 제약은 예외가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인접한 두 개의 ‘ㅣ’ 중 하나가 탈락한다고 보아도 상성으로의 축약을 설명하는 데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

둘째, ㄱ-탈락은 다양한 환경에서 일어나는데 그 환경이 되는 ‘ㅣ’를 모두 ‘iy’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선어말 어미 ‘-니-’나 ‘-리-’ 등의 ‘ㅣ’도 모두 ‘iy’로 보는 것은 ㄱ-탈락을 위해 추상적 형태를 남용하는 것이 된다.

셋째, 후술하겠지만 (24)의 나를 위해서는 단모음 ‘ㅣ’의 탈락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성격이 비슷한 (24)의 가, 나를 통합해서 설명하는 데에는 모음 탈락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4)의 나 는 ‘ㅣ, ㅓ, ㅕ’와 같이 y-계 하향 이중 모음으로 끝나고 성조가 L로 이루어진 체언에 주격 조사나 서술격 조사가 결합할 때 조사의 모음 ‘ㅣ’가 탈락하면서 성조 축약이 일어난 경우이다. 만약 앞선 (19)의 나 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24)의 나에서 조사의 모음 ‘ㅣ’가 단순히 탈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렇게 조사의 모음 ‘ㅣ’ 탈락을 인정하지 않으면 (24)의 나 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25) 가. 비[L]+{이[H]→ㅂ이[LH]→비[R]}

나. 비[L]+{이[H]→비 ㅣ [LH]→비[R]}

(25)의 가는 체언 마지막 음절의 반모음 ‘y’가 먼저 탈락한 후 후행하는 단모음 ‘ㅣ’가 하향적 반모음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ㅣ’ 앞에서 ‘y’가 탈락하는 것은 다른 자료에서 찾아볼 수 없어서 음운 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25)의 나 y-계 하향 이중 모음 뒤에서 단모음 ‘ㅣ’가 반모음으로 바뀐 후 반모음이 중복되어 앞에 있는 반모음 ‘y’가 탈락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모음 뒤에서 반모음화가 일어난다는 과정 자체가 매우 부자연스럽다.

이처럼 조사 모음의 탈락을 인정하지 않으면 (25)의 나 설명이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타당성이 결여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25)의 나 조사의 모음 ‘ㅣ’가 탈락했을 따름이다. 이러한 탈락은 선행하는 반모음 ‘y’와 후행하는 단모음 ‘ㅣ’의 성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점에서 음성적 동기도 충분히 존재한다. (19)에 언급하지 않는다면 (25)의 나 모음탈락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은 (25)의 가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모음이 탈락한다고 해서 성조 축약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모음 탈락에 의한 성조 축약은 용언 어간의 활용에서도 나타난다.

(26) 가. 자니[RH](두해6:15), 자매[RH](능엄3:14), 자몰[RH](능엄3:14) [이상 ‘자-眠’], 퍼려[RH](월석2:7), 퍼리이다[RHLH](법화4:190), 퍼미[RH](능엄1:108) [이상 ‘퍼-(伸)’]

나. 오더[RH](석보6:32), 오라[RH](법화4:131), 오미라[RLH](월석10:86) [이상 ‘오-(來)’], 뭉[R](능엄1:86), 두더[RH](능엄1:35), 두미니[RLH](원각 하3-1:28) [이상 ‘두-(置)’]

(26)은 1음절 용언 어간이 ‘오/우’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보이는 성조 축약이다. 이들 어간의 성조는 ‘오/우’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평성, 어미의 첫 음절은 거성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26)은 어간의 평성 음절과 어미의 거성 음절이 결합하여 모음 탈락이 일어나면서 성조 축약이 동반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26)의 가는 용언 어간이 ‘ㅏ, ㅑ’로 끝나며 그 뒤에서 ‘오’ 또는 ‘우’가 탈락했고 (26)의 나는 어간의 마지막 모음과 어미의 첫 모음이 동일한 경우로서 두 모음 중 하나가 탈락했다.

이상에서 살핀 예들은 평성 음절과 거성 음절이 결합하면서 모음 탈락이 일어나도 성조 축약을 겪어 상성이 실현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성조 축약에는 예외도 있다.

- (27) 가. 다아[LH](석보13:1), 다아도[LHH](능엄10:9), 다오라[LHH](월석25:9), 다오매[LHH](법화6:154) [이상 ‘다으-(LL, 盡)], 더어[LH](능엄6:2), 더어도[LHH](법화4:103), 더우라[LHH](법화6:175), 더우물[LHH](월석1:47) [이상 ‘더으-(LL, 盡)]
- 나. 알파[LH](능엄5:48), 알패라[LHH](석보23:44), 알포미[LHH](법화2:60), 알포몰[LHH](능엄5:48) [이상 ‘알프-(LL, 痛)], 저퍼[LH](법화2:131), 저퍼도[LHH](법화7:90), 저푸물[LHH](월석25:79), 저푸미[LHH](월석9:61) [이상 ‘저프-(LL, 畏)]
- 다. 갑논[LH](『능엄』6:106, 갇[L]+{ㄴ[L]}+{온[H]}), 갇눛다[LHL](금삼4:23, 갇[L]+{ㄴ[L]}+{웃다[H○]}), 니르왁논[LLLH](원각 상1-1:84ㄴ, 니르왁[LLL]+{ㄴ[L]}+{온[H]}), 더으눛다[LLHH](석보 24:47, 더으[LL]+{ㄴ[L]}+{웃다[H○]})

(27)의 가는 성조가 ‘L’로만 이루어진 어간 뒤에 ‘아/어’나 ‘오/우’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어간의 모음 ‘·/ㅡ’가 탈락하는 경우이다. 어간의 마지막

막 음절은 평성이고 어미는 거성으로 시작하므로 모음 탈락이 일어날 때 평성과 거성이 상성으로 축약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27)의 나는 파생 접사 ‘-브-’가 결합된 복합어라는 점만 제외하면 (27)의가와 동일한 조건이다. (27)의 다는 어미와 어미가 결합할 때 모음 탈락이 일어난 경우이다. 선어말 어미 ‘-느-’는 평성 어간 뒤에서는 평성, 그 뒤에 오는 ‘-오-’나 ‘-웃-’은 거성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느+{오}’나 ‘-느+{웃}’이 결합한 ‘-노’와 ‘-낫’은 평성 음절과 거성음절이 줄어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상성으로 실현되는 경우는 없다. 이상에서와 같이 평성 음절과 거성 음절이 결합하면서 모음탈락이 일어날 때 성조 축약이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는 명확히 구별된다.

한편 모음 탈락에 의해 일어나는 성조 축약 역시 앞서 살핀 율동 제약의 적용을 받는다.

- (28) 가. 아흐래로디[LHHLH](월석4:55), 아흐래어나[LHHLH](월석9:51) [이상 ‘아흐래(LH○, 九日)’, 어미로니[HHLH](월석21:55, 어미[H○, 母])]  
나. 머믈우미라[LHHLH](능엄5:57나, 머믈우-[LH○, 留]), ㄴ리움[LHH](금강60, ㄴ리오-[LH○, 遮])

(28)의 가의 ‘아흐래로디, 아흐래어나’와 ‘어미로니’는 모음 탈락이 되기 전에는 각각 ‘아흐래이로디[LHLHLH], 아흐래이어나[LHLHLH]’, ‘어미이로니[HLHLH]’와 같은 형태이므로 평성 음절과 거성 음절의 결합에서 모음 탈락이 일어났다. 그러나 평성 음절과 거성 음절 앞에 있는 거성에 의해 율동규칙이 적용되어 상성으로의 축약이 일어나지 않는다. (28)의 나 역시 어간의 둘째 음절에 있는 거성의 존재로 말미암아 율동 제약이 작용하여 모음 탈락이 일어나도 성조 축약이 나타나지 않는다.

### 3). 형태 축소와 성조 축약

준말 형성이나 불규칙한 어형 단축 등과 같이 그 양상을 일반화하기 어려운 음절 축소가 일어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형태 축소’라는 용어로 포괄하고자 한다. 형태가 축소되면서 평성 음절과 거성 음절이 한 음절로 줄어들면 성조 축약이 적용되어 상성이 실현되기도 한다.

(29) 가. 모르거늘[LHLH](남명 상:70), 모르리니[LHLH](석보6:3), 몰라[RH](월석9:29ㄱ), 몰라도[RLH](금삼4:47), 몰로몰[RLH](법화6:93ㄱ)

나. 누르건마론[LHHLH](법화4:142), 누르시니[LHLH](석보6:39), 놀러[RH](능엄9:68), 놀러도[RLH](석보24:38), 놀루메[RLH](능엄4:54)

(29)은 소위 ㄹ/르-불규칙 용언 어간인 ‘모르-’와 ‘누르-’가 ‘아/어’나 ‘오/우’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상성으로의 축약을 보이는 사례이다. 자음이나 매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의 어간 성조가 ‘LH’인 것으로 보아 둘째 음절 모음인 ‘·’와 ‘ㅡ’가 탈락하면서 첫째 음절의 평성과 둘째 음절의 거성이 축약되어 상성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9과 같은 성조 축약은 이들 어간의 재구형이 ‘\*모를-’과 ‘\*누를-’이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해 준다. 즉 ‘\*모를-’과 ‘\*누를-’에 ‘아/어’나 ‘오/우’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면 ‘모르라X[LH○○], 모르로X[LH○○]’와 ‘누르러X[LH○○], 누르루X[LH○○]’가 되며 둘째 음절 모음의 탈락으로 인해 첫 음절에 상성이 실현되는 현상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 만약 (29)의 어간 재구형을 ‘\*모를-’과 ‘\*누를-’이 아닌 ‘\*몰르-’나 ‘\*놀르-’로 한다면 (29)와 같은 성조 축약은 설명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나(吾), 누(誰), 쇼(牛)’ 등과 같이 1음절이면서 종성을 가지지



않는 체언의 경우를 살펴기로 한다. 이 단어들은 그 성조 실현이 특이하다. 특히 이 체언들 뒤에 관형격 조사나 목적격 조사가 결합하면서 형태가 줄어들면 상성이 실현되는 경우가 있다.

(30) 가. 뉘[R](법화5:99), 뉘게[RL](월석23:75)

나. 쇠[R](능엄3:26), 쇠게[RL](구간1:79),

쇠게서[RLH](월석14:64)

(30)는 ‘누, 쇼’ 뒤에 관형격 조사 또는 관형격 조사가 포함된 복합조사가 결합할 때 형태가 줄어들면서 상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김완진(1977)은 (30)의 가, 나 의 상성은 결과적으로 평성과 거성의 축약 결과에 속한다고 한다. (30)의 가의 ‘누’는 후의적 성조를 지니므로 관형격 조사와 결합할 때 평성으로 실현되고 이것이 관형격 조사의 거성과 축약되어 ‘뉘[R]’와 같은 상성으로 나타났다. 또한 (30)의 나 의 ‘쇼’는 기본 성조가 ‘h·l’이며 이것이 관형격 조사와 결합하면서 몇 단계의 성조 변동을 거쳐 역시 평성과 거성의 축약으로 상성이 되었다.

그런데 기본 성조가 평성이 아닌 ‘누’와 ‘쇼’는 관형격 조사와 결합할 때 성조축약이 나타는 것에 비해 정작 기본 성조가 평성인 ‘너’와 ‘저’는 같은 환경에서 상성으로 축약이 되지 않는다. 김완진(1977)은 관형격 조사의 성조를 ‘h·l’로 기본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12)같은 성조가 되기 위하여 몇 단계의 성조 변동 과정을 상정해야 하며, 이에 따라 추상적인 분석방법이 되어버린다.

반침이 없는 1음절 체언 중에는 목적격 조사가 결합할 때 상성으로의 축약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31) 가. 날[R](능엄1:84), 날와[RH](석보13:25)

나. 놀[R](월석2:13), 놀와[RH](두해20:8)

(31)은 인칭 대명사 ‘나’와 ‘누’에 목적격 조사 ‘을/을’이 결합할 때 형태가 줄면서 상성으로 축약이 된 경우이다. 김완진(1977)은 ‘나’와 ‘누’가 모두 후의적 성조를 가지며 목적격 조사 앞에서는 평성으로 실현된다고 했다. 형태가 줄어들면서 체언의 평성과 격조사의 거성이 상성으로 축약된 것이다. 그러나 기본 성조가 평성인 ‘너’의 경우 ‘널로[LH](능엄2:61)’에서 보듯 상성으로의 축약이 일어나지 않는다.

한편 형태가 축소되면서 성조 축약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경우는 ‘어근+{ㅎ-}’의 구조로 된 복합어들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Xㅎ-’의 구조를 가진 복합어는 ‘X’의 구조에 따라 ‘ㅎ’가 전부 생략되기도 하고 ‘ㅎ’이 후행하는 어미의 두음과 합쳐져 유기음으로 실현되기도 한다. 그 어느 경우든 ‘ㅎ’라는 음절은 없어지는데 만약 ‘ㅎ’가 평성으로 실현되고 후행하는 어미가 거성으로 실현되는 환경이라면 성조 축약이 일어날 기본 조건은 충족된다. 그런데 실제로 성조 축약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32) 가. 싱각게[HHH](월석12:6), 싱각고[HHH](월석7:5),

나. 아니코[LHH](석보9:25), 아니타[LHH](석보 서:2)

(32)의 가는 ‘ㅎ’가 완전히 탈락하는 경우이고 (32)의 나 ‘ㅎ’이 남아 유기음화를 일으키는 경우이다. (14가, 나)는 원래 ‘ㅎ’가 없어지지 않았다면 ‘ㅎ게, ㅎ고, ㅎ괴, ㅎ다, ㅎ디’ 등이 모두 ‘LH’로 실현된다. 그런데 ‘ㅎ’가 줄어들었을 때 상성으로 축약되는 대신 ‘ㅎ’의 원래 성조 ‘L’만 단순히

탈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2)는 평성 음절의 모음이 탈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평성 모음 제약’을 위반하여 성조 축약이 일어나지 않은 사례이다.

이상과 같이, 중세 한국어에서 성조 축약의 양상은 비음절화의 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중세 한국어에서는 평성과 거성 음절이 결합하여 한 음절로 준다고 해도 성조 축약이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기존연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제약을 제안하였고, 이것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조 축약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는 적지 않은 예외들이 있다. 중세 한국어에서 평성 음절과 거성 음절이 합쳐지면서 성조 축약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울동 제약과 평성 모음 제약을 둘 다 충족시켜야 한다.

성조 축약이 일어나는 사례 중에는 축약의 과정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나, 누, 쇼’ 등과 같은 1음절 체언류에 목적격 조사나 관형격 조사가 결합할 때 보여 주는 성조 축약은 여전히 기술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경우의 성조 축약도 울동 제약이나 평성 모음 제약을 어기지 않는지만 그 양상을 근본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한다. 앞으로 이런 예외 목록을 일관성 있게 해석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중세 문헌어에 사용된 표준어는 성조 중에서 저조와 고조는 동북방언의 것이고 상승조는 경북방언의 것이며 부사형어미 ‘-아’가 모음소조화를 어기는 예들은 동북방언(또는 경북의 해안 방언)의 것이고 문 속에 의문사가 있고 없음에 따라 달리 실현되는 특수 의문종결어미들은 동남방언의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 외의 문법형태소나 어휘가 어느 방언의 것인가 하는 것과 특히 표준어 제정 과정과 『훈민정음(訓民正音)』(예의(例義))에 명시되어 있는 모음소들의 설명은 어느 방언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음절이 축약될 때 발생하는 성조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양상은 비음절화에 따라 각각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두 가지 제약 원리를 설정하였지만, 법칙에 부합되지 않고 많은 예들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또한 1음절 체언류에 조사가 붙는 경우는 설명할 수 없고, 이는 이 시기의 성조 변화 양상이 혼란한 상황이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 IV. 현대 한국어의 성조와 음조

한국어 성조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방언의 운소체계를 분석해야만 한다. 공식적 관점에서의 방언 분석을 통해 한국어의 성조체계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현대 한국어에 담았다고 추정되며 성조의 흔적으로 판단되는 함경방언과 경북·경남방언을 중심으로 그 운소체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 1. 함경방언의 성조와 음조

함경방언은 성조 연구 중 상승조 연구에 많은 기여를 한다. 이 절에서는 함경방언의 음고 체계를 살펴보고 그 음운론적 의의를 확인하여 보고자 한다.

#### 가. 함경방언의 음고체계

함경도 지역의 방언에서는 대부분이 고조와 저조가 시차를 지니고 있는데,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의 경우에 상승조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각 음고의 변별적인 대립에 대하여 최소 대립어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 관계가 곧 해당 음고의 운소적 자격을 확정해주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유필재(2001)는 이론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관계로도 이해할 수 있다.

(33) 호박[白] : 호박[南瓜]  
⇒ /∅∅/ : /H∅/ (경흥)

⇒ /∅∅/ : /R∅/ (길주)

즉 Goldsmith(1994)에서 처리하는 방식처럼 기저 표상에는 유표적 음고를 제외한 아무 표시가 없고, 표면 음성 실현 단계에서 여기에 기정치 성조(default tone)인 저조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이를 기술해도 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함경 지역 방언의 음고를 이해하는 데는 음운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본고는 상승조와 저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1) 상승조

박진혁(2018)는 함경방언에서의 상승조를 일반적으로 형태소 경계에 속하는 상승조와 내부의 상승조로 구분하였다. 이 중에서 형태소 경계의 상승조는 김봉국(2004), 박진혁(2014), 이문규(2017) 등의 처리에서 보듯 한 음절에 병치된 저고복합조이거나 개별 음절에 개별적으로 고조, 저조로 해석될 수 있다.

형태소 내부의 상승조는 다시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기원적으로 원래 별개의 음절임이 명백했던 경우인데, 어중자음 탈락 이후 모음이 연접, 동화하면서 이들이 원래 갖고 있던 저조, 고조가 연접한 결과로 상승조가 실현된 결과이다. 이는 박진혁(2014)의 경흥방언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34) 가. 동삼에 조선아덜이 넘어온다니.

([LLH LLHLL LHLLL])

(겨울에 북한 사람들이 넘어오지.)

나. 개나 빠르 널[嚙]어 먹디([HL LL RL LH]).

(개나 뼈를 물어뜯어 먹지.)

다. 거 오래두 좇넌다([H LHL LRL]).



(거 오래도 곱씹어 말한다.)

(35) 널[囁]고([RL]), 널더라([RLL]).

(34)는 경흥방언 자료이며 각각 중세 한국어에서 ‘아희(평거)’, ‘너흘-(평거)’이었던 것들이다. 둘 다 어중 자음 ‘ㅎ’의 탈락 이후 순행적 모음동화가 이어진 경우인데, 이들의 음고 실현은 그 성격이 다르다. ‘아[兒]’는 (34)의 가를 통해 알 수 있듯 비어두 음절에서 고조로 실현되지만, ‘널[囁]’은 (34)의 나, (34)의 다에서 보듯 비어두 음절에서도 상승조를 유지한다.

중세 한국어의 상성은 비어두 음절에서 실현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4)의 가는 상승조 또는 저고 복합조로 판단할 수 있지만, (34)의 나, (34)의 다는 여전히 2음절인 ‘너얼(LH)-’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최명옥(1998) 및 이문규(2017)에서도 지적하고 있듯, 만일 (34)의 나, (34)의 다를 한 음절에 놓은 단일 상승조로 본다면 이는 함경방언에 비어두 음절에서도 실현 가능한 특이한 상승조가 있다는 결과가 된다. 한편 (35)은 (34)의 나에 대응되는 길주방언 자료인데, 비어두음절의 예들이 보이지 않으나 역시 이들도 (34)의 나와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또 다른 유형은 기원적으로 두 음절이 아니었던 단어의 경우이다. 곽충구(1991)의 길주방언 사례를 살펴보자.

(36) 가. 말[語]이([RL]) - 잔말이([LHL])

나. 속[內]에([RL]) - 물속에([LHL])

(36)의 가는 저조인 ‘잘(細)-’이 접사화한 ‘잔-’과 결합하여 파생어를 형성한 경우이고, (36)의 나, (36)의 다는 고조인 ‘물(水)’과 결합하여 합성어를 형성한 경우이다. 위와 같이 둘 다 비어두 음절에서 고조로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승조가 비어두 음절에서 실현되지 못하는 점이나, 이것이 항상 고조로 실현된다는 점에서는 (35)의가와 같다. (36)의 예들을 앞서의 (35)의가와 평행하게 상승조로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기원적으로 그 성격이 서로 다른 단어들이므로 이것만으로는 이들 단어의 상승조가 저고 복합조인지, 단일 굴곡조로서의 상승조인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예를 더 살펴보자.

(37) 가. 감[柿]꽃으([RLL]) - 감나무가([<sup>-</sup>L LLH]) (길주)

나. 감으([HL]) - 감나무느([LLLH]) (경흥)

함경방언의 ‘감[柿]’은 위 (37)에서 보듯 어두 음절에서 각각 ‘상승조(길주)’, ‘고조(경흥)’로 실현된다. 이들이 저조 후행 어기인 ‘나무’와 결합하여 합성어를 형성하면 각각 ‘상승조~저장조(低長調)(길주)’, ‘저조(경흥)’로 교체되는 양상을 보인다. 여기에서 주목하여야 할 표면 상승조의 교체 양상은 (37)의가에서 실현되는 ‘저장조’이다. (37)의나의경흥방언고조는 같은 환경에서 저조로 교체되므로 양자가 형태적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동일 합성어 형성의 결과물이며 후행 어기가 저조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공통점을 감안한다면, 양자는 결국 저조 앞에 인접한 고조가 저조로 교체된다고 일반화시키는 것이 자연스럽다. 즉, (37)의가의상승조는 음운론적으로는 저고 복합조인 ‘L·H’이므로 후행 인접한 저조 앞에서 고조가 저조로 교체되어 저저 복합조 ‘L·L’이 되었으며, (37)의나의고조도 역시 후행 인접한 저조 앞에서 고조가 저조로 교체되는 것이다. 양자를 서로 이질적인 규칙의 결과물로 보는 것보다는, 이처럼 같은 규칙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함경방언의 상승조는 결국 운소적 자격을 갖지

않는 ‘저고 복합조’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이를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38) 가. 기원적으로 2음절이었던 단어가 어중자음 탈락 및 음절 축약으로 인해 단음절어가 된 경우, 여기에서 확인되는 상승조는 저조와 고조가 한 음절에 병치된 저고 복합조로 판단할 수 있다.

나. 기원적으로 중세 한국어의 상성에 대응되는 상승조의 경우에도 역시 저고 복합조로 판단할 수 있다.

위의 (38)은 통시적 정보와 공시적 음고 실현 양상, 특히 음고의 교체와 관련한 규칙 적용을 검토한 결과이다. 최소대립어를 통한 음고의 변별성 확인만으로는 해당 음고의 운소 여부 판단 근거가 충분하지 못한 점이 음고와 관련한 음운 과정 및 관련 규칙의 검토는 음고의 음운론적 성격 파악에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 2) 저조

그간의 함경방언 음고 관련 논의들에서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함경방언의 저조는 통시적으로 중세 한국어의 평성에 대응하며 그 음고 실현 측면에서도 무표적인 음고이다<sup>21)</sup>. 이는 함경방언 저조 어간의 곡용형, 활용형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39) 가. 금[金], 집-[執]

⇒ 금으([LH]), 금보다([LHL]), 금부터([LLH]), 금에서([LHL])

---

21) 여기에서 저조가 무표적이라는 것은 음운론적으로 투명한 존재여서 언중에게 지각되지 않음을 뜻한다.

⇒ 집구([LH]), 집어서([LHL]), 집더라([LHL]), 집우무([LLH])

나. 바람[風], 승점-[淡]

⇒ 바람으([LLH]), 바람보다([LLHL]), 바람부터([LLLH]), 바람에서([LLHL])

⇒ 승점구([LLH]), 승점어서([LLHL]), 승점더라([LLHL]), 승점우무([LLLH])

다. 부수럼[瘡], 어리석-[愚]

⇒ 부수럼으([LLLH]), 부수럼보다([LLLHL]), 부수럼부터([LLLLH]), 부수럼에서([LLLHL])

⇒ 어리석구([LLLH]), 어리석어서([LLLHL]), 어리석더라([LLLHL]), 어리석우무([LLLLH])

위의 (39)를 곡용, 활용 어절의 표면 음고 실현 과정에서 저조 어간은 음운론적으로 명확하다. 앞서 (33)의 ‘호박[白] : 호박[南瓜]’에서와 같이 아예 기저 표상에서 저조를 명세하지 않는 편이 보다 명확한 음운론적 기술이 가능하다. 그러나 아래의 예를 살펴보자.

(40) 가. 새(鳥, /L·H/) - 새집이([<sup>-</sup>L LH]),

감나무가([<sup>-</sup>L LLH]) (길주)

가'. 새(鳥, /H/) - 새집이([LLH]), 감나무느([LLLH]) (경흥)

나. 녹디(綠豆, /LH/) - 녹디길굼(숙주나물)우([LLLLH]) (경흥)

다. 발(足, /H/) - 발등으([LLH]) (경흥)

라. 불(火, /H/) - 부삽우([LLH]) (경흥)

위의 (40)은 합성어의 후행 어기가 ‘집(家, L)’, ‘나무(木, LL)’, ‘길굼(LL), 등(背, L), 삽(鋤, L)’인 예들인데, 보는 바와 같이 후행 어기의 어두 저조에 인접한 선행 어기 고조가 모두 저조로 교체된다. 이때의 저조는 음고

교체의 결과이자 그 규칙의 조건 환경이므로, 이러한 표면 음고형을 얻으려면 저조의 기저 음고 정보가 명시되어야 한다.

이것이 합성어라면 기저 음고 명세가 없는 후행 어기와 결합하는 선행 어기의 고조가 저조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경흥방언에서 확인되는 아래의 예들은 이러한 기술이 적용되지 않는다.

(41) 가. 물(水, /H/)+가매티(누룽지, /LLH/) → 물가매티르([LLLHL])

나. 술기(車, /LH/) + 바퀴(輪, /LH/) → 술기바퀴르([LLLHL])

다. 놀가지(獐, /LLH/)+고기(肉, /LH/)->놀가지고기르([LLLLHL])

(41)는 합성명사의 두 어기가 모두 고조를 갖는 예들이다. 그런데 앞서의 (40)과 마찬가지로 이들 역시 선행 어기의 고조, 특히 후행 어기 어두 저조와 인접해 있는 고조가 저조로 교체되는 것을 볼 수 있다. (40)과 (41)의 공통점은 모두 후행 어기의 어두 저조와 인접한 고조의 저조화라는 것이다. 물론 이들 또한 해당 합성명사의 표면 음고 도출 과정에서 후행 어기의 고조가 우선적으로 필요하여 선행 어기의 고조가 저조화되는 경우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하의 예와 같이 선행 어기의 고조 대신 후행 어기 고조가 저조화되는 경우는 이러한 기술과는 차이가 있다.

(42) 가. 쉬(蠅卵, /H/) + 파리(蠅, /HL/) → 쉬파리르([HLLL])

나. 개(犬, /H/) + 죽(粥, /H/) → 개죽우([HLL])

다. 갈비(肋, /LH/) + 뼈(骨, /H/) → 갈비뼈르([LHLL])

이상의 분석을 통해 함경방언의 저조는 음운론적으로 분명하지 못해서 기저 및 그 도출 과정에서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음운론적 정보임을 알 수 있다. 저조는 앞서 (34)에서 보듯 ‘최소 대립어에 의해 확인되는 변별적

음고'인 동시에, 표면 음고 도출 과정에서도 반드시 그 기저 명세가 필요한 음고이다. 그렇다면 함경방언의 저조는 고조와 마찬가지로 운소의 자격을 갖는 음고로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논의해 온 상승조와 저조의 음운론적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함경방언은 고조, 저조의 2음고 체계를 갖는 방언이라고 할 수 있다.

## 나. 음고 실현 단위의 음운론적 기술

### 1) 음고 조치(調值)의 음운론적 인식 문제

음고는 음파의 진동수, 특히 기본 주파수(F0)의 값에 따라 물리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대상이지만, 화자의 음고 인식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별개의 TBU(tonal bearing unit)에 놓여 있으면서 서로 높낮이가 다른 두 음고 사이의 상대적 차이로서 인식한 결과이다.

키모그래프(kymograph)를 이용하여 함북 북청방언 음고 자료의 기계 분석까지 최초로 시도했던 리극로(1963)에서는, 그 음고를 기술하기 위하여 이를 '공통조'의 '1(고조, 높은 소리)', '2(평조, 편편한 소리)', '3(저, 낮은 소리)'으로 수치화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음고 조치의 절대적 수치나 물리적 속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리극로(1963)의 '1~3'은 각각 경남방언의 고조, 중조, 저조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결국 상대적 음고 차이를 심리적으로 등급화한 기술과 비슷하다.

함북 회령, 경성, 함주방언의 단어 음고를 기계 분석한 전학석(1993)에서도 토박이 화자가 갖고 있는 음고 인식을 음운론적으로 기술하는 기본 입장은 동일하다. 먼저, 전학석(1993)에서는 김영만(1974)의 홍남방언 음고 기술을 비판하면서, 회령, 경성, 함주 지역 단음절어 음고를 기계적으로 분석하면 저조는 끝에서 약 10Hz 가량의 상승이 확인되며, 고조의 경우는



중간 부분이 약 5Hz 가량 솟는 굴곡이 확인되지만 해당 지역 토박이 화자는 이를 평판조로 인식함을 밝히고 있다.

또한 전학석(1993)에서는 다음절어에서 ‘저⇒고’, ‘고⇒저’로 이어지는 일련의 표면 음고 배열을 기계로 분석해보면 점진적으로 그 수치가 상승, 하강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지만, 해당 지역 화자는 해당 단어 전체에서 가장 높은 조치(調値)가 놓이는 음절만을 고조로 인식한다고 밝히고 있다. 전학석(1993)의 ‘고사리(蕨)’를 예로 들어보자.

(43) 가. 고사리(/LLH/) (단위: Hz)

⇒ ‘고사리 +를(LLHL)’ : 147 - 175 - 215 - 169

나. 고사리 + 채(菜, /H/) → 고사리채 +를([LLLHL])

(43)의 가는 ‘고사리’의 음고를 기계로 분석한 결과이다. 수치상으로만 본다면 ‘고사리’는 어두에서 비어두 음절로 갈수록 약 30~40Hz 가량의 단계적 상승이 이루어졌지만, 이것이 대격조사 ‘를(H)’과 결합하여 형성한 어절단위의 음고를 보면 고저 교체에 따라 저조화된 대격조사의 음고가 고사리의 제2음절과 수치상 큰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전학석(1993)의 지적에서와 같이 이 방언 화자의 음고 인식에서는 오직 고사리의 말음절이 갖는 고조만 유일 고조로 인식되고, 곡용 어절 형성 단계에서 나타나는 조사의 저조화 역시 인식 가능한 것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수치상의 물리적 배열 양상은 음운론적으로 의미가 없다. 대격조사의 저조화를 유발하는 음운론적 조건은 오직 선행 어간의 기저 성조 배열에 고조가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를 더욱 명시하는 예로서 (43)의 나와 합성어 형성이다. (43)의 나와 고조어기인 ‘채’와 결합하여 ‘고사리채(고사리나물 반찬, /LLLH/)’를 형성

한 결과가 다시 대격 곡용형으로 나타난 것이다.

전체 어절의 표면 음고 배열을 결정하는 요소는 오직 ‘채’의 고조일 뿐  
이므로, (43)의 나는 결국 음고의 물리적 수치 배열과 무관한 음운론적 성  
조 변동과정의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곽충구(1991), 최명옥  
(2004), 박진혁(2014) 등의 논의에서 함북 지역의 어절 이하 단위에서는 오  
직 하나의 고조만 표면에서 실현 가능하다는 조건을 공유하고 있는 것도  
결국 해당 지역 토박이 화자의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  
다.

이 점에서 볼 때 함남 북청방언를 다룬 Ramsey(1978)의 논의는 매우 이  
질적인 편이다. Ramsey(1978)에서는 북청방언의 음고를 일본어의 악센트  
와 같은 부류로 보고, 그 ‘pitch fall’ 위치에 따른 저조, 고조 배열 양상을  
규칙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북청방언의 음고를 일본어 악센트와  
같이 처리하여 어두 첫 모라를 제외한 나머지 모라와 ‘pitch fall’ 위치 사  
이에 고조가 연쇄된다고 기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학석(1993)에  
서도 비판하고 있는 것처럼 이는 실제 음고 실현 및 이에 대한 토박이 화  
자의 인식과는 거리가 있다고 한다.

## 2) 어절 이하 단위의 음고

허웅(1955)에서 굴절 환경의 음고 실현 양상을 기술하면서 처음으로 ‘어  
절’ 개념을 설정한 이래, 이 단위는 한국어 방언의 음고 기술에서 기준 단  
위로 활용되어 왔다. 물론 김차균(2002), 이문규(2001, 2014, 2017), 박숙희  
(2005) 등에서는 ‘어절’ 개념을 성조형 및 그 결합과 관련한 단위로 규정하  
므로, 최대한 문장 단위까지도 어절의 형성 단위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현  
재까지 알려진 함경방언 논의들에서는 대개 체언, 용언 어간을 음절수에  
따라 정리하고 대치 틀에 따라 그 기저 음고 배열을 확인한 다음, 이를 해

당 방언의 조사, 어미와 결합시켜 그 음고 변동 여부를 기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선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조사, 어미 등의 문법형태소가 갖는 음운론적 잉여성이다. 다시 말하면 체언, 용언 어간이 곡용, 활용 어절을 형성하면서 실현되는 음고 배열 양상을 음운론적으로 기술할 때, 조사나 어미의 표면 음고 실현이 어간 음고 정보나 특정 음고 배열형에 따라 자동적 예측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경흥방언의 이하의 예들을 통해 이 문제를 검토해 보자.

(44) 가. 바람(風, /LL/)

: 바람우([LLH]), 바람에([LLH]),  
바람보다([LLHL]), 바람에서([LLLH])

나. 콧구냥(콧구멍, /LLL/)

: 콧구냐~아([LLLH]), 콧구냐~에([LLLH]),  
콧구냥보다([LLLHL]), 콧구냥에서([LLLLH])

(44)는 저조 어간의 곡용형이다. 경흥방언의 저조는 굴절 환경에서 무표이므로 해당 어절에서 실현되는 고조는 일단 조사에서 나온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문제는 이것이 조사의 기저 명세에서 나온 것인지의 여부이다. ‘저조 연쇄로 이루어진 성조형은 일괄 마지막 음절이 표면에서 고조로 실현된다.’라는 규칙을 설정할 수 있다면 조사의 기저 음고는 잉여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를 음절 수 및 고조의 위치 등에 따라 유형화한 음조형, 성조형으로 다루는 편이 보다 명확한 기술인 것이다.

그러나 조사 ‘보다’ 결합형을 보면 이와 같은 규칙 설정 및 음고 배열 유형으로 일반화하는 처리가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바람보다([LLLH]), 콧구냥보다([LLLLH]) 등의 표면 음고 실현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표면 음고 도출을 위해서는 ‘보다’의 기저 음고를 ‘/HL/’로 보고, 이것이 그대로 전체 어절의 표면 고조로 실현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는 파생어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만일 접사의 기저 음고 정보가 많다면, 해당 파생어의 음고 실현은 오직 어기의 고조 위치에 따른 음고 배열 형으로 기술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러나 경흥방언에서 확인되는 이하의 예들은 이러한 처리가 옳지 않음을 보여준다.

- (45) 가. -네(복수형 접미사, /H/)  
           : 안간(婦女, /LL/)네([LLH]), 예미(婦女, /LH/)네([LLH])  
 나. -꾸레기(꾸러기, /LHL/) : 잠(眠, H)꾸레기([LLHL])  
 다. -을래기(/LHL/)  
           : 뿌릴(散, /LH/)래기([LLHL]), 털(打, /H/)래기([LHL])  
 라. 사·피동 접사(/H/) : 살(生, /H/)구다([LHL]) (경흥)  
           살(生, /L·H/)구다([LHL]) (길주)

(45)은 저조, 고조 어기와 결합하는 접미사의 음고 실현이 나타난다. (45)의 가에서 보듯 저조 어기와의 결합을 통해 해당 접미사의 기저 음고가 고조임이 확인되며, (45)의 나-라의 예를 통해서는 어기가 고조, 상승조인 경우에도 이들 접미사의 고조만 전체 파생어의 유일 고조로 실현된다.

전학석(1993)에서는 이를 ‘고조가 두 개 이상 연결될 수 없다’고 기술하였고, 박진혁(2004)에서는 이를 어절 및 단어 단위의 표면 고조 배열에 대한 제약으로 제시했다. 이들 제약 및 저조화 규칙의 대상이 되는 고조는 물리적 조치로 규정되는 음고가 아니라 형태소 단위 내에서 해당 방언 토박이 화자의 심리적 등급화에 의해 상대적으로 인식된 유일 고조이다.

### 3) 어절 이상 단위의 음고

종래의 한국어 방언 음고의 기술 단위는 어절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어절은 결국 한국어 음고의 어휘적 의미 변별 및 분석적 측면에서 그 운소적 특성을 확인하는 단위이다. 어절을 한국어 방언 음고 기술의 최종 단위로 보기가 어렵다.

현재까지 함경방언 음고 관련 연구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다룬 논의는 없으며, 본고에서는 박진혁(2014)의 3.4에서 다룬 경흥방언 자료들을 중심으로 함경방언 음고 기술 단위의 확장 가능성을 살펴보자.

- (46) 가. 이말으([HLL]), 이밥우([HLL]), 이아들으([HLLL]),  
이토끼르([HLLL])  
나. 더말으([HLL]), 더밥우([HLL]), 더아들으([HLLL]),  
더토끼르([HLLL])  
다. 그말으([LLH]), 그밥우([LHL]), 그아들으([LLHL]),  
그토끼르([LHLL])

위 (46)는 ‘지시 관형사 통합 구성’의 예를 보인 것이다. 이들 자료를 검토한 결과를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지시관형사 + 명사’의 통합구성이든, 대격 곡용이 끝난 전체 단위에서든 (46)에서는 오직 하나의 표면 고조만 확인된다. 둘째, ‘이’와 ‘더’는 언제나 해당 단위의 유일 표면 고조로 실현된다. 셋째, ‘그’가 통합된 구성에서는 피수식 명사가 포함된 대격 곡용 어절의 음고 변동 양상만으로 고조의 위치가 결정된다.

### 4) 함경방언 음고의 유형론

음고를 운율 요소로 갖는 언어는 성조언어, 악센트언어, 강세 언어의 세 가지가 있으나, 이 중에서 함경방언의 음고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갖는

개념은 성조와 악센트이다. 그러므로 함경방언의 음고를 성조, 악센트 중 어느 쪽으로 판별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들 각각의 음운론적 특성을 정리하여 앞선 논의와 대조할 필요가 있다.

먼저 악센트의 음운론적 특성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박진혁, 2014). 첫째, 악센트언어의 표면에서 확인되는 음고 배열은 곧 해당 단어의 ‘단어 가락(word melody)’에 따른 일련의 표면 음고 할당 결과이다. 이 음고 배열을 결정짓는 음운론적 표지는 해당 언어에서 음운론적으로 유의미한 음고의 단어 내 위치이거나, 어떤 단어 가락의 음고 배열 양상이 전환되는 위치 표지이다. Ramsey(1978)의 논의에서 북청방언의 표면 음고 배열을 결정짓는 ‘pitch fall’은 곧 해당 단어 내지 어절에서 고조의 연쇄가 끝나고 저조의 연쇄로 전환되는 지점이다. 이는 여러 차례 지적된 바와 같이 일본어의 표면 음고 배열을 악센트로 기술하는 방법이다.

둘째, 악센트언어의 음고는 ‘성조적 대칭성(tonal symmetry)’을 갖지 않는다. 표면에서 간취되는 음고는 둘 이상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중에서 악센트 기술의 대상이자 기저 명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해당 언어의 유표적 음고 중 하나이다. 그 밖의 음고는 기저 명세의 대상이 아니며, 표면 음성 실현 단계에서 자동적으로 할당되는 ‘기정치 성조(default tone)’이다. 이들 기정치 성조는 음운론적으로 투명한 존재들이어서 교체, 탈락 등의 음운 과정 및 관련 규칙 기술과 무관하다. 이로 인하여, 악센트언어의 표면 음고 실현은 그 유표적 음고의 위치 등에 따라 그 배열 양상을 예측할 수 있다.

셋째, 악센트언어의 음고 명세 최소 단위는 단어이다. 어절을 포함한 해당 단위의 표면 음고 배열을 결정짓는 음운론적 표지는 모두 단어에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문법형태소는 악센트 기술을 위한 음고 명세의 단위가 아니다.



다음으로 박진혁(2014)의 악센트와 구별되는 성조의 음운론적 특성을 정리하면, 악센트의 속성에 대응하는 이하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성조언어의 단어 및 어절에서 확인되는 표면 음고 배열은 곧 어휘 부 내에 기저 명세된 음고의 도출 결과이다. 그러므로 각 음고의 기저 명세 정보 및 표면 음성 도출 과정의 규칙 적용 여부 등을 알지 못하면 해당 단위의 표면 음고 배열 양상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둘째, 성조언어의 음고는 ‘성조적 대칭성’을 갖는다. 표면에서 파악되는 음고가 운소 자격을 갖는 것으로 인식되면, 이들 중 어느 하나라도 빼놓고는 해당 단어 및 어절의 표면 음고 배열 양상을 기술할 수 없다. 특히 언어에 따라 셋 이상의 음고, 특히 평판조의 계기적 연결 내지 병치로 해석되지 않으면서 운소 자격을 갖는 굴곡조의 존재가 확인된다면 이를 성조언어로 분류할 수 있다.

셋째, 성조언어의 음고 명세 최소 단위는 형태소이다. 김성규(2009a), 이문규(2011) 등에서도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성조언어의 전형적 사례인 한어(漢語) 역시 다음절어가 많고 이를 구성하는 개별 음절은 곧 접사, 어기 등의 형태소로 판별하는 것이 적절하다. 특히 문법형태소의 기저 음고 명세정보가 전체 단위의 표면 음고 도출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상에서 성조와 악센트가 갖는 음운론적 특성을 대조한 결과를 알아보면, 박진혁(2014)에서 이하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함경방언의 음고가 이들 중 어느 쪽에 부합되는지 검증할 경우 함경방언의 음고를 성조, 악센트의 어느 한 쪽으로 판별할 수 있게 된다. 논의의 진행을 위하여 앞서 기술한 함경방언의 자료 검토 및 기술 결과를 정리하면 이하와 같다.

(47) 가. 음고 체계

저조, 고조의 2단 체계이며, 이들 모두 변별적 음고이다. 한편 이 지역의 표면 음성 실현에서 간취되는 상승조는 개별 음절에 놓인 저조, 고조의 계기적 연결이거나 한 음절에 병치된 저고 복합조이다.

나. 표면 고조의 음운론적 해석

기계적 분석을 통해 확인되는 F0의 물리적 진동수와 무관하며, 토박이 화자의 인식 및 심리적 등급화에 따른 유일 고조만이 음고 관련 음운 과정의 기술 대상이다.

다. 음고의 최소 명세 단위

단어는 물론 조사, 어미, 접사 등의 문법형태소 또한 기저 음고 명세가 필요하다.

라. 기저 음고 명세 방식

음절 수에 따른 고조, 저조의 완전 명세가 필요하다.

마. 표면 음고 배열 예측 가능성

저조 역시 고조의 저조 교체와 관련된 음고 변동 규칙의 결과 및 조건 환경이므로 음운론적으로 불투명한 존재이다.

바. 음고 기술 단위

표면 고조 배열 제약과 저조화 규칙이 확인되는 단위는 종래의 어절 단위와 마찬가지로 그 음고 변동 양상을 기술하여야 하는 단위이다.

위의 (47)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47)의 가, 다, 라, 마인데, 이들은 모두 악센트보다는 성조의 특성에 부합된다. 특히, 저조의 성조적 대칭성 및 음운론적 불투명성, 형태소 단위의 기저 음고 완전 명세 등의 정보를 고려하지 않으면 해당 어절의 표면 음고 배열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상의 검토 결과를 받아들인다면 함경방언의 음고를 악센트보

다 성조로 판별하는 것이 적절하다.

결론적으로 함경방언은 동남방언에 비해 성조소 체계나 그 성조 변동 양상이 상대적으로 덜 복잡하지만, 해당 지역의 원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어 성조방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논의에서 함경방언을 다루고자 할 때에는 주로 해당 지역 연구자들의 논의 및 본고에서 제시한 자료를 2차적으로 활용해 왔다. 또한 음고의 유형론에 대한 이론적 검토가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성조라는 술어를 흔히 사용하면서도 막상 함경방언의 고저 음고가 성조가 되는지 의문이 많았다.

## 2. 경북방언의 성조와 음조

동남방언이라고도 지칭되는 경북방언의 성조에 대한 연구는 현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경북방언은 성조언어에 속한다. 기저형에 성조가 함께 표시되어야 하며, 성조 중에서 ‘말[斗]’류의 성조는 고조로 보았다. 방언의 구획은 일반적으로 서부 지역과 그 밖의 지역으로 구분되지만 성조 실현이라는 측면에서는 크게 중남부, 동부, 서부, 중북부 등으로 나누어진다.

### 가. 형태소 단위의 성조 실현

성조방언에 있어서 성조 실현에 대한 최소의 단위는 형태소 단위에서 실현된다(김성규, 2009). 중국어와 달리, 경북방언의 성조는 성조언어가 아니라 반론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성조는 형태소나 특정 단어를 변별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는 성조언어인 중국어와 마찬가지로 동일하다는 것이다.

중국어의 경우에는 음절마다 음고가 있지만, 한국어에서도 성조는 형태소나 단어로 실현된다는 점에서 한국어는 성조언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성조방언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경북방언의 경우에는 하나의 단어에 한 개의 고조만 있는 ‘말[馬]’류와 두 개 이상의 고조가 연속해서 실현되는 ‘말[斗]’류, 첫 음절에서 상승조로 시작되는 ‘말[語]’류를 설정하는 것이다.

기저성조의 존재와 관련된 문제는 기저형의 설정 조건을 고찰함으로써 알 수가 있으며, 장음을 가진 어간의 기저형에는 음장이 포함된다. 이렇게 음장이 기저형에 포함된다면 성조도 기저형에 포함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음운론적으로 기저형은 음소와 운소를 모두 포함하며, 운소인 성조도 포함된다. 예를 들면, 경북의 서부 지역에서 쓰이는 ‘유리창’의 성조는 보면, 유리창[LHL], 유리창이[LLHL], 유리창이라[LLLHL], 유리창이랴[LLLLHL]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각 음절에 따라 유리창이 다르게 나타나는 성조의 실현임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인접한 지역의 방언 성조에서도 어간 활용형이 ‘지꼬, 지찌, 지어’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활용형은 인접 지역 방언의 기저형을 고려한다면 ‘장-’으로 설정할 수 있다. ‘유리창’의 기저성조 설정에서도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경북의 동부 지역에는 서부지역에서 같은 규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유리창’의 성조는 ‘LLH’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때 경북 서부지역의 방언 성조에서 ‘LHL~LLH~LLL’로 나타나는 ‘유리창’의 성조는 ‘LLH’로 설정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말[斗]’류의 성조를 설정하는 것도 기저형의 설정과 관련이 있다. 기저형 설정 시에 교체가 없는 부분은 그것이 기저형의 일부로 바뀌게 된다. 이러한 조건을 성조에 적용하면, 교체가 없는 성조는 그 자체로

서 기저형에 포함된다. 실제 성조가 ‘HHL’로 나타나는 사례는 ‘이야기[HHL], 이야기가[HHLL], 이야기조차[HHLLL], 이야기조차도[HHLLLL]’ 등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야기’의 음소와 운소는 곡용어미와 결합할 때에도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동일한 성조유형을 보이는 ‘그림자, 무지개’ 등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야기’의 기저형을 구성하는 음소와 운소는 ‘이야기[HHL]’가 되는 것이 적절하다. 즉, 교체를 보이지 않는 성조는 그대로 ‘HHL’로 보아야 기저형 설정의 조건에 부합한다. 이렇게 고조가 두 음절 연속으로 실현되는 것은 ‘말[斗]’류에 속한다.

그러므로 ‘말[斗]’류 역시 저조보다는 고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말이, 말도, 말조차, 말이지요’ 등에서 그것의 성조는 ‘HH, HH, HHL, HHLL’ 등으로 실현되는바, ‘그림, 그림이, 그림도, 그림조차, 그림이지요’ 등에서 실현되는 성조 ‘HH, HHL, HHL, HHLL, HHLLL’와 동일하며 이것은 위에 제시한 ‘이야기[HHL]’의 성조 유형과 동일하다. 따라서 ‘말[斗]’류는 고조로 보는 것이 저조로 분류해야 한다.

입력형과 적용환경이 한 형태소에 있는 경우는 공시적 음운규칙이라 할 수 없다. 이 경우는 기저형의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뒹>짚’(稿)에 적용되는 구개음화는 통시적 규칙이다. ‘뒹’을 기저형으로 하여 공시적 음운규칙을 적용하여 후자를 도출해 낼 수 없다. 이와 유사하게, 형태소의 결합이 없어 교체도 없는 ‘이야기[HHL]’에 성조의 배열이나 결합과 관련된 어떠한 규칙을 적용하여 ‘HHL’을 생성해 낸다면, 이것은 기저형 설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저형은 그대로 ‘이야기[HHL]’가 되는 것이 적절하다.

## 나. 하강조의 설정

하강조를 기존의 논의에서 1음절에 실현되는 하강조 또는 고저복합조가 아니라 HL이 2음절에 실현되는 것이라는 관점에는 몇 가지 근거가 있다. 먼저 하강조는 ‘싸홀-(切)>썰[F]-’, ‘고으-(煎)>고[F]-’와 같이 대부분 통시적으로 2음절이 1음절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또한 상승조와 달리, 하강조는 제2음절 이하에서도 항상 제 성조를 유지하는바, 이는 하강조가 두 음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HL로 실현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전자의 이유와 관련하여, 일부 방언에서는 ‘사리[FL]’(사리나무), ‘두부[FL]’(두부) 등 통시적인 음절 축소와 관련 없이 하강조가 실현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경북에서 하강조로 실현되는 것 중에서는 중세 한국어의 상성에 대응되는 ‘재-’[測], ‘이-’[葺] 등이 존재하는 바, 이들은 ‘(키를) 켜다[FL], (지붕을) 인다[FL]’ 등으로 나타난다. 후자의 이유와 관련하여, 하강조가 제2음절 이하에서 제 성조를 유지하지 못하는 예가 있다.

(48) 가. 하마[RL](아랫마을), 상마[RL](윗마을)

나. 중마[LF](중간마을), 아랫마[LLF](아랫마을)

(49) 가. 남편감[HLL], 총리감[RLL]

나. 신랑감[LLF], 신붓감[LLF]

(48)은 하강조를 지닌 ‘마(村)[F]’의 성조 실현을 보여 주는 예이고, (49)는 역시 하강조를 지닌 ‘감(자격, 도구)[F]’의 성조 실현을 보여 주는 예이다. 또한 (48)의 가와 (49)의 가는 하강조가 제2음절 이하에서 제 성조를 유지하지 못하는 예이고, (48)의 나와 (49)의 나 는 동일한 환경에서 하강조



가 제 성조를 유지하고 있는 예이다. ‘마을’은 방언에 따라 ‘마알’로도 존재하지만 (49)에서와 같이 ‘마[F]’로도 나타난다. ‘마[F]’는 (48)의 가에서 보듯이, 제2음절 이하의 위치에서 제 성조를 유지하지 못한다. ‘감[F]’ 역시 (49)의 가에서 보듯이, 제 성조를 유지하지 못함을 볼 수 있다. 즉, (48)의 가와 (49)의 가는 성조 실현의 제약으로 인해 하강조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이렇듯 제2음절 이하에서도 하강조가 제 성조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하강조는 제 성조를 유지하는 2음절의 HL이라는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다.

하강조에 대한 다른 논의는 경북 서부 지역의 율동규칙과 관련된 논의에서 찾을 수 있다(임석규, 2003). 경북 서부 지역에서 율동규칙에 의해 저조로 실현되는 성조형은 끝에서 둘째 음절에 고조가 나타나는 ‘L<sub>1</sub> HL’ 형(하나 이상의 L로 시작하며 끝에서 둘째 음절에 고조가 실현되는 유형)이 나타난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잡혜고[LFL]’의 경우 접미사 ‘히’에서 변화한 ‘혜’는 일음절의 하강조로 인식하였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혜’를 이음절의 ‘혜에’로 파악하게 되면, ‘잡혜에고[LHLL]’가 되는바, 이는 끝에서 둘째 음절에 고조가 놓이는 ‘L1HL’형이 되지 못한다.

즉, 이 방언에서 실현되는 ‘LHL, LLHL, LLLHL’ 등의 율동규칙에 어긋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잡혜고[LFL]’에서 끝에서 둘째 음절에, 고조와 저조의 음성적 실현이 한 음절에서 이루어지는 하강조가 실현된 것으로 봄으로써 이 지역에서 실현되는 성조형과 일치하게 된다. 따라서 1음절에서 실현되는 하강조가 인정된다. 음라우트와 관련하여 ‘요담이[LFL]’가 ‘요댐이[LFL]’로 바뀌는 과정에서 하강조를 이음절로 보면 ‘요다암이[LHLL]’가 ‘요다앰이[LHLL]’가 된다(김봉국, 2004). 이는 결과적으로 음라우트가 적용된 음절은 일음절의 하강조라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분절음의 음성적 특징이 음운현상에 유용하듯이 고저조로 이루어진 하

강조 역시 음운현상을 설명하는 데에 유용하다. 예를 들어 경북 동해안 방언에는 ‘바꾸->바꿌-(換)’와 같은 변화가 발견된다. 이때 ‘LH’의 성조를 지닌 어간이 모음어미와 결합하는 ‘바꾸--+아→바까[LF]’에서 활용형의 성조는 ‘LF’로 된다. 이 활용형 ‘바까’를 ‘바꿌--+아’로 재분석하면 후음 말음어간으로 재구조와 비견될 수 있는, 후음 탈락 후 하강조화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하강조는 고조와 저조가 한 음절에서 실현된 것으로 보고 음장 방언의 ‘바뀌’와 성조 방언의 ‘바까’가 대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뀌 : 바까아’의 대비보다 낫다.

또한 경북 일부 지역에서 상승조가 하강조로 변화하는 경우가 있다. 경북 의성군 춘산면에서는 ‘말(語)++이’가 하강조로도 나타나 상승조 ‘마리[RH]’와 하강조 ‘마리[FL]’가 변화된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려면 하강조가 상승조와 동등한 지위를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 다. 성조에 의한 방언의 구획

성조에 의한 방언 구획은 최명옥(1994)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고저복합조의 실현 여부, 끝에서 두번째 음절에서의 고조 실현 여부, 저고복합조의 실현 여부, ‘LHHL’ 유형의 실현 여부 등이 방언을 구획하는 기준으로 제시되었다. 김주원(2000)에서는 ‘안+용언’의 성조 실현, 끝에서 두 번째 음절에서의 고조 실현 여부, 저고복합조의 실현 여부 등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임석규(2014)는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면서 6음절의 곡용형까지 확대하여 구분되었다.

경북의 서부(문경, 상주, 김천, 구미)는 항상 ‘L1HL’로 실현되는 것이 그 밖의 지역과 차이가 있다. 또한 경남의 서부와 ‘고성·통영·거제’는 5음절의 곡용형까지는 동일하나 6음절의 곡용형 ‘조선무시라도’에서 비로소 성

조형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경북의 경우는 저조로 시작하는 성조형은 ‘L1HL’로 실현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상승조의 실현에서 경북의 동해안 ‘영양, 청송, 울진, 영덕, 포항’은 ‘RL’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또 구분되므로 경북은 서부와 중부, 동부로 나누어진다.

또한 ‘안+용언’에서 나타나는 성조 현상을 방언구획에 이용할 수 있다. ‘안[H]#갔는데[HHL]’의 경우, 경북의 중부는 둘로 나뉜다. ‘안갔는데[HLLL]’로 실현되는 중부의 북부 지역의 ‘안갔는데[LLHL]’로 실현되는 중부의 남부(군위, 칠곡, 성주, 대구, 고령, 달성, 영천, 경산, 청도, 경주)로 나누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경북을 성조 현상을 기준으로 방언구획을 하면 네 지역(경북 서부, 경북 중북부, 경북 중남부, 경북 동부)으로 나누어진다(임석규, 2014).

## 라. 성조형의 변화 경향

성조형의 변화는 고조가 뒤 음절에 나타나고, 전체적으로는 경북 서부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끝에서 둘째 음절에 고조가 놓이는 L1HL 유형으로 변화하는 듯하며, 상승조 역시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경북의 서부에는 L1HL이라는 울동규칙이 존재한다(임석규, 2014). 이 말은 경북 서부의 ‘문경, 상주, 선산(구미), 김천’ 이외의 지역에서는 저조로 시작할 때, L1HL 울동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서부 이외의 지역에서는 ‘도라지[LHL], 도라지가[LHLL], 도라지조차[LHLLL]’에서와 같이 L1HL과 관계없이 성조가 나타난다.

그런데 이렇게 울동규칙과 무관하게, 두 요소가 결합할 때,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었던 성조형에 변화가 나타난다. 그 변화는 대체로 서부 지역에

서 보이는 성조형으로 바뀌거나, 상승조가 사라지는 것인데 이러한 변화가 ‘안+용언’으로 구성된 경우와(이문규, 1997) 합성어에서도 발견된다. ‘안+용언’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동’을 포함한 경북의 중북부 지역과 경북 동부 지역은 ‘안#차더라’는 ‘HLLL’로 나타나고, ‘안#갔는데’는 ‘HLLL’로 나타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런데 이것의 성조가 ‘안차더라[LLHL]’와 ‘안갔는데[LLHL]’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것이 곡용이나 활용에 확대된다면 경북의 중부와 동부 지역도 위에서 언급한 ‘L1HL’형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변화를 경북 전체로 확대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그 경향성은 이하와 같이 제시한다.

- (50) 두 요소의 결합시 후행요소의 고조가 실현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이 더 진행되면 L1HL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경향성은 경북 서부 이외 지역에서 겪고 있는 변화다. 경북의 서부에서는 저조로 시작하는 성조형의 경우, 이미 L1HL의 성조로 실현되고 있으며, 서부 이외의 지역에서도 서부와 같은 성조형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합성어의 예를 곡용형과 비교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합성어의 성조가 곡용에서의 성조 변동과 달라진 것은 합성어의 통시성을 보여준다.

합성어를 논의하는 것은, 공시적인 곡용과 비교하였을 때 성조 실현 양상에 차이가 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대비하여, 성조의 변화 방향을 예측하고자 함이며, 실제로도 유의미하다.

- (51) 곡용: HL+H => 선행요소의 고조가 유지됨.

가. 꼬리[HL]+꺼짐[HL] → [HLLL](꼬리+-까지)

(52) 합성어: HL+H => 선행요소의 고조가 유지됨.

가. 꼬리[HL]+쩍[H] → [HLL](꼬리쩍)

나. 오징어[LHL]+무침[HL] → [LHLLL](오징어무침)

다. 소냉기[LHL]+구름[HH] → [LHLLL](소나기구름)

(51)는 곡용에서 ‘HL+H’의 성조실현을 보인 것이고 (52)는 합성어에서의 성조실현을 보인 것이다. 곡용과 합성어에서 모두 선행요소가 ‘말(馬)’류 고조이면서 후행요소의 고조와 결합할 때, 선행요소의 고조가 나타난다. 이것이 일반적인 결합 양상이다. 그러나 아래의 합성어의 예에서는 동일한 환경에서 선행요소의 고조가 저조로 바뀌고 후행요소의 고조가 나타난다.

(53) 합성어: HL+H => 선행요소의 고조가 낮아지고 후행요소의 고조가 실현됨.

가. 모래[HL]+밭[H] → [LLH](모래밭)

나. 바지[HL]+저구리[LHL] → [LLLHL](바지저구리)

다. 까시[HL]+덤불[LH] → [LLLH](까시덤불)

라. 김치[HL]+국물[HL] → [LLHL](김치국)

(53)은 (51), (52)와 동일한 환경 ‘HL+H’에서 성조가 달리 나타나는 예이다. 여기에서는 (51), (52)에서 보이는, 선행요소의 고조는 그대로 나타나는 후행요소의 고조는 저조로 바뀌는 일반적인 실현 양상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후행요소의 고조가 나타난다. 이들이 일반적인 실현 양상을 따른다면 ‘\*모래밭[HLL], \*바지저구리[HLLLL], \*까시덤불[HLLL], \*김치국물[HLLL]’로 실현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고조가 뒤 음절로 이동하면서 후행요소의 고조가 나타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아래의 경

우, 선행 고조 위치와 상관없이, 고조가 끝에서 둘째 음절에서 실현되는 ‘L1HL’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후행요소의 고조가 나타나는 위의 예와 비교해 볼 때, 한 단계 더 변화를 겪어 ‘L1HL’형으로 나타난다.

(54) 합성어: HL+H => LHL로 실현됨.

가. 모래[HL]+논[H] → [LHL]~[HLL](모래논)

나. 김치[HL]+통[H] → [LHL]~[HLL](김치통)

(54)은 일반적인 성조변동을 겪은 (8, 9)와 다르고, 후행요소의 고조가 실현된 (53)과도 다르다. 주목할 점은 ‘\*모래논[LLH], \*김치통[LLH]’과 같이, 후행요소의 고조가 나타난 것도 아니다. 경북의 서부 지역에서 실현되는 성조 유형인 ‘L1HL’로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변화로 상승조의 소멸 현상을 들 수 있다. 아래의 예에서 상승조의 소멸을 알 수 있다.

(55) 변화1: 변화된 합성어 중 고조가 후행 요소의 고조에 실현된 것

가. 감[R]+홍시[HL] → [LHL](감홍시)

나. 호박[RL]+꽃[H] → [LLH](호박꽃)

다. 대추[RL]+낭기[HL] → [LLHL](대추나무)

위의 (55)은 상승조로 시작하는 선행요소가 후행요소와 만났을 때, 그 상승조가 유지되지 못한 예이다. 상승조 다음에 고조가 오는 지역은 RH로 나타나고, 위와 같이 상승조 다음에 저조가 오는, 동해안에 인접한 지역은 RL로 나타나는 차이만 있을 뿐 일반적으로 제1 음절의 상승조는 유지된다. 그러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성어에서 상승조가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고조는 후행요소의 고조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상승조가 나타나지 않고, 후행요소의 고조 역시 나타나지 않고, 위에서 보았던 ‘L1HL’형이 실현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56) 변화2: 변화된 합성어 중 고조가 선행 요소의 저조에 실현된 것

가. 담배[RL]+대[H] → [LHL]

나. 멘도[RL]+칼[H] → [LHL]

다. 배추[RL]+잎[H] → [LHL]

라. 호박[RL]+엿[H] → [LHL]~[RLL]

마. 담배[RL]+진[R] → [LHL]

(56)는 역시 상승조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55)의 예와 동일하지만, 고조의 실현이 후행요소에 있지 않다는 점은 차이가 있다. 후행요소의 고조가 그대로 실현되지 않고 ‘L1HL’형으로 실현되었다는 점은 성조의 변화 방향을 예측하게 해 준다. 그 변화는 위에서 제시한 두 경향성, 즉 ‘L1HL’유형으로의 변화와 상승조의 소멸을 의미한다. 전자는 경북의 서부에서 발견되는 변화며 후자는 상승조가 저조로 나타나는 경남에서 발견된다. 3음절어를 예로 들면 대체로 경남의 동부 지역은 ‘LHH’로, 경남의 서부 지역은 ‘LHL’로 나타나는바(임석규, 2014), 상승조는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경북의 서부 이외 지역은 경북 서부의 L1HL형으로 바뀌는 변화가 있고, 경남과 같이, 상승조가 없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경북 성조의 일반적 특징에 대하여 소략하게나마 고찰하였다. 경북뿐만 아니라 한국어의 성조방언은 성조언어이며, 기저형에 성조가 표시되는 것이 적절하다. ‘말(斗)’류의 성조는 잠정적으로 고조로 보고자 한다. 하강조는 상승조와의 관계, 변별적인 특징으로 말미암아 상승조와 마찬가지로 경북방언의 성조로 인정될 수 있다. 방언의 구획은 크게 서부와 그 외 지역으로 나눌 수 있으며, ‘RL/RH’의 대비, ‘안+용언’의 성조 실현

등을 고려하면, 경북 서부, 경북 중북부, 경북 중남부, 경북 동부로 나뉜다. 성조의 변화는, 고조가 뒤로 이동하면서 경북 서부의 성조형 'L1HL'로 바뀌는 것과, 상승조가 소멸되는 방향으로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 3. 경남방언의 성조와 음조

한국어 방언의 성조 연구가 시작되면서 많은 한국어 학자가 경남방언 성조가 지닌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시도해왔다. 그동안 경남방언 연구자들은 경남 도내 지역 방언의 성조를 조사함으로써 이를 공식적으로 기술하는 동시에 방언 간의 성조 대응관계 또는 성조의 통시적 변화 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경남방언의 성조에 관한 방대한 연구결과가 축적되었다.

#### 가. 경남방언의 성조소

경남방언의 성조에 대한 연구에서는 고조와 저조를 성조소를 수용하고 있다. 허웅(1954)은 방언의 음절 음조에 대해서 '말(語)'을 낮은 가락으로, '말(斗)'을 가운데 가락으로, '말(馬)'을 높은 가락으로 분류하였다. 이처럼 경남방언의 성조소를 세 가지로 분류한 연구는 문효근(1974), 김차균(1980)이 있다.

특히 김차균(1980)은 저조(L), 중조(M), 고조(H)의 음성학적 인식과 음운론적 판단을 15개의 등급으로 각각 제시하였다. 이처럼 김차균(1980)을 비롯하여 경남방언의 성조소를 세 개로 보고자 하는 것은 '말(語), 사람' 등의 첫 음절이 '해(太陽), 다리' 등의 첫음절보다 더 낮은 음역, 즉 가장 낮은 음역에서 실현된다는 음성적 실체를 중시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최명옥(1998), 김주원(2000) 등에서는 경남방언에 ‘저조’와 ‘고조’, 두 개의 성조소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최명옥(1990)은 화자들이 ‘말(馬)과 말(語)’ 또는 ‘말(斗)과 말(語)’의 고저 차이를 명확하게 구별하지만 ‘말(馬)과 말(斗)’에 대해서는 그 고저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김주원(2000)은 3-성조소 체계에서 각각 ‘[LM]’과 ‘[MH]’로 파악되는 ‘사람’과 ‘바람’의 첫 음절이 실제 음성에서도 고저의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는 ‘사람’에 비해서 ‘바람’의 음조가 일관되게 낮으며, ‘사람’과 ‘바람’의 음조가 1음절이 낮고 2음절이 높은 점에서 대체로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김주원(2000)은 경남 동부 지역 방언의 경우 ‘사람’과 ‘바람’의 각각 어절 성조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2음절 어휘에서는 변별력을 상실하여 같은 성조형으로 실현된다고 했다.

저조와 중조가 보이는 음고의 차이가 방언 화자들에게 음운론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며(최명옥, 1990), 실제 주파수 값에서도 저조와 중조의 차이가 없다는 점(김주원, 2000) 이외에도 경남방언의 성조소를 세 개로 보는 것에는 또 다른 문제점이 존재한다. 먼저, 저·중·고의 3-성조소 체계에서는 고조에서 단계적으로 하강하는 어절에서조차 표면에 ‘L’이 나타나지 않는다(임석규, 2003).

(57) 가. 삼십만년[HM3 = HMMM]

나. 대구에서부터만큼은[HM8 = HMMMMMMMMM]

(57)의 가, 나 는 김차균의 견해에 따라 각각 안동방언과 문경방언의 예이다. 모두 첫 음절에서 고조가 높이고 음고가 점차 낮아져 마지막 음절은 아주 낮게 발음됨에도 불구하고 그 표기에서는 ‘L’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는 임석규(2003)의 비판대로 “화자의 언어의식과 맞지 않는” 성조 표기이다. 또한, 경남방언을 저·중·고의 3-성조소 체계로 설정할 경우, 이 방언을 다른 방언과 비교하거나 대응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따른다(이문규, 2001). 경북방언이나 강원 영동방언의 ‘저조’는 음성적으로나 음운론적으로 경남방언의 ‘중조’에 대응된다.

김차균, 김세진 등의 3-성조소 체계에서는 방언 간의 통합적 기술을 위해 이들 방언의 성조를 ‘중조’와 ‘고조’만으로 표기한다. 그런데 이문규(2001)에서 제기하듯 이 방언의 화자들이 모든 소리를 높은 소리, 낮은 소리 그리고 긴 소리로 인식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중조’와 ‘고조’의 2단 체계는 방언 화자의 직관에 부합하지 않는다. 더불어 ‘저조’가 없이 ‘중조’와 ‘고조’를 둔다는 것은 체계적으로도 어색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경남방언을 3-성조소 체계로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해답은 경남방언을 ‘저조’와 ‘고조’로 이루어진 2-성조소 체계로 설정할 수밖에 없다. 말(馬)형에 속하는 ‘바람부터’에 관해 경북 방언은 ‘LLHL’로 표기하는 것이 실제 음성형에 근접한 반면, 경남 동부 방언에서는 ‘LHHL’로 표기하는 것이 실제 음성형에 근접하다고 알려져 왔다. 그런데 ‘바람부터’를 ‘LHHL’로 표기할 경우, ‘사람부터’와 같이 제2·3음절이 높게, 그리고 제4음절이 낮게 실현되는 말(語)형 어절과 표기상으로 구분이 불가능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주원(2000)에서는 말(馬)형 어절에 관하여 가장 높은 음절만을 하나의 ‘H’로 표기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이에 따르면 말(馬)형에 속하는 ‘바람부터’는 ‘LLHL’로, 말(語)형에 속하는 ‘사람부터’는 ‘LHHL’로 표기되어 두 성조형이 표기상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문규(2017)에서 주지하듯이 이러한 표기는 “순전히 음운론적인 판단일 뿐”, 경남·북의 말(馬)형 실현은 소리에서 차이가 있다.

김차균(2002a)에 따르면 말(馬)형 어절 ‘아주까리라도’가 경남방언에서는 ‘[MHMMMM]’으로, 경북방언에서는 ‘[MMHMMMM]’으로 실현된다. 일반 화자들은 이러한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지만 두 방언에서 ‘[MHMMMM]’와 ‘[MMHMMMM]’가 임의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 현상을 근거로 하였을 때 말(馬)형은 음고가 높아지는 음절의 위치나 음고 자체가 아니라 음고가 낮아지는 음절의 위치에 의해 변별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김주원(2000)의 표기 방법에 따라 방언 성조 자료를 표기하도록 한다.

#### 나. 경남방언의 성조형과 그 실현

허웅(1955)에서 성조 기술의 단위로 ‘어절’을 강조하고, 이 어절을 단위로 실현되는 ‘성조형’을 성조 기술의 대상으로 삼은 이래로, 김영만(1974), 김차균(1980), 김주원(2000) 등에서는 ‘어절 성조형’을 중심으로 한 방언 성조 기술을 수용하였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표기 방법이 다를 뿐 본질적인 내용은 같다. 경상방언의 성조형은 중세 한국어에서 각각 평성, 거성, 상성으로 시작되는 것에 대응하는 세 가지 유형으로 대별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남방언의 세 가지 성조형을 ‘말(馬)형’, ‘말(斗)형’, ‘말(語)형’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말(馬)형은 어느 한 음절이 두드러지게 높게 실현되는 성조형인데, 몇 번째 음절이 특히 높게 소리 나는가에 따라 하위 유형을 가진다. 이와 달리 말(斗)형과 말(語)형은 어절의 음절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실현되는데, 경남 동부방언에서 말(斗)형은 제1, 2음절이 높게, 말(語)형은 제2, 3음절이 높게 실현되는 성조형이다. 세 가지 성조형이 경남방언의 하위 방언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 1) 말(馬)형

앞서 소개하였듯 경남방언의 말(馬)형은 어느 한 음절이 두드러지게 높게 실현되는 성조형이다. 이에 따르면 n음절의 어절에는 n개의 (하위) 말(馬)형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경남 서부 방언의 경우 경남 동부 방언과는 다르며, 이것은 경남 서부 방언에서 말(馬)형 일부의 표면 성조가 ‘[L1HL]’ 즉 끝에서 둘째 음절에만 고조가 놓이는 성조로 바뀌는 현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58)의 가, 나,는 각각 창원·사천방언의 자료로, 첫 번째 음절에 고조가 놓이는 말(馬)형 어절이며, 명사 단일어 혹은 복합어가 단독형 혹은 곡용형으로 실현된 예들이다.

(58) 가. 창원: 거울(鏡)[HL], 주름[HL], 가마이[HLL], 메느리[HLL], 공립학교[HLLL], 미숫가리[HLLL], 아지매[HLL], 아지매는[HLLL], 아지매하고[HLLL]

나. 사천: 거울(鏡)[HL], 주름살[HLL], 가마이[HLL], 메느리[HLL], 공립학교[HLLL], 미숫가리[HLLL], 아지매[HLL], 아지매[HLLL], 아지매하고[HLLL]

(58)의 가, 나에서 알 수 있듯, 첫 음절에 고조가 놓이는 말(馬)형 어절은 창원방언과 사천방언의 예들이 동일하게 ‘[HLLL...]’과 같이 실현된다. 이는 [L1HL]화가 제1음절에 고조가 놓이고 이내 음고가 떨어지는 말(馬)형 어절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이문규, 2017).

(59) 가. 거창: 아으레[LHL], 여드레[LHL], 라면이라도[LLLHL], 담뱃굴[LHL], 일어성개(일어서니까)[LLHL]

나. 김천: 배(船)타고[LHL], 파디비났어(파 뒤집어 놓았어) [LLLHL]



그런데 [L1HL]화의 적용 영역은 확장되어 원래 그 적용 영역이 아니었던 환경에서도 [L1HL]화가 실현되기도 한다. (59)의 가, 나는 이문규(2017)에서 제시한 경남 거창방언과 경북 김천방언의 자료인데, 기저에 ‘/HLL/’과 같은 성조를 가진 어절뿐만 아니라(‘아으레’, ‘여드레’), 말(斗)형[‘배(船) 타고’] 혹은 말(語)형(‘라면이라도’, ‘담뱃굴’) 어절에도 [L1HL]화가 적용되고 있어, 이 현상이 매우 생산적이며 광범위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이문규, 2017).

다음의 (60)의 가, 나와 (61)의 가, 나은=는 두 번째 음절 이하에 고조가 놓이는 말(馬)형 어절의 명사 단일어 혹은 복합어가 단독형 혹은 곡용형으로 실현된 예이다.

(60) 가. 창원: 다리[LH], 바람[LH], 그림자[LHL], 막걸리[LHL], 다리비질[LHLL], 초아으레[LHLL], 손가락[LHL], 손가락이[LHLL], 손가락에서[LHLLL], 손가락에서도[LHLLL]

나. 사천: 다리[LH], 바람[LH], 그림자[LHL], 막걸리[LHL], 다리비질[LLHL], 초아으레[LLHL], 손가락[LHL], 손가락이[LLHL], 손가락에서[LLLHL], 손가락에서도[LLLHL]

(61) 가. 창원: 산나물[LLH], 새다리(梯)[LLH], 초하루[LLH], 갈가마구[LLHL], 호불애비[LLHL], 아주까리잎사구[LLHLLLL], 가매솔[LLH], 가매솔이[LLHL], 가매솔에서[LLHLL], 가매솔에서도[LLHLLL]

나. 사천: 산나물[LHL], 새드레(梯)[LHL], 초하리[LHL], 갈가마구[LLHL], 호불애비[LLHL], 아주까리잎사구[LLLLLHL], 가매솔[LHL], 가매솔이[LLHL], 가매솔에서[LLLHL], 가매솔에서도[LLLHL]

창원방언의 예들은 각각 (60)의 가에서는 두 번째 음절에, (61)의 가에서는 세 번째 음절에 고조가 놓이는 데 비해, (60)의 나와 (61)의 나의 사천방언의 예들은 ‘다리[LH], 바람[LH]’의 예를 제외하고는 음절수에 관계없이 어절의 끝에서 두 번째 음절에 고조가 놓여진다. 이 예들은 [L1HL]화가 체언의 단독형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체언+조사’, ‘용언+어미’ 등 어절을 이룰 수만 있다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한편, 임석규(2014)는 고성·통영·거제에서 어간의 마지막 음절에 고조가 오는 말(馬)형 체언 어간의 경우 그 단독형만 [L1HL]화를 입고 곡용형이 아니라고 했다. 즉, 고성·통영·거제방언은 경남 동부 방언과 경남 서부 방언의 접촉 방언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다. 아래의 (63)은 임석규(2011, 2014)에서 제시한 자료를 본고의 성조 표기 방법에 따라 옮긴 것이다. 고성·통영·거제의 ‘기와집’, ‘조선무시’의 단독형은 그 서쪽 지역의 성조와 일치하고, 곡용형은 그 동쪽 지역과 일치한다. 이는 고성·통영·거제에서 끝음절에 고조가 오는 말(馬)형 체언의 단독형이 서부의 [L1HL]화에 영향을 받아 ‘[LHL], [LLHL], ...’과 같이 실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2) 말(斗)형

경남방언의 말(斗)형은 ‘[HHLLL...]’과 같이 어절의 앞 두 음절은 비슷하게 높게 실현되고, 제3음절 이하는 낮아지는 어절 성조형이다. 말(斗)형에 관해서는 경남의 동·서뿐만 아니라, 경북과 경남이 동일한 실현 양상을 보인다. 다음의 (62)의 가, 나, 는 각각 창원방언과 사천방언의 말(斗)형 어절이며, 명사 단일어 혹은 복합어가 단독형 혹은 곡용형으로 실현된 예들이다.

(62) 가. 창원: 구름[HH], 파리[HH], 허깨비[HHL], 흠애비[HHL], 국민책고  
[HHLL], 수양버들[HHLL], 색동저고리[HHLLL], 참새새끼[HHLL],  
참새새끼는[HHLLL], 참새새끼하고[HHLLLL]

나. 사천: 구름[HH], 파리[HH], 허깨비[HHL], 흠애비[HHL], 국민책조  
[HHLL], 수양버들[HHLL], 색동저고리[HHLLL], 참새새끼[HHLL],  
참새새끼는[HHLLL], 참새새끼하고[HHLLLL]

(62)의 가, 나의 예에서와 같이, 창원방언과 사천방언의 말(斗)형은 음절  
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HHLLL…]’로 실현됨을 알 수 있다.

### 3) 말(語)형

말(語)형은 경남 내에서도 하위 방언마다 그 실현 양상의 차이가 가장  
큰 성조형이라고 할 수 있다. 말(語)형의 실현을 기준으로 경남을 거칠게  
나누자면, 울산·거창 등 경북방언처럼 첫 음절이 상승조로 실현되는 지  
역, 부산·김해·창원 등 ‘[LHHLL…]’과 같이 실현되는 지역, 그리고 진  
주·사천·고성 등 ‘[LHLLL…]’로 실현되는 지역, 이렇게 세 지역으로 나  
눌 수 있다. 다음 (63)의 가, 나, 다는 각각 울산, 창원, 사천방언의 상성형  
어절이며, 명사 단일어 혹은 복합어가 단독형 혹은 곡용형으로 실현된 예  
들이다.

(63) 가. 울산: 도치[RH], 사람[RH], 거머리[RHL], 사투리[RHL], 고구마  
[RHL], 거짓말재이[RHLLL], 대추[RH] 대추가[RHL] 대추에서  
[RHLL] 대추에서도[RHLLL]

나. 창원: 도끼[LH], 사람[LH], 거머리[LHH], 사투리[LHH], 고구매순  
[LHH], 거짓말재이[LHHLL], 대추[LH] 대추가[LHH] 대추에서

[LHHL] 대추에서도[LHHLL]

다. 사천: 도끼[LH], 사람[LH], 거머리[LHL], 사투리[LHL], 고오매순  
[LHLL], 거짓말재이[LHLLL], 대추[LH] 대추가[LHL] 대추에서  
[LHLL] 대추에서도[LHLLL]

(63)의 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울산방언의 ‘말(語)형’은 첫 음절이 경북방언과 동일하게 상승조를 동반하여 ‘[RHLLL...]’과 같이 나타난다. 이러한 이유로 울산·거창 지역은 행정구역상으로는 경남에 속하지만 성조론적으로는 경북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63)의 나의 창원방언은 제2, 3 음절이 높은 ‘[LHHLL...]’으로 실현되는 데 비해, 사천방언은 (63)의 다에서처럼 제2음절만이 높은 ‘[LHLLL...]’로 나타난다.

한편, 경북에 맞닿아 있는 밀양·창녕 등에서는 ‘말(語)형’의 음성적 실현이 전형적인 경남방언과 다를 뿐 아니라, 경남·경북 간의 전이적 특성을 가진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sup>22)</sup> 문효근(1974)은 밀양에서는 ‘말(語)형’ 용언의 ‘첫 음절을 부산에 비하여 높이에서는 얼마간 더 높게, 길이에서는 얼마간 더 길게’ 소리 낸다고 보고하였다.

김차균(2002a)에서도 비슷한 관찰이 발견되는데, 밀양의 ‘말(語)형’이 대체로 상승을 동반하면서 1.5 모라 정도로 길고, 제3음절이 낮게 발음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문규(2011)에서는 밀양·창녕방언의 말(語)형의 ‘첫 음절 음고가 더 높은 음역대에서 발음될수록, 그리고 상승의 폭이 커질수록 이 음고로 시작하는 성조형의 제3음절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흡사 경북 내륙 방언의 말(語)형과 닮아진다는 것을 밝혔다(이문규, 2017). 즉, 밀양·창녕 등 경남·북 접경 지역에서 실현되는 말(語)형의 다양한 변화형은 경남방언형과 경북방언형의 전이적 양상을 드러내는 것이다.

22) 밀양에 대해서는 문효근(1974), 김차균(2002b), 이문규(2010), 밀양·창녕에 대해서는 이문규(2011) 참조.

<표3> 경남방언의 성조형과 그 실현

형태	특징	예
말(馬)형	어느 한 음절이 높게 두드러짐.	창원: 아지매하고[HLLLL] 사천: 아지매하고[HLLLL] 거창: 라면이라도[LLLHL] 김천: 파디비났어[LLLHL]
말(斗)형	어절의 앞 두 음절은 비슷하게 높게 실현되고, 제3음절 이하는 낮아지는 어절 성조형	창원: 참새새끼는[HHLHL] 사천: 참새새끼는[HHLHL]
말(語)형	제2, 3음절이 높게 실현되는 성조형	울산: 거짓말재이[RHLLL] 창원: 대추에서도[LHHLL] 사천: 대추에서도[LHLLL]

#### 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성조형의 변화 양상

성조형의 또 다른 변화는 경남방언 청년층에서 보이는 말(語)형과 저조로 시작하는 말(馬)형의 합류 현상이다. 이러한 합류는 경남 서부 방언(진주방언)과 동부 방언(부산방언)에서 각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결과적으로 경남의 두 하위 방언 모두 성조형이 과거에 비해 단순화된다.

김차균(1980)에 따르면 진주방언에서 말(語)형에 기원을 둔 ‘[LHLL], [LHLLL], [LHLLLL]...’ 등의 성조형은 [L1HL]화를 입지 않기 때문에 뒤에서 두 번째 음절이 높은 ‘[LLHL], [LLLHL], [LLLLHL]...’ 등으로는 실현되지 않음을 밝혔다. 그런데 伊藤貴祥(이토 다카요시)(2011)의 조사 결과, 2011년 당시 진주 청년층에서는 말(語)형이 말(馬)형에 합류하여, [L1HL]화에 참여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2·3음절 말(語)형 체언 어간

과 제2음절에 고조가 놓이는 말(馬)형 체언 어간의 곡용형이 이 지역 청년층에서 동일하게 실현된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경남 동부 방언에서도 경남 서부 방언에서 발견된 말(語)과 말(馬)의 합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는 3음절 체언 어간만이 말(語)형과 말(馬)형의 합류를 보인다는 점(즉, 2음절 체언 어간에서는 합류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합류의 방향이 말(馬)형이 아닌 말(語)형이라는 점[즉, 말(馬)형이 말(語)형에 합류된다]에서 경남 서부 방언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부산방언의 말(語)형 체언 ‘사람’은 말(馬)형 체언인 ‘바람’과 곡용형의 성조 실현에서 차이를 보인다. ‘사람’의 곡용형은 어절의 음절수에 관계없이 항상 제2, 3음절에 고조가 놓이는 ‘[LHHLL...]’과 같이 실현된다. 반면 ‘바람’의 곡용형은 ‘-부터’, ‘-까지’ 등 2음절 이상의 보조사와 결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음절에 고조가 놓여진다. 이때 ‘사람’과 ‘바람’의 곡용형의 성조는 노년층과 청년층 모두에서 구분된다.

그런데 2음절 체언 어간과는 달리, 3음절 체언에서는 노년층과 청년층의 성조 실현이 달리 나타난다. 즉, 노년층의 경우 말(語)형과 제3음절에 고조가 놓이는 말(馬)형 체언의 곡용형에 구별이 있는 데 비해, 청년층의 경우 제3음절에 고조가 놓이는 말(馬)형 체언이 말(語)형 체언에 합류한 모습을 보인다.

지금까지 지난 60여 년간 축적된 연구 업적들을 바탕으로 경남방언의 성조 전반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경남방언 성조형의 단순화 방향은 한국어 성조의 통시적인 변화 과정과 맥을 같이 하고, 한국어 성조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V. 결론

본 연구는 한국어 성조체계의 변화과정을 그동안의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논의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한국어 성조 변화과정을 조사하기 위해 한국에서 발표된 기존의 성조 관련 연구물을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 결과 중세 한국어는 단어의 높낮이가 변별력을 가지고 있던 성조언어였다.

중세 한국어 당시 『훈민정음(訓民正音)』 창제자는 방점을 통한 성조 표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15세기 중부 방언에서는 성조가 상당히 약화되어 가고 있었다. 이 추세는 갈수록 심해져, 16세기에는 그 혼란상이 극에 달했으며, 음고 악센트의 형태로 변화되었다가 결국 소멸되었다.

성조의 변화는 현대 한국어 방언을 공식적으로 분석할 때에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한국어 방언의 경우 그 전이지대에서 성조형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고, 청년층의 언어에서도 그 변화가 확인된다. 이렇게 본다면 성조는 분명 고정불변의 것이 아닌 유동성을 지니고 있다. 중세 한국어 당시의 성조 논의 역시 성조의 ‘존재/부재’의 이분법적 성격이 아닌, ‘성조성의 정도’를 논해야 할 것이다.

『훈민정음(訓民正音)』의 창제자는 방점이라는 매우 독특하고 창의적인 성조 표기 방식을 고안하였으면서도, 그러한 표기 방식의 창제 원리에 대해서는 어디서도 설명을 하지 않았다. 현대의 연구자들도 지금까지 『훈민정음(訓民正音)』의 자음자와 모음자의 창제 원리나 기원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를 해왔지만, “평성은 점을 찍지 않고, 거성은 글자 왼쪽에 점을 하나 찍으며, 상성은 글자 왼쪽에 점 두 개를 찍는 방식”의 기원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풀어 나아가야 할 과제이다.

이 형태소 성조언어는 15세기부터 조금씩 변화를 일으키더니, 16세기에  
는 큰 폭으로 변화하고 만다. 형태소마다 자신의 고유한 성조를 지니던 15  
세기 성조체계는 결국 16세기에 들어서는 각 어절에서 첫 거성의 위치만  
이 의미 있는 음고 악센트언어로 변화였다.

이렇게 볼 때 15세기 율동규칙의 예외였던 대부분의 예들은 그 이전 시  
기 해당 형태소 앞에 휴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15세기 이전  
어느 시점에는 문법형태소의 성조 정보가 중요하지 않았을 것이라 추정된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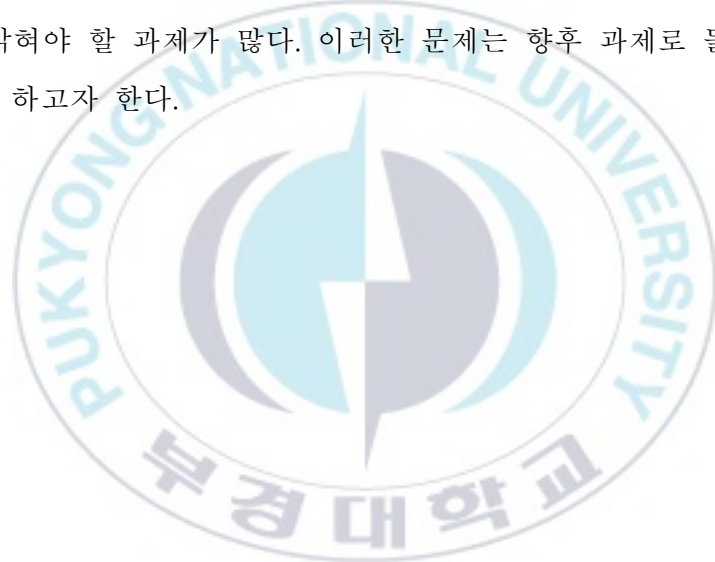
『계림유사(鷄林類事)』가 적힌 1103년과 『조선관역어(朝鮮館驛語)』의  
상한선인 1408년 사이에 어미의 성조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당시의 어미 또는 문법형태소의 성조 정보가 중  
요하지 않았음을 지지한다고 하겠다. 결국 15세기에 보이는 형태소 성조체  
계가 발달하기 전에는 어휘 형태소의 성조만이 중요한 음고 악센트 체계  
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6세기에 접어들면서 전면적인 음고 악센트화  
가 진행된다.

지금까지 중세 한국어의 성조 소멸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  
어 있지만 그러한 견해는 모두가 문헌어에 나타난 성조 표기의 변화를 기  
준으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중국, 일본과 동남방언의 성조가 천 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과 경흥방언의 성조가 백 년 동안에 아무 변화가 없  
었다는 사실은 불과 70년도 못 되는 기간 사이에 나타나는 문헌어의 성조  
표기 변화가 성조의 소멸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 기간에 나타난 성조 표기  
의 변화 원인을 다른 데에서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훈몽자  
회(訓蒙字會)』 이후의 문헌에 나타나는 성조 표기의 변화는 15세기 한국  
어가 16세기 한국어로 연결되면서 겪은 실제의 성조 변화를 반영하는 것

이 아니라 『훈민정음(訓民正音)』에 규정한 이상적(理想的)인 성조 표기가 16세기에 와서 현실적인 성조 표기로 바뀌면서 발생하는 혼란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성조 연구는 방점의 본질, 중세 한국어, 중국 한자음과의 연관성, 방언 등 각 측면에서 접근이 이루어졌다. 본고에서는 그 중에서도 성조의 변화 양상을 집중적으로 탐구하여 보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필자는 뚜렷한 견해를 밝히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라고 본다.

성조 연구에 있어서는 방점의 기원 문제, 훈민정음 창제자의 성조 인식 등 아직 밝혀야 할 과제가 많다. 이러한 문제는 향후 과제로 돌리고, 본고를 맺음을 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국립국어연구원(1996), 『국어의 시대별 변천·실태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 국어사연구회(1997), 『국어사연구』, 태학사.
- 김완진(1977), 『중세국어 성조의 연구』, 탑출판사.(=김완진(1973). 「중세국어성조의 연구」 (『국어학기요』 제1집),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차균(1980), 『경상도방언의 성조 체계』, 과학사.
- \_\_\_\_\_(1993), 『우리말의 성조』, 태학사.
- \_\_\_\_\_(1998), 『나라말과 겨레의 슬기에 바탕을 둔 음운학 강의』, 태학사.
- \_\_\_\_\_(1999), 『우리말 방언 성조의 비교』, 역락.
- \_\_\_\_\_(2002), 『국어 방언 성조론』, 역락.
- 이기문(1978), 『국어사 개설』, 탑출판사.
- \_\_\_\_\_(1977), 『국어 음운사 연구』, 탑출판사.
- 이문규(2017), 『혀태소 성조형 중심의 국어 성조론』, 한국문화사.
- 이희승(1955), 『國語學概說』, 民衆書館.
- 전학석(1993), 『함경도방언의 음조에 대한 연구; 회령, 경성, 함주 지방말의 음조를 중심으로』, 태학사.
- 정연찬(1976), 『국어 성조에 관한 연구』, 일조각.
- 주시경(1908), 『국어문전음학』, 중앙인서관.
- 최명옥(2004), 『국어 음운론』, 태학사.
- 최현배(1937), 『한글갈』, 정음사.
- \_\_\_\_\_(1945), 『우리말본』, 정음사.
- 한국문화연구원(2002), 『국어학연구 50년』, 혜안.

## 2. 논문

- 강기향(1985), 「중세국어 성조와 경남 서북부 방언성조의 비교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석한(2011), 「제주방언 단음절 명사의 음성학적 액센트 유형과 중세국어 성조의 관계」, 『영주어문』 22, 영주어문학회, pp.5-21.
- 강신항(2006), 「훈민정음 해례의 설명에 나타난 몇 가지 문제」, 『국어사연구 어디까지 와 있는가』 (임용기·홍운표 편), 태학사, pp.303-331.
- 강홍구(2003a), 「삼척방언 성조와 음조에 대한 연구」, 『개신어문연구』 20, 개신어문학회, pp.47-69.
- 강홍구(2003b), 「울진방언 성조와 음조에 대한 연구」, 『어문연구』 43, 어문연구회, pp.31-52.
- 고설정(2014), 「한국어 한자어 장단 양용 한자음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곽충구(1991), 「함북 길주지역어 성조의 상승조에 대하여」,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 (김완진 선생 회갑기념논총), 민음사, pp.252-277.
- 구현옥(2003), 「국어 성조 기술 방법 비교 연구」, 『한글』 260, 한글학회, pp.5-40.
- 권인한(1991), 「여대 성조의 재구를 위한 기초적 연구」, 『국어학』 21, 국어학회, pp.209-233.
- \_\_\_\_\_(2016), 「고대 한국한자음의 연구(I): 최근 발굴된 각필 성점 자료를 중심으로」, 『구결연구』 37, 구결학회, pp.5-38.
- 권재선(1974), 「신라어의 성조 연구」, 『신라시대의 언어와 문학(한국어문화대계 1)』, 한국어문학회, pp.103-165.
- 김고은(2018), 「경남방언의 성조」, 『방언학』 28, 한국방언학회, pp.83-108.
- 김무식(1999), 「경북방언 용언의 성조형」, 『문학과 언어』 21, 문학과 언어학회, pp.1-33.
- \_\_\_\_\_(2005), 「경상도방언의 어절축약 현상과 억양」, 『어문학』 87, 한국어문학

- 회, pp.111-130.
- 김병욱(1989), 「중세국어 중모음의 성조 연구」, 『인천대학교 논문집』 14, pp.23-39.
- 김봉국(1998), 「삼척지역어의 성조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_\_\_\_\_(2004), 「함북 육진방언의 복합성조」, 『국어교육』 113, 한국어교육학회, pp.525-543.
- \_\_\_\_\_(2018), 「강원방언의 성조」, 『방언학』 28, 한국방언학회, pp.39-62.
- 김성규(1988), 「성조의 재구방법」, 『국어국문학』 100, 국어국문학회, pp.9-19.
- \_\_\_\_\_(1991), 「성조 울동 재구」,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김완진 선생 회갑기념 논총)』, 민음사, pp.23-46.
- \_\_\_\_\_(1994), 「중세국어의 성조 변화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2004), 「계림유사와 15세기 국어의 성조 비교」, 『어문논집』 49, 민족어문학회, pp.145-182.
- \_\_\_\_\_(2009a), 「15세기 한국어 성조의 성격에 대하여」, 『국어학』 56, 국어학회, pp.3-31.
- \_\_\_\_\_(2009b), 「중세국어 음운론의 쟁점」, 『국어사연구』 9, 국어사학회, pp.41-68.
- \_\_\_\_\_(2011), 「성조에 의한 어미의 분류: 중세국어를 중심으로」, 『구결연구』 27, 구결학회, pp.243-295.
- 김성환(1988), 「중세국어 성조의 변이와 성조형」, 『대구교육대학교 논문집』 22, pp.23-37.
- 김세진(2006a), 「경남 서남부 방언의 성조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2006b), 「창원방언과 남해방언의 성조체계 비교」, 『한글』 274, 한글학회, pp.5-62.
- \_\_\_\_\_(2011), 「창원방언 성조체계에서 중고한음 평성의 반영」, 『한글』 293, 한글학회, pp.5-82.
- \_\_\_\_\_(2012), 「소학언해와 창원방언 한자어 성조의 비교」, 『어문연구』 74, 어문연



- 구학회, pp.5-71.
- \_\_\_\_\_(2015), 「『번역소학』과 『소학언해』에 나타난 우리말 한자 형태소 성조 대응의 양상」, 『한글』 310, 한글학회, pp.5-136.
- 김세환(2006), 「경북방언의 '다리'^(他)'에 관하여: 비모음화(鼻母音化)와 성조를 중심으로」, 『방언학』 3, 한국방언학회, pp.157-176.
- \_\_\_\_\_(2013), 「청송방언 합성어의 성조 변이에 대한 시론」, 『방언학』 17, pp.33-56.
- \_\_\_\_\_(2018), 「경북방언의 성조」, 『방언학』 28, 한국방언학회, pp.63-81.
- 김영국(1994), 「15세기 국어의 사성체계와 방점에 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1995), 「훈민정음 창제 이전의 성조재구설에 대한 비판」, 『동악어문논집』 30, 동악어문학회, pp.73-94.
- \_\_\_\_\_(1996), 「훈민정음 창제 이후의 성조설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동악어문논집』 31, 동악어문학회, pp.111-134.
- \_\_\_\_\_(2001), 「한국어 성조설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상과 문화』 14, 한국사상문화학회, pp.29-62.
- 김영만(1972), 「고금 성조 비교 재론: 다음절어의 유형과 비교공식」, 『한글』 149, 한글학회, pp.387-420.
- \_\_\_\_\_(1974), 「국어 운율의 본질과 변천: 함경, 경상, 전라, 서울의 액센트와 중세 국어의 성조의 비교적 고찰」, 『국어국문학』 65·66, 국어국문학회, pp.29-51.
- \_\_\_\_\_(1976), 「성조(운율)의 문법적 기능과 음소·운소의 관계에 대한 고찰」, 『어문학』 34, 한국어문학회, pp.21-43.
- \_\_\_\_\_(1986), 「국어 초분절음소의 사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완진(1963), 「형태부 성조의 동요에 대하여」, 『서강대학논문집』 1, pp.55-78.
- (김완진(1971, 『국어음운체계의 연구』, 일조각.)에 재수록)

- \_\_\_\_\_(1999), 「나의 책 나의 학문」. 『새국어생활』 90-2, 국립국어원, pp.145-153.
- 김주원(1991), 「경상도방언의 고조의 본질과 중세국어 성조와의 대응에 대하여」, 『언어학』 13, 한국언어학회, pp.75-93.
- \_\_\_\_\_(1995), 「중세국어 성조와 경상도방언 성조의 비교 연구: 『못노폰 소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중심으로」, 『언어』 20-2, 한국언어학회, pp.1-28.
- \_\_\_\_\_(2000), 「영남방언 성조의 특성과 그 발달」, 『어문학』 69, 한국어문학회, pp.91-114.
- \_\_\_\_\_(2003), 「강원도 동해안 방언 성조의 특성」, 『민족문화논총』 27,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pp.249-283.
- 김차균(1985), 「중세국어와 경상도방언의 성조의 대응관계 기술의 방법」, 『역사 언어학, 김방한 선생 회갑기념 논문집』, pp.203-240.
- \_\_\_\_\_(1989), 「16세기 국어의 변동 평성 어간의 성조」, 『언어』 16, 충남대학교 어학연구소, pp.17-58.
- \_\_\_\_\_(1990), 「16세기 국어 고정 평성형 풀이씨 어간과 굴곡 접사의 성조」, 『충남대학교 논문집』 17,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5-45.
- \_\_\_\_\_(1991), 「방점법과 성조의 대응관계: 소학언해 토박이말 이름씨의 방점을 근거로 하여」, 『충남대학교 논문집』 37,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5-86.
- \_\_\_\_\_(2002a), 「밀양방언과 안동방언 성조의 비교」, 『배달말』 31, 배달말학회, pp.323-492.
- \_\_\_\_\_(2002b), 「안동방언과 밀양방언 성조 비교」, 『어문연구』 39, 어문연구학회, pp.5-93.
- \_\_\_\_\_(2003), 「우리말 성조 방언에서 반평성과 반거성」, 『한말연구』 13, 한말연구학회, pp.105-144.
- \_\_\_\_\_(2004), 「우리말 성조 연구에서 방점 표상과 성조 표상」, 『한글』 265, 한

- 글학회, pp.5-55.
- \_\_\_\_\_(2010), 「중세국어와 창원방언 성조의 비교: 훈민정음 해례과 소학언해 범례의 방점 자료에 바탕을 두고」, 『한글』 290, 한글학회, pp.5-72.
- \_\_\_\_\_(2018), 「고성방언과 창원방언 풀이씨 성조형의 비교: 변동 평성형 풀이씨 성조형에 무게를 두고」, 『한글』 321, 한글학회, pp.515-555.
- 김태경(2008), 「상용한자의 장음 표기와 중국어 성조」, 『중국어문학논집』 50, 중국어문학연구회, pp.91-108.
- 김한별(2013), 「중세국어 고정적 상성 어간의 성조 변이: 'ㅣ'(y) 말음 1음절 용언 어간을 중심으로」, 『국어학』 68, 국어학회, pp.445-474.
- 남기탁(2013), 「국어 성조 연구」, 『어문논집』 56, 어문학회, pp.33-61.
- 리극로(1963), 「북청 방언의 조 (調) 연구」, 『평양: 조선어학』 3, pp.13-18.
- 문효근(1973), 「한국어 성조의 분석적 연구: 15세기 성조의 기본적 구별과 상성에 대하여」, 『연세논집』 10(1), 연세대학교 대학원, pp.23-56.
- \_\_\_\_\_(1974), 「한국어성조의 분석적 연구: 15세기 성조와 방언 성조와의 대조」,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병채(1990), 「중기국어의 성조 비교 연구: SK와 SV의 비교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23,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1-73.
- 박숙희(2005), 「경북 동해안 방언의 성조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2011), 「경남방언 외래어의 성조형: 양산·사천 지역을 중심으로」, 『한글』 291, 한글학회, pp.73-124.
- \_\_\_\_\_(2012), 「강원방언 외래어의 성조형」, 『어문학』 118, 한국어문학회, pp.1-35.
- \_\_\_\_\_(2014), 「상승조 성조의 음조 변이 방향」, 『어문학』 125, 한국어문학회, pp.71-93.
- 박진혁(2014), 「함북경흥 지역어의 성조론」,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2018), 「함경방언의 성조: 음고의 유형론을 중심으로」, 『방언학』 28, 한국방

- 언학회, pp.5-38.
- 백금란(2019), 「함경남도 신흥 방언의 성조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재극(1970), 「15세기 음운연구의 현황과 반성」, 『어문학』 22, 한국어문학회, pp.55-61.
- 손주일(1983), 「국어성조 연구의 현황과 과제」, 『전주우석대학 논문집』 5, 전주우석대학, pp.21-39.
- 안병희 외(1997), 「언어 연구의 회고와 전망」, 『인문논총』 38, 서울대 인문학연구소, pp.1-86
- 안영희(1984), 「국어 방점에 대한 연구: 중국어성조 현상과 관련지어」, 『숙명여자대학교 논문집』 25, 숙명여자대학교, pp.215-238.
- 오종갑(1974), 「16C 국어성조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희재(2001), 「중세국어 성조 연구사」, 『울산어문논집』 15, 울산대학교, pp.133-158.
- \_\_\_\_\_(2011), 「후기중세국어 '거, 아/어'계 어미의 성조와 형태 분석」, 『진단학보』 111, 진단학회, pp.243- 262.
- \_\_\_\_\_(2014), 「중세국어 평성, 상성 변동 명사와 관련 제약」, 『어학연구』 50-3, 서울대 언어연구소, pp.697-713.
- 이근열(2008), 「부산방언 성조 변천 연구」, 『방언학』 8, 한국방언학회, pp.143-167.
- 이기문(1960), 「소학언해에 대하여」, 『한글』 127, 한글학회, pp.50-69.
- \_\_\_\_외(1991), 「한국어 방언의 기초적 연구」, 『대한민국학술원 논문집』 (인문 사회과학 편) 30, 대한민국학술원, pp.45-143.
- \_\_\_\_\_(2006), 「국어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 『국어사 연구 어디까지 와 있는가』 (임용기·홍윤표 편), 태학사, pp.445-70.
- 이동화(1999), 「국어한자음의 성조 변화」, 『한민족어문학』 34, 한민족어문학회, pp.155-171.
- 이문규(1997), 「경북방언(안+용언)의 성조 현상」, 『한글』 238, 한글학회, pp.33-65.

- \_\_\_\_\_(2001), 「방언 의문문의 성조 연구」, 『한글』 252, 한글학회, pp.5-44.
- \_\_\_\_\_(2006), 「국어 성조체계의 성조형 대응 양상」, 『어문학』 93, 한국어문학회, pp.109-137.
- \_\_\_\_\_(2011), 「국어 방언 성조의 성격과 성조체계 기술의 기본 단위」, 『국어학』 60, 국어학회, pp.68-98.
- \_\_\_\_\_(2013), 「국어 성조론에서의 성조형의 개념과 위상」, 『한글』 301, 한글학회, pp.5-42.
- \_\_\_\_\_(2014), 「성조론적 과정의 성격과 기술 방법」, 『어문학』 123, 한국어문학회, pp.91-122.
- \_\_\_\_\_(2016), 「음운변동의 개념과 유형」, 『국어교육연구』 60, 국어교육학회, pp.269-288.
- \_\_\_\_\_(2017), 「성조형 실현 규칙의 임의화와 16세기 말엽의 성조체계」, 『어문학』 137, 한국어문학회, pp.79-110.
- \_\_\_\_\_(2018), 「국어 성조 체계의 ‘말(馬)’—형 선호 경향과 그 의의」, 『어문학』 141, 한국어문학회, pp.25-50.
- \_\_\_\_\_(2019), 「성조론의 두 단계 음운 과정과 경상방언의 성조형 분석」, 『방언학』 29, 한국방언학회, pp.5-37.
- 이상억(1990), 「성조」.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 \_\_\_\_\_(2000), 「음장(音長) 및 성조(聲調)」, 『새국어생활』 10(1), 국립국어연구원, pp.197-209.
- 이익섭(1972), 「강릉방언의 형태음소론적 고찰」, 『진단학보』 34, 진단학회, pp.99-119.
- 이준환(2019), 「『訓蒙字會』 訓에 실린 한자음의 성조 고찰」, 『국어학』 91, 국어학회, pp.57-112.
- 이진호(2015), 「중세국어의 성조 축약 양상과 제약」, 『국어학』 75, 국어학회, pp.59-83.

- 임석규(2003), 「동남방언의 성조소에 대한 재검토」, 『국어국문학』 135, 국어국문학회, pp.37-69.
- \_\_\_\_\_(2011), 「차용어의 성조패턴 L1HL에 대하여」, 『방언학』 13, 한국방언학회, pp.5-24.
- \_\_\_\_\_(2014), 「성조 현상을 토대로 한 방언구획론을 위하여」, 『방언학』 19, 한국방언학회, pp.5-40.
- \_\_\_\_\_(2019), 「성조방언의 비어두 장음에 관한 문제: 만두소:(LLR), 그래:도(LRH); 아랫마: (LLF), 바래:고(LFL) 유형」, 『어문연구』 47(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p.7-25.
- 정경원(2018), 「경남 산청 지역 방언의 성조체계 연구: 용언 굴절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연찬(1960), 「15세기 국어의 Tone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국어연구』 8.)
- \_\_\_\_\_(1969), 「국어 성조의 기능 부담량에 대하여」, 『여당 김재원 선생 회갑기념 논문집』. (정연찬 1976에 재수록)
- \_\_\_\_\_(1971), 「중세 성조와 경상도방언 성조의 비교」, 『한글학회 50돌 기념 논문집』, 한글학회, pp.19-46.
- \_\_\_\_\_(1974), 「소학언해 교정청본의 방점표기: 성조의 변화와 그 양상」, 『진단학보』 37, 진단학회, pp.179-114.(정연찬(1976)에 재수록)
- \_\_\_\_\_(1975), 「성조형과 그 변이의 의미」. 『동양학』 5,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pp.167-177.
- 정원수(1993), 「경북방언의 단어형성에 나타나는 성조변동 연구: 복합명사 형성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24, 충남대학교 문리과대학 어문연구회, pp.531-549.
- 조성문(2007), 「국어 성조체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 『동북아문화연구』 12, 동북아시아문화학회, pp.93-115.



- 진소정(1993), 「중세 한국어의 성조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명옥(1990), 「동남방언의 성조형과 그 분포」, 『제18회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대한민국 학술원, pp.67-88.
- \_\_\_\_\_(1994), 「경상도의 방언구획 시론」, 『우리말의 연구』, 우골답, pp.861-892.
- \_\_\_\_\_(1998), 「현대국어의 성조소체계」, 『국어학』 31, 국어학회, pp.23-52.
- \_\_\_\_\_(2019), 「중세 이전의 한국어는 성조언어였는가?」, 『국어학』 90, 국어학회, pp.3-42.
- 최영미(2009), 「정선방언의 성조체계와 그 역사적인 변천에 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2012), 「여씨향약언해 화산본의 성조 연구: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의 성조와 비교를 중심으로」, 『한말연구』 30, 한말연구학회, pp.283-326.
- \_\_\_\_\_(2013), 「정선방언의 비음절화와 성조의 변동」, 『한말연구』 33, 한말연구학회, pp.269-300.
- \_\_\_\_\_(2017a), 「강원방언 성조의 인지에 대한 방언차 연구」, 『한말연구』 46, 한말연구학회, pp.207-237.
- \_\_\_\_\_(2017b), 「국어 '가·다'류 동사의 성조 변이」, 『한말연구』 43, 한말연구학회, pp.271-305.
- \_\_\_\_\_(2019), 「영월방언 성조체계에 대한 연구: 음성·음운론적 관점에서」, 『한말연구』 53, 한말연구학회, pp.241-268.
- 한재영(1990), 「방점의 성격 구명을 위하여」, 『강신항 성생 화갑기념 국어학 논문집』 태학사, pp.241-262.
- 황보영식(2005), 「방언 간 성조변이와 방언 내 성조변이」, 『언어』 30(3), 한국언어학회, pp.583-609.
- 허웅(1954), 「경상도방언의 성조」, 『최현배 선생 환갑기념논문집』.
- \_\_\_\_\_(1955), 「방점 연구」, 『동방학지』 2, 연세대학교 동방학연구소, pp.39-194.

### 3. 해외자료

福井玲(2003), 「朝鮮語音史の諸問題」, 『音聲研究』 7-1, 日本音聲會, pp.23-34.

河野六郎(1945), 「朝鮮方言學試攷-銑語攷」, 『東都書籍』, 서울.

\_\_\_\_\_(1979), 「諺文古文獻の聲點に就いて」, 『河野六郎著作集』 第1卷, 平凡社, pp.407-445.

伊藤貴祥(2011), 「청년층 동남방언의 상성형 변화 양상」, 『국어학』 60, 국어학회, pp.182-210.

\_\_\_\_\_(2015), 「中世韓國語 去聲 1音節 體言의 平聲化 : 平聲化의 音韻論的 條件을 中心으로」, 『국어학』 76, 국어학회, pp.3-37.

趙義成(2002), 「中期朝鮮語アクセント小攷」, 『朝鮮語研究』 1, 朝鮮語研究會, pp.57-64.

Goldsmith, M.(1994), 「Tone Languages」, 『The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Linguistics』 Vol 9, edited by R. E. Asher, Pergamon Press, pp.4626-4628.

Laver, John.(1994), 「Principles of Phone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McCawley, J. D.(1978), 「What is a Tone Language?」, 『Tone: A Linguistic Survey』, edited by V. A. Fromkin, Academic Press, New York.

Pike, K. L.(1948), 「Tone Languages」, The Univ. of Michigan Press, Ann Arbor.

Ramsey, S. R.(1978), 『Accent and Morphology in Korean Dialects: A Descriptive and Historical Study』, Tower Press.

## 한국어 성조 연구에 관한 역사적 연구

왕 영 준

부경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 요약

본 연구는 한국어 성조체계의 변화과정을 그동안의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논의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한국어 성조 변화과정을 조사하기 위해 한국에서 발표된 기존의 성조 관련 연구물을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 결과 중세 한국어는 단어의 높낮이가 변별력을 가지고 있던 성조언어였다.

중세 한국어 당시 『훈민정음(訓民正音)』 창제자는 방점을 통한 성조 표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15세기 중부 방언에서는 성조가 상당히 약화되어 가고 있었다. 이 추세는 갈수록 심해져, 16세기에는 그 혼란상이 극에 달했으며, 음고 악센트의 형태로 변화되었다가 결국 소멸되었다.

성조의 변화는 현대 한국어 방언을 공시적으로 분석할 때에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한국어 방언의 경우 그 전이지대에서 성조형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고, 청년층의 언어에서도 그 변화가 확인된다. 이렇게 본다면 성조는 분명 고정불변의 것이 아닌 유동성을 지니고 있다. 중세 한국어 당시의 성조 논의 역시 성조의 ‘존재/부재’의 이분법적 성격이 아닌, ‘성조성의 정도’를 논해야 할 것이다.

『훈민정음(訓民正音)』의 창제자는 방점이라는 매우 독특하고 창의적인 성조 표기 방식을 고안하였으면서도, 그러한 표기 방식의 창제 원리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도 설명을 하지 않았다. 현대의 연구자들도 지금까지 『훈민정음(訓民正音)』의 자음자와 모음자의 창제 원리나 기원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를 해왔지만, “평성은 점을 찍지 않고, 거성은 글자 왼쪽에 점을 하나 찍으며, 상성은 글자 왼쪽에 점 두 개를 찍는 방식”의 기원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앞으로 관심

을 갖고 풀어 나아가야 할 과제이다.

이 형태소 성조언어는 15세기부터 조금씩 변화를 일으키더니, 16세기에는 큰 폭으로 변화하고 만다. 형태소마다 자신의 고유한 성조를 지니던 15세기 성조체계는 결국 16세기에 들어서서 각 어절에서 첫 거성의 위치만이 의미 있는 음고 악센트 언어로 변화였다.

이렇게 볼 때 15세기 율동규칙의 예외였던 대부분의 예들은 그 이전 시기 해당 형태소 앞에 휴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15세기 이전 어느 시점에는 문법형태소의 성조 정보가 중요하지 않았을 것이라 추정된다.

『계림유사(鷄林類事)』가 적힌 1103년과 『조선관역어(朝鮮館驛語)』의 상한선인 1408년 사이에 어미의 성조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당시의 어미 또는 문법형태소의 성조 정보가 중요하지 않았음을 지지한다고 하겠다. 결국 15세기에 보이는 형태소 성조체계가 발달하기 전에는 어휘 형태소의 성조만이 중요한 음고 악센트 체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6세기에 접어들면서 전면적인 음고 악센트화가 진행된다.

지금까지 중세 한국어의 성조 소멸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 있지만 그러한 견해는 모두가 문헌어에 나타난 성조 표기의 변화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중국, 일본과 동남방언의 성조가 천 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과 경흥방언의 성조가 백 년 동안에 아무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은 불과 70년도 못 되는 기간 사이에 나타나는 문헌어의 성조표기 변화가 성조의 소멸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 기간에 나타난 성조 표기의 변화 원인을 다른 데에서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성조 연구는 방점의 본질, 중세 한국어, 중국 한자음과의 연관성, 방언 등 각 측면에서 접근이 이루어졌다. 본고에서는 그 중에서도 성조의 변화 양상을 집중적으로 탐구하여 보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필자는 뚜렷한 견해를 밝히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라고 본다.

성조 연구에 있어서는 방점의 기원 문제, 『훈민정음(訓民正音)』 창제자의 성조 인식 등 아직 밝혀야 할 과제가 많다. 이러한 문제는 향후 과제로 돌리고, 본고를 맺음을 하고자 한다.